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주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家族主義·祭禮意識·祭禮行禮가
祭禮滿足에 미치는 影響

－ 既婚男女의 忌祭祀를 中心으로 －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 소비자학과

김 계 숙

家族主義·祭禮意識·祭禮行禮가
祭禮滿足에 미치는 影響

－ 既婚男女의 忌祭祀를 中心으로 －

김 주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 소비자학과

김 계 숙

인 준 서

김계숙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오늘날 사회 전부분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우리사회의 제례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제례절차나 규모도 많이 변화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시간의 쪼김은 제수준비에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제례풍조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제례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제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제례만족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제례를 주관하고 제수(祭需)준비를 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기제사를 중심으로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및 제사음식으로 한정하여 그 각각에 대한 의식과 행례 및 만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례를 수행할 때 빚어지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며 바람직한 제례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즉,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의 일반적인 경향,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과의 관계,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 했을 때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인과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경기도지역(400부)은 특정지역을 정하지 않고 표집 하였으며 강원도(100부)는 원주·강릉지역, 충청도(200부)는 대전·예산·공주·충주지역, 경상

도(100부)는 안동·부산지역, 전라도(100부)는 전주·임실지역, 제주도(100부)는 제주·서귀포지역 등을 포함한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1,000부를 배부하였으나 수거되지 않은 것과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67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Cronbach's α 의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 가족주의는 중간점을 상회하여 중도적인 가족주의를 보였다. 또한 기혼남녀들은 제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제례행례 또한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소 높은 제례만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출신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무교·기타종교인보다 유교인과 불교인인 경우, 서울·경기도보다는 충청도·경상도 및 전라도가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졸이하보다는 대졸이상은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종교, 출신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무교·기타종교인보다는 유교인과 불교인인 경우, 서울·경기도보다는 전라도가 제례의식에 있어 전통지향적으로 나타났지만, 무교·기타종교인보다는 기독교인은 제례의식이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종교, 직업, 출신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무교·기타종

교인 보다는 유교인인 경우, 전업주부·무직보다는 전문관리직인 경우, 서울·경기도보다는 충청도·경상도가 제례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무교·기타종교인보다는 기독교·천주교인은 제례행례를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제례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혼남녀의 가족주의는 전체 제례의식과 그 하위변인인 제사인식·제사기능, 전체 제례행례와 그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제사용품, 그리고 전체 제례만족과 그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제사절차·제사용품·제사행위자 및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의식은 전통지향적이며 제례행례 중 제사절차·제사용품에 대한 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며, 또한 제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은 제례행례변인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 전체 제례만족과 그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제사절차·제사용품·제사행위자 및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행례를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일 때 제례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기혼남녀의 제례행례는 제례만족 변인에서 그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할 때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주의와 제례의식이었다. 즉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의식이 전통

지향적일수록 제례만족이 높았다. 또한 가족주의는 제례의식을 매개로 하여 제례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향후 점점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가 변화 되고 제례의 식도 변화지향적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향후 제사의 변화 방향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제례만족을 높여 우리의 전통생활문화인 제례를 후손들에 의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일이 가족 간의 친목도모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제례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리며,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발한 의식변화 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가정의례를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이며 가정생활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혼남녀의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성립되므로 좀 더 정교한 척도개발과 표집에 의한 제례가 연구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건전 제례행례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종교간·신구세대간·다양한 가족형태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족 간의 제례에 대한 갈등 속에 전통제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살려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을 하는데 기초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1. 제례의 기원과 의의	5
2. 제례의 역사적 변천	8
3. 제례의식	33
4. 제례행례	39
5. 제례만족	42
6. 가족주의	43
7.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관계	47
8. 가족주의 ·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고찰	48
III. 연구방법	57
1. 연구문제	57
2. 연구모형	57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59
4. 측정도구 구성	60
5. 자료분석 방법	69

IV. 연구결과 및 논의	7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1
2.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의 일반적 특성	73
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주의·제례의식·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77
4.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89
5.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행례 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99
6.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제례의식 및 제례행례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106
VIII. 결론 및 제언	114
1. 결론	114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120

참고문헌

ABSTRACT

설문지

부록

표 목 차

<표 1> 예서의 제례 진설법 비교	32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61
<표 3> 제례행례 점수화	66
<표 4>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계수	69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2
<표 6>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의 일반적 특성	74
<표 7>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주의에 미치는 영향력	78
<표 8>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80
<표 9>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	83
<표 10>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86
<표 11>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90
<표 12>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	93
<표 1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만족 미치는 영향력	96
<표 14>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 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	100
<표 15>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 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104
<표 16>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 가족주의 · 제례의식 및 제례행례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107

그림 목 차

<그림 1>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 연구모형의 구성	58
<그림 2>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의 경로모형	110
<그림 3>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 ...	111
<그림 4> 제례의식이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	112
<그림 5> 제례행례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	113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사회는 근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가족구조, 가족의 기능,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강조로 인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약화, 다문화 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원의 증가로 인한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번거롭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신세대들의 속성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정생활 시간부족은 조상숭배의 이념과 가정의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등에 대한 제례의식과 제례행례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친족관계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던 기존의 생활관이나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초래되었다. 제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과 제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 되었다고 본다.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제례에 대한 올바른 의미 구현과 가치 확립, 건전한 기품 조성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례 본연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각 가정의 생활수준에 알맞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올바른 제례문화 운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제례문화를 효율적이며 근대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으나(두경자, 2000, 2001; 박혜인, 2001) 실제 제례를 수행할 때는 근대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우·김명나, 1993; 이정우·김연화, 1999). 또한 이삼식·박종호·고덕기·박인(2000)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제례를 기피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가짓수 많은 제수(祭需) 마련의 번거로움’이나 ‘종교적 갈등으로 제례절차상의 이견’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기혼남녀의 제례행동을 근대적으로 수행할 때 제례만족이 높은 것으로 볼 때(이정우·김명나, 1993) 제례만족을 높이고 올바른 제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소화되고 합리적인 제례행례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지금까지의 제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나 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한경순, 1986; 김인옥, 1997; 이정우·김연화, 1999; 이삼식 외, 2000; 정복미·정해옥·김은실, 2004). 간혹 제례행례모형 개발을 위한 재구성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이삼식 외, 2000; 두경자, 2000, 2001; 박혜인, 2001; 청년여성문화원, 2006) 제례행례와 제례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정우·김명나, 1993)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제례음식 준비에 관한 연구(김은실, 2001; 박경란, 2002)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오늘날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으나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이삼식 외, 2000; 정복미 외, 2004)결과는 향후 제례에 대한 지속과 필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주의 가치관은 변화하였는데 가족주의 중심에 있는 제례에 대하여는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오늘날 종교간 · 친구세대간 · 다양한 가족형태와 다문화 가정¹⁾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가족 간의 제례에 대한 갈등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고, 집안 고유의 가족문화를 세우고 익히며, 제수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간에 소원했던 친척,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가 하나임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다질 수 있고 가족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례문화가 지나치게 편리함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례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위기에서 가족주의 가치관 ·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상관관계와 제례의식과 제례행례의 전 과정 즉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등에 대한 행례와 만족에 관한 제례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제례행례 시 모든 절차나 제사음식 준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주의 ·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례 중에서도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기제사를 중심으로 제례의식과 제례절차를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및 제사음식 등의 5개의 범주로 한정하여 그 각각에 대한 행례 및 만족에 대한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가치관 · 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례 및 만족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가족주의와 제례의식 및 실제 제례행례와 행례 후의 만족을 연계 분석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며, 어떤 변인이 제례만족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에 들어섰다. 10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3만1천1백8십 건으로 72.3%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이룬 가족이 전체 한국 가족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동아일보, 2008. 1. 2).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전통생활문화인 제례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기혼남녀들이 제례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제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제례가 가족공동체와 사회통합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제례의 긍정적인 기능을 지속시키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례의 미래지향적 대안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제례의 기원과 의의

제례의 기원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운다. 제례는 조상숭배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행위이며, 조상숭배와 종교와 제례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타일러(Tylor, E.B.)에 의하면,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원시적인 사고 때문에 시체에 대한 제의가 발생되고, 스미스(Smith)는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족원의 상실에서 오는 아쉬움의 심리에서, 프레이저(Frazer)는 스미스의 애정관에 반하여 죽은 자에 대한 공포가 조상숭배를 낳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국내의 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유홍렬(1982)은 『조선 사묘 발생에 대한 일고찰』에서 주장하기를, 그를 양육하여 준 부모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정에서 조상숭배의 사상이 싹트고, 고려 말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가묘(家廟)²⁾가 발생하고 사우(祠宇)³⁾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김두현(1986)은 『한국가족제도연구』에서 조상에 대한 신앙심은 죽은 자에 대한 애경(愛敬)과 공포감(恐怖感)에서 비롯되고 이것이 점점 발달하여 도덕적 의미를 가지게 되며 제사는 살아 있을 당시의 효도의 연장이라 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비록 생물학적인 신체는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세계에 있으면서 산 자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죽은 조상과 산 자손은 지속적으로

2) 한 집안의 사당(祠堂).

3) 제사 지내는 집

상호작용을 하며, 때로는 조상이 자손에게 덕과 해를 줄 수도 있다는 믿음에서 조상숭배와 제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원래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를 제례라고 하였다. ‘제(祭)’자는 금문(金文)에는 땅귀신 ‘기(示)’자를 덧붙여 신에게 희생(犧牲)을 바치는 회의문자이고, 갑골문에 피가 똑똑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문자로서 천지(天地)·일월성신(日月星辰)을 비롯하여 풍사(風師)·우사(雨師)·사직·산악·강천(江川), 그리고 선왕(先王)·선조·선사(先師)를 대상으로 대체로 자연신이나 조상신에게 희생을 바치고 인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것이 제사의 본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 땅 등의 힘을 빌어 국가의 안녕과 왕권의 위상을 나타내었고, 조상을 추모함으로써 자손의 번영과 친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였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10).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제사의 기원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사자에 대한 애정과 공포감·조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망 등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숭배 사상에서 종교와 제례의식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제례의식은 고대로부터 영혼불멸관념·영원회귀관념·재생관념·자연숭배관념 등 원시종교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이러한 제례의식이 시대를 따라오면서 한 가닥은 순수 종교로 발전하고 한 가닥은 조상숭배로 발전하여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김용덕, 1994 : 284-285).

그러면 제사를 지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원래 고대에 제사를 지낸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예기(禮記)』⁴⁾에 보면 “제례에는 기(祈)가 있고, 보(報)가 있고, 유피(由避)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기는 복을 기원하는

4) 중국 유가 5경(五經) 중의 하나.

것이요, 보는 복 받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요, 유피는 화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례의 본래 목적은 첫째 기복, 둘째 보답, 셋째 피화(避禍)라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면 기복, 피화하려는 욕구와 은혜에 대해 보답(報答)·보복(報復)하려는 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국가적인 제례행사인 반면 후자는 국민의 제례이다. 즉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제례는 아무 것도 바라는 것 없이 입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일 뿐이다(조준하, 2000 : 23). 그러나 제례는 시대적 이념과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형식이 달라졌다.

그러면 제사의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 유교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제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가장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편으로 널리 평가받는 『예기』에 보면 “대체로 사람을 다스리는 도(道)는 예(禮)보다 급한 것이 없고, 예에는 오경(五經)이 있는데,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대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 가운데(中)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예를 받드나니 현명한 사람이야 능히 제사의 의(義)를 다한다. 현명한 이가 제사를 올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나니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다. 복이란 비(備)의 뜻이니, 비(備)란 백 가지 모든 것이 순하게 됨을 이르는 것이다”⁵⁾라 하였다.

또한 선왕이 제천의식을 중시한 것은 제천을 통하여 천하는 하나의 가정이고, 천하의 모든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천하통일(天下一體)의식을 고취하여, 전 인류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선양하여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한 교화의 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통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며, 일가친척 간에

5) 『禮記』第 25 「祭通」, ‘凡治人之道, 莫急於禮 禮有五經 莫重於祭 夫祭者 非物 自外至者也, 自中出, 生於心者也. 心怵而奉之以禮 是故 唯賢者 能盡祭之義’ 賢者之祭也 必受其福, 非世所謂福也. 福者 備也 備者 百順之名也. 無所不順者 之謂備.

화목하여 가족애·종족애·인류애로 확대하게 하였으니, 제사의 의의는 매우 숭고하다고 하겠다. 제례가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아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크게는 모든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고, 작게는 효도의 연장선에서 일가의 화친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제례의 본래 뜻인 것이다.

2. 제례의 역사적 변천

1) 제례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 제례의 시원(始原)은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찾기도 한다. ‘태백산 신단수 아래의 신시(神市)’를 천신이 정사를 보는 도읍인 동시에, 천신에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부여(夫餘)에서는 영고(迎鼓)라 하여 12월에 하늘에 제사하였고, 고구려에서도 동맹(東盟)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냈다. 또한 동예(東濊)에서도 무천(舞天)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낸 기록이 있으며, 마한(馬韓) 역시 소도(蘇塗)라는 신역(神域)이 있어 솟대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천군(天君)이 신에게 제사지냈다.

신라에서는 남해왕(南解王)때에 혁거세묘(赫居世廟)를 세우고, 혜공왕(惠恭王)때에 5묘(五廟)의 제도를 정했으며 산천에도 제사를 지냈다. 백제는 온조왕 원년(B.C 18년)에 그의 아버지인 동명성왕의 사당을 세우고 제향을 지낸 동명묘(東明廟)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본떠 원구(圓丘)⁶⁾·방택(方澤)⁷⁾·사직(社稷)⁸⁾·종묘(宗廟)⁹⁾·능침(陵寢)¹⁰⁾·선농단(先農壇)¹¹⁾·선잠단(先蠶壇)¹²⁾·문선왕

6) 천신을 제사지내는 원형의 단

7) 지기를 제사지내는 사각형의 단

8) 고대 중국에서, 새로 나라를 세울 때 천자나 제후가 제사를 지내던 토지신과 곡식신.

묘(文宣王廟:문묘)¹³ · 마조단(馬祖壇)¹⁴ · 사한단(司寒壇)¹⁵ 등을 설치하고 예절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명산 · 대천¹⁶ · 우사(雨師)¹⁷ · 운사(雲師)¹⁸ · 뇌사(雷師)¹⁹ 등에도 제사를 지냈다. 『고려사』에도 원구단(圓丘壇)에 나아가 제천의례(祭天儀禮)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11번이나 보인다.

조선조는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순수한 유교적 의례를 시행한 왕조이다. 유교적 제례에 의한 조상숭배 정신이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국가적 기반이 되었고 치국(治國)의 근본이념 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원구와 방택만을 제외하고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의 「오례의(五禮儀)」와 성종 때 편찬된 『국조오례의』는 가장 잘 정비된 형태의 「오례의」이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조선은 명실 공히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세종의 「오례의」에서부터는 천자의 오례의가 아니라 제후국의 오례의를 택하였으므로 원구단의 제천 행사나 태묘(太廟)²⁰의 7묘제 등 천자의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조 10년(1464년)의 제천 행사 이후 정례적인 국가례(國家禮)로서 원구단의 제천의례는 중단되었다.

광무 원년(元年 : 1897년) 9월 17일(양력 10월 12일), 고종은 백관을 거느리

9) 제후국(諸侯國)의 선조들을 모신 사당

10) 능(陵)

11) 고려·조선시대에,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풍년이 들기를 빌던 제단.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다.

12) 잠신인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던 단. 조선 정종 2년(1400)에 서울 동대문 밖에 건립하였다.

13) 공자의 사당

14) 마신(馬神)을 수호하는 방성(房星)을 제사 지내던 단.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는데, 조선 고종 31년에 없었다.

15) 氷神을 모신 단

16) 나라에서 신성시하여 봄가을이나 가물 때에 제사를 지내던 큰 내.

17) 비를 맡은 신.

18)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거느리고 온, 구름을 맡고 있는 신.

19) 천둥을 맡은 신

20) 황제국(皇帝國)의 선조들을 모신 사당

고 환구단에 나가 친히 하늘에 고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때 사직을 높여 태사(太社)·태직(太稷)²¹⁾이라고 위패를 고치고, 종묘(宗廟)²²⁾를 태묘(太廟)라고 높였다. 그러나 제천행사는 몇 해 가지 못하고 한일합방으로 끝나고 만다. 해방 이후에는 서양문화의 지배로 국가적인 제례는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국민들의 제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조준하, 2000 : 19-20).

사가(私家)의 제례는 『주자가례』, 『사례편람(四禮便覽)』과 같은 제도화된 예서에 의해 고려 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거례하는 집안 제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상중에 지내는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가 있다. 그리고 상을 마친 다음에 일상 중에 지내는 제사는 『주자가례』에 따르면 고조·증조·조·고 등 선대의 고·비에 대하여 사계절에 거례하는 사시제(四時祭), 종족의 시조에 대해 거행하는 초조제(初祖祭:시조제), 초조 이하 고조 이상의 선조에게 거례하는 선조제(先祖祭), 아버지에 대해 거례하는 네제(禰祭), 선조의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일제(忌日祭), 묘소에서 거례하는 묘제(墓祭) 등이 그것이다(유권중, 2005 : 51).

이를 종합 해보면 위로는 역대 임금의 조상을 모시는 종묘를 비롯하여 성인을 모시는 문묘·향교, 충신·열사를 모시는 서원은 물론, 사가(私家)에는 조상을 모시는 가묘(家廟: 사당)를 설치하고, 차례(茶禮)라는 각 절사(節祀)를 비롯하여 기제사(忌祭祀)·생일제·묘제(墓祭) 등의 조상숭배 의례를 지켰다. 성종대에는 가묘를 마련하지 않은 관직자들을 규찰하기도 하였다(김혜선·박혜인·홍형욱, 1993 : 250). 그러나 오늘날 일반가정에서는 설과 추석에 지내는 속절제사인 차례,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묘제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행에서는 이에 더하여 불천위제

21)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후직(后稷)에게 제사 지내던 곳

22) 제후국(諸侯國)의 선조들을 모신 사당

(不遷位祭), 생일제(生日祭) 등 종류가 더 다양하다

기일제(忌日祭) 또는 기제사(忌祭祀)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사로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 씩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그러나 공자시대에는 기일제사란 것이 없었다. 공자시대로부터 1약 1천7백여 년이 지난 송나라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기일에 제사를 행하는 관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사시제보다 기제사를 더 중시하고 제물도 풍성하게 마련하였다. 그 이유는 『주자가례』에서 사시제를 중요시하여 다른 모든 제사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사시제를 중시 하였다. 그러나 사당이 없어지면서 사당에서 지내던 사시제를 지낼 수가 없게 되자 시속(時俗)에 따라 그날 돌아가신 조상에게 지내는 기제사를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기일제를 지내는 대상은 고조(高祖)까지이다. 기일이란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고조까지의 조상을 포함하는 친속(親屬)이 사망한 날을 뜻한다. 이 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기일이라고 하며, 휘일(諱日)이라고도 부른다. 기(忌)자는 본래 금한다는 뜻으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일에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으며, 휘(諱)자는 본래 피한다는 뜻으로서 기(忌)자와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고례에는 기일(忌日)은 피눈물을 머금을 만큼 슬퍼서 다른 일에 미칠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술을 마시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한 음악을 듣지 않으며, 검은 두건에 흰 옷, 흰 띠를 두르고, 저녁에는 사랑채에서 잠을 잔다.

기제사는 오늘날의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고 있다. 기제사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 제사지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왔다. 제사시간은 예서(禮書)에 “다만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하였는데, 즉 돌아가신 날의 궐명(厥明²³)에 시작하여 질명(質明)²⁴에 끝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조상에 대한 지극한 공경의 상징으로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첫새벽에 지냈다(김득중, 2006 : 472). 그래서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으나 요즘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아무 때나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또한 제사대상은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비속에 한해서만 기제를 지낸다. 제사는 제주(祭主)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남·여 자손 구별 없이 고인의 직계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이 참석하기도 한다.

2) 기제사 행례의 변천

고려 말 조선 초에 중국의 『주자가례』를 받아들여 세종·성종 조에 『국조오례의』나 『경국대전』등을 편찬하면서 예법이 정리되고, 중종·명종 조에는 예법이 거의 사회적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실상보다 추상에 기울어지는 시대사조는 마침내 예론 그 자체에 빠져서 당쟁으로 비화하는 폐단을 낳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가문마다 고유한 전통 풍속을 고수하려는 생각에서 당파에 따라 제례의 순서와 방식을 달리하는 예법을 전하였다. 지금도 지방 혹은 당파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음식의 진열과 제례절차가 조금씩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일부 존재한다. 그

23) 먼동이 틀 때

24) 밝아올 때

러나 일반 서민대중은 당과에 관계없이 예식서를 갖추게 되는데 『사례편람』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었다(김용덕, 1994 : 296). 제례가 유교사회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실제 민간층에서 이행될 때에는 다양하게 관행되었다. 즉 『사례편람』에서 제시된 사례는 주자의 『가례』를 행하기 편하도록 전개하였으나, 실제로 관행되었던 제례행례는 고유 관습대로 행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기호학과 학맥을 이어온 사계 김장생이 편찬한 『의례문해(疑禮問解)』²⁵⁾에는 가례의 변례(變禮)에 대한 542건의 문답을 수록하고, 인용된 134건의 학설 중 59%인 79건이 영남학파의 학설로서, 반대학파의 학설을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절의 통일 토대를 이루었다(한기범, 1991). 이와 같은 예절의 통일을 토대로 가가례설이 존립의 여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통예서(正統禮書)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언급하지 않은 분야를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게 시행하던 것을 가가례라고 주장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나 주장 없이 자칫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거나(김득중, 2006),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려 했는가에 따라 조금씩 행례방식이 달랐던 것이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3). 아울러 오늘날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제례행례와 제도에 점점 더 많은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통사회에서의 전통관습을 기반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제례행례를 기제사 중심으로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조선 중기의 학자 김장생(金長生:1548~1631)이 4권 4책. 장서각도서. 편자가 평소에 문인 또는 친우들과 예에 관하여 문답한 것과 전대(前代)의 예서(禮書)를 널리 참작하여 여러 사람의 예론을 분류 편찬한 것이다.

(1) 제사대상

제사대상을 봉사대상과 봉사대수 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봉사대상

봉사대상은 제례행위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통사회에서 광의(廣義)의 제사 개념으로 죽은 조상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대상의 신을 상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제사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보편적이던 봉사대상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현재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 전기 처가살이가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던 상황에서는, 서로 피를 주고받았다는 혈족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재산상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들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균분상속이 행해졌고, 이에 따라 제사에 있어서도 아들·딸 구분 없이 동등한 의무를 지녀 부계·직계 조상뿐만 아니라 외가, 처부모까지 제사를 거행하는 윤희봉사였다(한국고문서학회, 2000 : 72).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장자 우선의 종법제적인 제사원리로 기제사의 봉사 대상은 각 집의 부계·직계 4대조에 해당하는 조상들이었다(김혜선·박혜인·홍형욱, 2006 : 259). 그러나 최근 조상제사가 크게 변하고 있다. 기제사가 점차 사라지고 설과 추석의 절사(節祀)만을 지내거나, 직계 4대조까지의 봉사가 2대인 조부모까지의 봉사가나 1대 부모까지의 봉사로 축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또한 아들·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윤희봉사나 무남독녀인 경우 친정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② 봉사대수

봉사대수 범위는 고려시대에는 3품관까지는 증조까지 3대, 6품(品) 이상의

벼슬아치는 할아버지까지 2대, 7품 이하의 벼슬아치와 평민은 부모만 가묘(家廟)²⁶⁾를 세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 때 까지는 국법으로 계급에 따라 제례의식을 달리했다. 퇴계나 율곡 선생도 위로 3대조까지만 제사를 모시는 3대 봉사만을 하였으나, 율곡 선생의 제자인 사계 김장생 이후로는 만민 평등한 『주자가례』에 근거를 두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 전기의 조상을 모시는 대수에 대한 차등은 조선 후기로 이행하면서 일반 사서인(士庶人)들도 4대 봉사를 하여야 주변에서 반듯한 가문(家門)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사)한국민속박물관회, 2007 : 206). 이렇게 현실적으로 서민들도 4대까지 제사를 지냈으나 법규상으로는 금하던 4대 봉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파기되어 천민들까지 4대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엄연히 따지면 1894년 갑오경장 때부터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분에 의한 봉사조상(奉祀祖上)의 차별이 근세까지 전해지다가 1894년에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모두가 앞을 다투어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김득중, 2006 : 441).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의례준칙」이 제정되고 1969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2대 봉사를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에서 전통적인 관행으로 4대 봉사 또는 3대 봉사를 하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130). 그러나 최근 조상제사가 크게 변하고 있다. 20여 년 전 만해도 봉사범위는 4대 봉사이었으나(홍현주, 1986) 그 후 3대 봉사(박수정, 1989; 정복미 외, 2004)가 2대 봉사 (김인옥, 1997)로 축소되었는데,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도 2대 봉사(김인옥, 1997; 이삼식, 2000; 두경자, 2001)를 장려하고 있다. 향후 희망 제례 범위에 대한 연구결과(이삼식 외, 2000)에 의하면 60대 이상은 아직도 3대 봉사, 20~30대는 2대 봉사를 가장

26) 한 집안의 사당

많이 희망하였고, 종교는 불교·천주교는 2-3대, 기독교는 1-2대를 주로 선호했다.

(2) 제사절차

제사절차에서 제사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통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당이다. 이 만남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형식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제례이다(김혜선·박혜인·홍형욱, 2006 : 247).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의 제사 내용이 사대부의 실천윤리로 수용되면서 각 지방 또는 문중에 따라 행례 방식이 서로 다른 가가례(家家禮)가 형성되었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134). 그 이유는 『주자가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주자가례』의 제사방식이 중국의 생활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해석하거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에 제사절차를 제사형식, 제삿날짜, 제사시간, 기제사절차, 제사 지내는 방법, 신위 모시는 방법, 지방과 축문 쓰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사형식

제사형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이래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례를 행하여 왔다. 제례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의례절차와 형식이다. 조선시대부터는 국가적인 제례나 민간의 제례나 모두 유교식 제사방식으로 행하였다. 이 때 전통적이거나 불교적인 분위기는 점차 배제되어가고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례 원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무속 신앙적인 제사와 불교·천주교 등 종교식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의 제례의식(祭禮

儀式)의 차이와 집안에 따라 저마다 예법이 달리하여 변형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제례의식은 『의례(儀禮)』·『주례(周禮)』·『예기(禮記)』의 삼례(三禮)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퇴계 이황(退溪 李滉), 율곡 이이(栗谷 李珥),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한강 정구(寒江 鄭述),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도암 이재(陶菴 李穡) 등이 계승하여 온 제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조준하, 2000 : 18).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종교계에서는 불교는 불교식 전통에 따라 절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거행하기도 하고, 조선 말기 서양의 문화와 종교가 유입되면서 전통 문화와의 마찰을 빚는 가운데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제사 대신에 추도식을 거행하는 가정이 늘어났고, 천주교에서는 조상숭모는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라는 전통 관습에 부닥쳐 뒤늦게 전통을 의식하고 천주교 양식의 추도식을 거행하되, 1944년부터 제사를 지내는 문제를 검토하여 따로 제사의례 절차를 제정하고 유교식 제사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여 신도에게 전통문화와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전통문화로서 제사의례를 지속하는 집안이 있는 가하면 반대로 다른 종교의 의례를 거례하거나 불교식 의례가 가미된 변형적 의례로 지내는 집안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따라야 옳은가 하는 것은 각 집안마다 주축으로 삼는 문화와 종교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박원재, 2005 : 35).

② 제사날짜

제사날짜는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첫새벽에 지내게 된다. 예서에 보면 돌아가신 날의 ‘궐명(厥明)²⁷⁾에 시작해 질명(質明)²⁸⁾에 끝낸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27) 먼동이 틀 때

28) 밝아올 때

라는 그 날이 되면 만사 제쳐 놓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의 시작인 자시(子時)에 지낸다. 이렇게 첫새벽에 다른 일보다 제사를 먼저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지극한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저녁부터 모여 제사 준비를 하였다가 자정이 지난 이후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기일을 돌아가신 전 날로 잘못 알기도 한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날을 입제일²⁹⁾이라 하고, 돌아가신 날을 파제일³⁰⁾이라 한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130). 이렇게 제사날짜는 전통적으로 사망 전 날(이길표, 1982; 박수정, 1989; 김인옥, 1997)이나 사망 당일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일부이지만 종가에서도 제사날짜를 사망 전 후 공휴일(두경자, 2001)이나 국경일, 일반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일이 변경되고 있는 이유는 모처럼 가족들의 대화의 장이 되는 소중한 가족모임의 자리가 바로 제레이므로, 자손들이 기일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연자, 2006). 대구시에서 이름난 반촌이면서 동성촌락인 옷골의 동성원들도 제사날짜를 공휴일로 정하여 보다 많은 문중 성원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있으며(이기태, 1999 : 158), 전남 광양시 칠성읍 칠성리에 있는 나주 나씨 송도공파 나천정 종가에서도 제삿날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인 5월 8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로 정하여 일 년에 두 번 합동으로 모시고 있다(이연자, 2007 : 61). 또한 개신교 예수장로회에서는 고인이 별세한 날이나 가족의 합의하에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③ 제사시간

제사시간은 손진태의 1929년에 채록한 민속(民俗)·신앙(信仰)에 관한 설화(說話) 중 제사시각을 보면 “늦어도 계명(鷄鳴)³¹⁾ 전까지는 지내야 한다.”고

29) 돌아가시기 전 날

30) 별세한 날

하였다(강재철, 2004 : 128). 한편 조선 선조 때의 이름난 문신 미암 유희춘(眉巖 柳希春·1513~1577)이 쓴 『미암일기』를 보면 “제물이 늦게 갖추어진 탓에 진시(오전 7~9시)에야 겨우 제사를 끝냈다”고 하였으나³²⁾(정창권, 2003 : 84) 이는 제물이 늦게 갖추어져 날이 밝아서 까지 제사를 지냈던 것 같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으로 첫새벽에 지내야 하는 것이다(김득중, 2006 : 472). 이렇게 첫새벽에 다른 일 보다 제사를 먼저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지극한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조계종의 『통일법요집』과 천주교에서는 제사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다.

현대에는 돌아가신 전 날 자정 이후에 많이 지내기도 하지만, 핵가족화로 직장출근,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후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날 저녁(박수정, 1989; 김인옥, 1997; 이삼식 외, 2000)에 지내기도 한다. 이삼식 외(2000)의 남·여의 희망 제례시간에 대한 연구결과는 ‘저녁 먹고 밤 시간’ 60%, ‘저녁식사 전후’ 24%, ‘편한 시간’ 11.3%로 나타났다.

④ 기제사절차

기제사절차는 시대적 이념과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형식이 다양하게 변해 왔다. 『주자가례』, 『국조오례의』, 『사례편람』의 기제사절차를 정리하면 참신, 강신, 진찬,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사신, 납주, 철찬이다. 그런데 이를 수용하였던 조선전기의 『국조오례의』는 『주자가례』와 기제사절차는 같으나,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순서는 『주자가

31) 첫닭이 우는 시각

32) 1568. 5. 14. 파루(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 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 三點 : 오전3-5시 사이]에 쳤다)를 치기 전에 일어나 머리 빗고 세수하고 관 쓰고 띠 띠고 지방과 축문을 쓰고 먼동이 틀 무렵에 조부와 부친의 양위 등 4대의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이 펍 갖추어져 흐뭇했다.

례』를 따랐지만, 행례의 내용은 국가제사에 준하는 향사적(享祀的)³³⁾성격을 보여준다. 즉 헌관의 헌작 후 재배가 없으며, 진찬에 삼시정저를 하면서, 유식 및 합문과 계문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사례편람』은 거의 『주자가례』의 기제사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례절차를 포함시켰다. 즉, 강신분향 후 재배, 초헌의 진적(進炙)³⁴⁾후 계반개(啓飯蓋)³⁵⁾, 종헌의 재배 후 불철주(不徹酒)³⁶⁾ 및 불철찬(不徹饌)³⁷⁾, 계문의 철갱(徹羹)³⁸⁾, 낙시저(落匙箸)³⁹⁾와 합반개(闔飯蓋)⁴⁰⁾, 사신재배 후의 분축문(焚祝文)⁴¹⁾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주자가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례편람』을 편찬할 당시의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명시한 제례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135).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예서에 의한 제사절차가 많이 생략되어 거례되고 있다. 김인옥(1997)의 현행 제례실태 조사에 의하면 제사 지내는 절차에 있어서는 전체 636명 중 50%이상이 행하고 있는 절차가 초헌(51.9%)과 유식(53.3%), 진다(56.0%)이었으며, 40%이상이 행하는 절차는 강신(44.3%), 계문(43.4%), 사신(48.3%), 납주분축(46.2%)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차 중 주부가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은 7.5%만 행하고 있어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대한 조계종에서는 불교식 의례절차에 전통 유교식 절차를 수용하여 제시하였고, 천주교에서 제안하는 시안의 기제사절차는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33) 제사

34) 적(炙)을 올린다.

35) 밥뚜껑을 연다.

36) 술을 내리지 않는다.

37)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 음식을 거두어 치우지 않는다.

38) 송늬를 퇴한다.

39)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래로 내려놓는다.

40) 밥뚜껑을 닫는다.

41) 축문을 태운다.

성호를 그르면서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그 구조는 의식절차의 진행순서 면에서 유교식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기도와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제주의 말씀시간이 있다. 그러나 개신교 예수교장로회의 의식절차는 개신교 종교 교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 전통적 유교식 의식절차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기도, 찬송, 성서봉독 같은 행위절차를 따르고 있다(이삼식 외, 2000).

⑤ 제사 지내는 방법

제사 지내는 방법에서 기제사는 망인(亡人)의 기일(忌日) 즉, 망인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사는 망인이 혼자 잡숫는 제사이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부부 양위(夫婦 兩位)를 합사(合祀)하는 곳도 있다.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에는 “인정상 두 분을 모셔도 무방하다” 하여, 대부분 기일에 드는 조상의 배위(配位)까지도 함께 모시는데, 이를 합사(合祀)라고 한다. 합사와 합설에 관해서는 『국조오례의』에 예시되어 있는데, 합사는 각 상에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각설(各設)과 한 상에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지내는 합설(合設)이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131)

한편,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에서는 기일에 드는 한 신위만을 모시는데, 이를 단설(單設)이라 한다. 퇴계 이황은 “기일에 합설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일찍부터 합설을 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종자(宗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 내가 죽은 이후부터는 세속의 풍속(합사)을 따르지 말라”고 하여, 퇴계종가에서는 단설로 제사를 지낸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131). 도암 이재는 『사례편람』에서 “기일은 상례가 끝난 뒤이니, 그 부모가 죽은 날을 당하여 마땅히 이날에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여 그 신위에게만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른 신위에게 덧붙여 미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배위(配位)에게 야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제사 지낼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이다”고 하여 『주자가례』에 따라 단설로 제사 지낼 것을 주장하였다.

고례에도 이와 같이 단설로 할 것이냐 합설로 할 것이냐 의견이 분분 했지만, 통상 부부간에는 기일에 합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세대 간에도 합설을 하여 하루 날을 잡아서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날 합동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종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선산 유씨 문절공 유희춘 종가에서는 기제사를 식목일 날인 양력 4월 5일에 유희춘 선생의 불천위제사와 종손의 4대조 제사를 합동으로 하여 모시고 있다. 또한 경남 남해 덕천 마을의 밀양 박씨 하천종가에서도 가장 가까운 선친의 제삿날인 7월 17일이면 여러 선조를 함께 모시고 밤 12시에 기제사를 지낸다.

⑥ 신위 모시는 방법

신위 모시는 방법으로 모든 제사에는 향사 대상자를 상징하는 신위(神位)를 설치하게 된다. 신위에는 예로부터 시동(尸童)⁴²⁾, 신주⁴³⁾, 위패⁴⁴⁾, 사판⁴⁵⁾, 소장, 동상, 초상화, 지방 등이 사용되었다. 제사 중에는 이들 신위에 신이 깃들

42) 제사를 지낼 때 신위(神位) 대신으로 앉히던 어린아이

43) 신주(神主)는 조상의 신령(神靈)을 나타내는 신체(身體)를 말한다. 신체로는 사판(祠版), 위패(位牌), 패자(牌子), 목주(木主), 우주(虞主), 연주(練主), 지방(紙榜), 지표(紙標) 등인데, 오늘날 ‘신주’라 하면, 보통 종묘(宗廟)나 가묘(家廟)에 모셔진 목주를 말한다.

44) 사자는 서쪽을 상으로 한다[사자 이서위상(死者 以西爲上)]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사자는 어두운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해지는 서쪽을 상석으로 해서 서쪽부터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순서로 모시는 것이다. 주자의 내외분인 남자 조상과 여자 조상의 위패는 따로 지만 한 독(櫛)에 모시는데, 서쪽에 남자 조상 동쪽에 여자 조상을 모신다. 『가례』에 보면 “사마광이 말하기를 ‘서쪽을 위로 여기는 것은 신령한 도에서는 오른쪽을 숭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라 되어 있다(강재철, 2004 : 117).

45) 위판이라고도 함

이는 것으로, 즉 의빙(依憑)⁴⁶⁾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이렇듯 신주를 비롯하여 지방, 사진 등은 신체(神體)로 조상을 상징한다. 따라서 “혹 홍수나 화재가 나가거나 도적이 들면 먼저 사당을 구하고 신주·유서를 옮긴 다음에 제기(祭器)에 미치며, 그런 다음에 가재(家財)에 미친다.”⁴⁷⁾고 주자의 『가례』에 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는 자손이 여럿이면 조상의 신주를 자손마다 따로 모시는 풍속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자(손)만 직계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의례를 주관하는 가통(家統)이 철저하므로 같은 조상의 위패를 여러 곳에서 각기 모시지 않는다(김득중, 2006 : 425). 현대에는 집안에 따라서 신주나 지방(김인옥, 1997; 안숙자, 2001)에 대한 유무 및 인식 여하에 따라 사진을 놓고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가 기독교이거나 천주교일 경우에는 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등을 놓고 지낸다.

⑦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에서 지방은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조상의 표상이다. 그래서 ‘신주’라 하지 않고 신령이 의지할 자리라 하여 ‘신위(神位)’라고 쓴다. 축(祝)이란 귀신에게 고하는 글을 통칭하여 말한다. 조상을 받드는 제사에는 전통적으로 반드시 축문을 읽었다. 축문의 내용은 색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 돌아가신 날을 맞아 추모하는 정이 지극하여 간소하게 음식을 마련하였으니 많이 드십시오.”라고 음식을 권하는 추모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방은 고례에 의한 한문으로 쓰고 있는데,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한글로 지방을 쓴다”고 되어 있다. 이는 틀에 갖추어진 한문식 지방은 물론이고

46) 어떤 힘을 빌려 의지함

한문식 축문(이길표, 1982; 박수정, 1989; 구선옥, 1992; 안숙자·박경란, 2001)은 날짜에 맞춰 간지를 찾아야 하고 역시 한지에 붓으로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보니 한글세대가 많아진 요즘, 제사에 참여한 자손들이 그 뜻을 모르고 격식에만 매이는 것 같아 현대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보고 쉽게 해득할 수 있는 한글지방과 한글축문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신위대신 초상화나 사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지방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축문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교가 기독교이거나 천주교일 경우에는 추도문을 읽거나 기도를 하고 지낸다.

(3) 제사용품

제사용품은 제례행례에 사용되는 용품으로 제사그릇과 제사복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사그릇

제사그릇에 있어서는 『예기』에 “군자는 비록 가난해도 제기를 팔지 아니하고, 제기가 낡으면 물어버린다”고 하여 제기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준비해야 할 제기로서 잔반(盞盤)⁴⁸⁾, 현주병(玄酒瓶)⁴⁹⁾, 초접(醋楪)⁵⁰⁾, 시저(匙箸)⁵¹⁾, 시저접(匙箸楪)⁵²⁾, 과기(果器)⁵³⁾, 포기(脯器)⁵⁴⁾, 해기(醢器)⁵⁵⁾, 소채기(蔬菜器)⁵⁶⁾, 장기(醬器)⁵⁷⁾, 반기(飯器)⁵⁸⁾, 갱기(羹器)⁵⁹⁾, 어

48) 받침대에 받친 술잔

49) 정화수를 담아놓는 병

50) 식초를 담아 놓은 종지

51) 숟가락과 젓가락

52) 숟가락과 젓가락 담는 접시

53) 과일 담는 접시

54) 포 담는 접시

55) 생선젓(조기젓)담는 접시

육기(魚肉器)⁶⁰, 병기(餅器)⁶¹, 면기(麪器)⁶², 적기(炙器)⁶³, 철주기(徹酒器)⁶⁴, 철적기(徹炙器)⁶⁵ 등이 있다. 그런데 이는 거기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붙인 이름들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그릇에 대해서는 대접(大楮), 종자(鐘子), 완(椀), 접(楪) 등으로 설명함으로써 제사에 평상시의 그릇을 써도 좋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자가례』에도 “제기인 보(簋), 궤(饋), 변(邊), 두(豆), 정(鼎), 조(俎), 뇌(壘), 선 따위가 어찌 사샷집에 있겠는가? 다만 평일에 음식을 담던 그릇을 닦고 삼가 깨끗하게 하여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제기를 갖추는 일보다는 정성과 공경의 마음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순남숙, 2005 : 231).

② 제사복식

제사복식은 『예기』에 “군자는 비록 추울지라도 제복을 입지 않으며, 제복이 떨어지면 태운다”고 하여 제복의 귀중함을 강조 하였다. 조선시대의 제사복식은 초기 예서인 『격몽요결』과 『가례집람』의 경우에는 주자의 가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격몽요결』의 경우 제사의 종류 및 남녀와 관직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제사복식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가례집람』에서는 기제사의 경우만을 제시하였는데, 남자의 제사복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된 반면에 여자의 경우

-
- 56) 나물 담는 접시
 - 57) 장을 담는 접시
 - 58) 밥그릇(모두 두께가 있어야 한다.)
 - 59) 국그릇
 - 60) 생선과 고기 담는 그릇
 - 61) 떡을 담는 접시
 - 62) 국수전더기 담는 접시
 - 63) 구이 담는 그릇
 - 64) 술 퇴하는 그릇[퇴주기]
 - 65) 구이 퇴하는 그릇

는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례편람』 66)에서 종합되어, 이후의 대부분의 예서에서는 『사례편람』의 예를 따르고 있다. 남자의 경우 기제사를 중심으로 제사의 대상에 따라 조부모(祖父母)이상의 경우는 검푸른 베적삼·베각대를 착용하였고, 사당참례와 사시제, 묘제의 경우는 심의(深衣)를 착용하였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제사의 대상이나 종류에 따른 제례복식의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배자(背子)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해방 이후에는 서구문물의 급속한 유입이 가져온 전통문화의 해체 움직임이 제례의식과 제례복식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유송옥·강선정, 2002 : 14-15) 남자는 자기 직업·직급·신분에 정해진 제복(制服)이 있으면 그것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한복정장에 도포(道袍)를 입고 유건을 쓴다. 만일 도포가 없으면 한복정장이나 양복정장을 입는다. 반면 여자는 옥(玉)색 한복정장인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그것이 없으면 다른 한복정장이나 양복정장을 입는다. 또한 남녀 모두 통상복을 입을 때라도 되도록 정장이어야 하며, 현란한 색깔이나 액세서리는 피하고 입는다(김득중, 2006 : 455). 그러나 불교나 개신교의 경우는 복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천주교에서는 제삿날에는 품위 있는 옷으로 갖추어 입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참례자 대부분이 제복에 관련된 문항에서는 부정적 반응(김인옥, 1997)을 보였으며, 정장을 입거나 평상복(이길표, 1982; 구선옥, 1992; 박수정, 1988; 이선희, 1992; 이삼식, 2000)을 입는 것을 선호해 간편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66) 8권 4책. 1844년(헌종 10)에 이광정(李光正)이 간행. 그 후 1900년(광무 4)에 황필수(黃泌秀)·지송옥(池松旭)이 증보·증간하여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이라 하였다. 이재의 예학(禮學)에 관한 깊은 조예를 토대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엮었다. 따라서 이 책이 간행되어 보급된 후 모든 예가 이 책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다.

(4) 제사행위자

제례 행위자는 크게 주관자와 참례자로 구분된다. 주관자는 일종의 종교적 사제(司祭)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제사주관자

유교식 제례에서는 제주(祭主)라 하여 가족 구성원 중 장남이 제사 주관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사주관자는 조선조 예학자 사계(沙溪)의 『가례집람』에서도 “우리 풍속에서 기제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번갈아 지내는데 이와 같은 제사는 행할 수 없나니.....” 하는 내용으로 보아 자녀의 윤회제사는 생소한 형식이 아니고 조선조에 이미 성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의 종법제도에 의해 혈통의 계승을 상징하는 조상제사를 장남이 독점하게 된 것이다(김미영, 2005 : 170). 다른 형제나 자손들은 제사에 참석할 뿐 주재자는 되지 못하고 결국 제례의식은 전적으로 장자(長子)의 주관하에 치르는 행사가 되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아들과 만며느리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이러한 제사방식을 계승해야 할 ‘전통’이라고 믿고(이길표, 1982; 박순천, 1982; 박수정, 1989; 김인옥1997; 이삼식 외, 2000; 정복미, 2004) 실천하고 있다.

② 제사참례자

제사참례자는 제의대상의 남녀자손과 배우자 또는 제의대상의 유덕(遺德)을 기리는 사람은 누구든 될 수 있다(김득중, 2006 : 455). 그러나 제사의 모든 행례를 여성이 주관하며 여성들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제사를 남성들만의 의례로 여겨 제례의 절차나 제례 후의 음복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었다. 조상제사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주자가례』에

의하면 목욕재계로 시작되는 재계(齋戒)부터 제례를 마친 후 신주를 독(瀆)에 넣는 납주의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주체적인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사실, 부계혈통을 이어 내려가는 후계자(아들)의 확보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듯이 이를 상징하는 조상제사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김미영, 2005 : 177). 한편, 천주교의 추도미사는 참례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고 개신교의 추모제는 가족들과 일가친지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윤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의례로 봄으로써, 추모제는 온 가족이 참여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5) 제사음식(祭祀飲食)

제사음식은 크게 제사음식 준비 방법, 제사음식 종류, 상 차리는 방법, 제사음식 비용 부담 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사음식 준비 방법

제사음식 준비 방법에 있어서는 큰 집은 응당 재물을 준비하는 데 앞장선다. 그러나 비록 큰집에서 제사를 모신다고 하더라도, 작은집 사람들을 포함하여 남자든 여자든 모두 재물을 장만하고 제사음식을 만들고 제상을 차리는 데 동참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배영동, 2005 : 71). 이 때 다른 형제나 자손들은 제사에 참석하여 거들어 줄 뿐 주재자는 되지 못한다. 결국 제사의식은 전적으로 장자의 주관 하에 치르는 행사가 되어 자연스럽게 만며느리의 제물과 제수준비를 전담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볼 때 1년에 대여섯 차례 심지어는 십여 차례 행해야 하는 제사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한국고문서학회, 2000 : 65).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아들과 만며느리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이러한 제사방식(이길

표, 1982; 박순천, 1982; 박수정, 1989; 김인옥, 1997; 이삼식 외, 2000; 정복미 외, 2004)을 실천하고 있다. 제사 때 가장 힘든 점을 조사한 결과 ‘제사상 준비의 어려움’을 꼽았다(이삼식 외, 2000). 이는 직장관계로 자손들이 대부분 흩어져 살 수 밖에 없게 되어 제물을 장만하는 역할을 하는 여자자손들이 일찍 모여 제사음식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새로운 각도에서 제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 남원 호곡마을의 죽산 박씨 충현공파 종가에서는 제사음식을 형제·자매나 자손들에게 각자 한 가지씩 분담을 하여 책임을 지우니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조상님께 올려 진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제사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한다(이연자, 2001 : 164). 그러나 형제지간에 제사음식 준비를 분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제사음식 전문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② 제사음식 종류

제사음식 종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사시제보다 사당이 없어지면서 기제사를 더 중시하게 되어 제물도 풍성하게 마련하였다(김혜선 외, 1993 : 250). 이러한 제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 지방마다 제수(祭需)도 각양각색으로 개고기를 올리는 지방도 있고, 생선 대신 오징어를 올리는 지방도 있다. 그러나 제물의 품목은 각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밤·대추 등의 토산식품과 각종 채소를 이용한 김치나 나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어포·육포와 더불어 그 고장의 대량 어획품목인 건어물이 제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음식이 제물로 이용되어 온 것은 그것이 고인의 생존 시 드시던 음식이었다는 것에도 관련이 있다(조후종·윤숙자, 2002 : 21).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먹을 것은 흔해지고 아이들은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음식을

제사음식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물을 많이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손들이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으로 시대에 맞추어 고기대신 LA갈비를 올리기도 하고, 전 대신 피자, 과일은 배·사과 대신 메론이나 오렌지를 쓰기도 한다(강재철, 2004 : 122). 한편, 조계종 『통일법요집』의 불교적 제사상은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 순으로 준비하되 오색나물, 오색과일을 기본으로 떡과 나물, 전, 송편, 떡국 등을 준비하고 좌우에 국화 등 현란하지 않은 꽃으로 장식하도록 한다. 또한 잔을 올리는 것은 녹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반면, 천주교에서는 제사상은 집안의 관습에 따라 차리도록 하고, 개신교인 예수장로교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되 상차림을 해서는 안 되며 추모예식 후에 나누어 먹도록 하고 있다.

③ 상 차리는 방법

상 차리는 방법은 제상에 제찬을 배열하는 것으로 진설을 의미한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3). 모든 예서의 진설법은 기본이 거의 같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집집마다 제수 진설을 다르게 하고 있다. 예서를 직접 써서 저서로 남기신 집안의 후손들도 자기 조상이 쓴 예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진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집집마다 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려 했는가에 따라 조금씩 행례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사상차림이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조상의 입장에서 보아 첫 줄에는 메(밥)와 갱(국)을, 둘째 줄에는 탕(湯)을, 셋째 줄에는 적(炙)과 전(煎)을, 넷째 줄에는 포와 나물 및 김치를, 다섯째 줄에는 과일을 각각 놓았다(정창권, 2003 : 88). 예서의 제수진설법을 살펴보면 『국조오례의』에는 고위(考:남자조상), 비위(妣: 여자조상)를 한 상에 차리는 합설이고, 반서갱동(飯西羹東)⁶⁷, 면서병동(麪西餅東)⁶⁸, 적접거중(炙楸居中)⁶⁹, 육동어서

(肉東魚西)⁷⁰, 동포서해(東脯西醢)⁷¹로 진설하였으며, 시저(匙箸)⁷²는 동쪽에, 채(菜)는 중앙에 진설하였고, 탕은 없고 진설의 열이 일정하지 않았다. 『제의초』⁷³가 『국조오례의』와 다른 점은 고·비위를 각각의 상에 차리는 각설이고, 어동육서(魚東肉西)⁷⁴, 서포동해(西脯東醢)⁷⁵, 숙서생동(熟西生東)⁷⁶으로 진설하였으며, 시접(匙楪)⁷⁷은 서쪽에 진설하였고, 탕은 있고 5열로 진설되었다. 『가례집람』⁷⁸이 『제의초』와 다른 점은 시접이 중앙에 있고, 탕이 없으며, 초첩이 갯보다 안쪽에 진설되었다. 『사례편람』은 『가례집람』과 같지만 해(醢)와 침채(沈菜: 김치)의 위치를 바꾸고 식혜를 올리는 것만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각 예서의 진설법은 이상과 같으나 조선후기 노론·소론 당쟁이 심해지면서 진설 시시비비가 생긴 것일 뿐, 율곡 선생이 쓴 『제의초』의 「시제 차림」, 『가례집람』, 제사의 교본으로 꼽히는 『사례편람』을 보면 어디에도 흥동백서나 조율이시 배치 순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이연자, 2006 : 73). 또한 음식을 놓는 모양도 가문마다 달라 계적을 올릴 때 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 종택인 양진당

67) 밥은 서쪽, 국은 동쪽이다. 즉 제사자의 입장에서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으로 놓는다. 이는 산 사람의 상차림과 반대이다. 따라서 숟가락과 젓가락은 중앙에 놓는다.

68) 국수는 서쪽이고, 떡은 동쪽에 놓는다.

69) 적은 중앙인 3열의 가운데에 놓는다. 적은 옛날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즉석에서 구워 올리던 제수의 중심 음식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제수와 마찬가지로 미리 구워 제상의 한가운데 놓는다.

70) 생선은 서쪽, 고기는 동쪽에 놓는다. 즉 생선은 오른쪽, 고기는 왼쪽에 놓는다.

71) 생선젓과 식혜는 서쪽에 놓고 포는 동쪽이다.

72) 숟가락과 젓가락이다.

73) 율곡의 『격몽요결』 부록

74)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생선은 오른쪽, 고기는 왼쪽에 놓는다.

75) 포는 서쪽이고 생선젓과 식혜는 동쪽이다.

76) 익힌 나물은 서쪽이고 생김치는 동쪽에 놓는다.

77) 시저를 담는 그릇이다.

78) 조선 선조 32년(1599)에, 김장생이 『주자가례』에 관한 옛 선비들의 설(說)을 모아 엮은 책. 숙종11년(1685)에 간행되었다. 10권 6책.

에서는 닭의 배 부분이 밑으로 오게 올리고, 서애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에서는 배가 위쪽으로 향하게 올리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가문인데도 서로 다른 상차림을 하고 있다(이연자, 2000 : 29). 이렇게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경우 가문마다 진설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도 전통적 진설법의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김종균 외, 2003 : 148). 한편, 조계종 『통일법요집』에서도 유교식 진설법을 수용하고 있으나 원불교에서는 간소한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에 어긋나는 비용을 들여서 접대하는 것은 폐지하도록 한다.

<표 1> 예서의 제례 진설법 비교

예서 제수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제의초 (祭儀鈔)	퇴계 (退溪)	가례집람 (家禮輯覽)	사례편람 (四禮便覽)
	사직	대부사서인				
생선·고기 [魚·肉]	어동 육서	육동어서	어동육서 (魚東肉西)	.	어동육서 (魚東肉西)	어동육서 (魚東肉西)
포·해[脯·醢]	동포 서해	동포 서해	서포동해	서포 동해	서포동해	서포동해
떡·면[餅·麵]	병서 면동	면서 병동	면서 병동	면서 병동	면서 병동	면서 병동
반·갱[飯·羹]	중앙	신위의 우측 으로 반·갱 함께 진설	잔반을 중앙에 놓고 양옆으로 반·갱을 놓음	.	시접, 잔반을 중앙에 놓고 반·갱을 양 바깥쪽으로 놓음	시접, 잔반을 중앙에 놓고 반·갱을 양 바깥쪽으로 놓음

④ 제사음식 비용 부담 방법

제사음식 비용 부담 방법은 입제일에는 가족 혹은 당내의 구성원들이 근신 하면서, 조상이 드실 음식을 마련한다. 제사를 받드는 큰집에서 제물은

준비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큰집만의 의무가 아니다. 작은집에서도 일부의 제물을 성의껏 마련하여 큰집으로 모인다. 작은집에서는 대개 육류·생선·포 가운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통례이다.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마을에 자리한 전주 최씨 연촌 최덕지(烟村 崔德之: 1384~1455) 선생의 종가에서는 제례 때마다 문중 사람들이 제사음식 한 가지씩을 준비해 오고 종가는 제기에 음식을 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 종가에서 제사음식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백 년 전부터 행하던 종가의 아름다운 전통이다(이연자, 2004 : 211). 반면 일부에서는 맏아들에게만 제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가문의 불화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제사비용 부담에서 집안 간 갈등을 경험한 비율(17.9%)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가정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제수비용을 현금이나 음식으로 상호부조하거나 현금·음식 등을 같이 부조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0 : 95).

3. 제례의식

본 연구에서 제례의식은 제사지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제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인식과 현대사회에서 제례가 갖는 고유한 역할 내지는 구실을 의미하는 제사기능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례의식을 제사인식과 제사기능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한 인식과 기능에 대해 선행연구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사인식

제사인식은 개인의 일반 환경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시대 변화에 의한 영향보다는 그 지역의 전통적사고 의식과 자연환경에 따라 전통성과 보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에 대한 인식은 여러 환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제사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옥재(1981)의 부녀자의 의식구조 조사연구에서는 부녀자의 연령에 따라 제례의식에 차이가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제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별 관계가 없었고 종교별로는 차이가 있어 불교와 무교 일 때 높았다. 그리고 며느리 서열에 따라서는 큰며느리가 그 외의 며느리 보다 더 전통적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길표(1982)·한경순(1986)의 연구에서도 제례의식은 연령과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박수정(1989)의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제례의식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 있어서 높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서는 긍정적인 의식이 56.5%로 나타났으나, ‘제복’ ‘제기’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댁의 종교별 제례의식에서는 유교집단과 무종교집단·기독교집단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시댁의 종교별 제례의식은 무종교·천주교를 믿는 주부보다, 또한 기독교를 믿는 주부보다 유교를 믿는 주부가 더욱 전통적이었으며 그리고 본인의 종교가 유교인 경우 전통적 제례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며느리 순위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인옥(1997)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현행제례의 실태 연구에 의하면 제례의식은 모두 중의점(M=3.36)을 상위(上位)하고 있어 제례

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제례의 주관자는 비록 장자이지만, 한 조상과 부모의 자손들로서 서로가 도움을 주며 어려움을 나눌 때 이를 주관하는 주부들의 제례에 대한 의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정우·김연화(1999)의 도시주부의 배경변인과 가치지향성에 따른 제례의식을 보면 종교, 자녀수, 학력, 며느리 순위, 물질지향성, 성평등지향성에 의해서 차이가 있었다. 즉, 주부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 비해 불교나 천주교인 경우, 자녀수가 많거나, 만며느리인 경우,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성평등지향성이 낮을수록 제례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제례의식은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길표(1983), 김명나(1989), 손유미(1990), 이정우·김명나(1993)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제사에 대한 의식은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이삼식 외(2000)의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여를 대상으로 한 제례 실태 및 의식조사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의 상당 비율이 제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사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특성 별로 보면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제례 지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비례하여 변화하며, 특히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지속성 정도가 9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저학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불교 등 전통적 속성이 강한 종교에서 제례의 지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지속성 정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안숙자·박경란(2001)의 도시, 해안, 농촌,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제례의식을 연구한 결과 현대 주부들의 제례의식은 긍정적인 경향이었고, 도시와 시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 시대 및 본인의 종교, 학력, 며느리 순위에 의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고연령층, 저학력층 주부, 며느리 순위가 높은 주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인들은 제례에 대해서 전통적인

성향을 보였다.

김종균·김정미·장성현(2003)의 서울, 부천과 안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례 의식의 인지도 조사 연구에 의하면 제례에 대한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이였다. 종교,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가 불교일 경우와 남성의 경우 그리고 거주지역이 경북지역인 경우 제사음식의 상차림에 대한 전통 전수와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교가 불교일 경우 제례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고, 전통적인 제례방식을 지키고 전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정복미·정해옥·김은실(2004)의 부산과 여수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제례의식 연구결과는 제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종교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의 전통이니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은 높았다. 또한 미래의 제사에 대한 생각은 대상자들이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비율 가장 높았고, 종교에서 카톨릭, 불교, 기타에서는 ‘나름대로 정성껏 모신다’의 비율이 기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종교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만며느리는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를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며느리의 순위에 따라 미래의 제사에 대한 생각에 유의성이 있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지역이 여수 지역에 비해 ‘법도에 따르거나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수 지역은 부산 지역에 비해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거나 예배 드리겠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제사에 대한 의식은 연령, 성별, 종교, 학력, 며느리 순위, 거주지역, 결혼여부 등 일반 환경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사기능

제사기능은 현대사회에서 제례가 갖는 고유한 역할 내지는 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례행례에 있어서 제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디에 두고 수행하는지를 의미한다. 제사인식과 제사기능은 현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김인옥(1997)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례실태 연구에 의하면 핵가족 생활을 하는 주부들의 제례기능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제사 참석 범위에 있어 친척 간에 많이 참석할수록 제례에 대한 의식과 수행 그리고 기능인지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과 친척들이 모임의 기회가 많을 때 제례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이현숙, 1983; 홍현주, 1986; 김인옥, 1997)를 참고하여 제사의 현대적 기능을 4가지 차원에서 분류한 ‘교육 및 효의 기능’,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 ‘혈연강화의 기능’, ‘종교의 기능’을 토대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및 효의 기능

교육 및 효의 기능은 조상과 부모에게 제례를 행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교훈과 업적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효를 통한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산교육으로서의 기능이다. 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김인옥, 2003)에서는 ‘교육 및 효의 기능’은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천(1986), 김경재(1996),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효에 관한 조상들의 핵심사상과 조상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2)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

제사는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을 갖는다. 즉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해지고 소박한 잔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함을 말한다.

진보 이씨 퇴계 이황 종가의 차종손 이근필씨는 “30여 명의 문중 사람들이 제사가 끝난 뒤 음복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제사는 후손들의 우의를 다지게 하는 좋은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이연자, 2004 : 235). 이와 같이 제사를 통하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상의 넋을 위로하며 제사지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친지의 정을 나누며 결속을 다지고 자녀간의 친목도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김인옥, 1997; 두경자, 2000).

(3) 혈연강화의 기능

고령 박씨 충헌공 박문수 종가의 종손은 “제사의 큰 줄기는 정신입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친지들을 만나면서 핏줄을 확인하는 축제 같은 자리가 바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이연자, 2005 : 52)라고 반문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혈연강화의 기능(이현숙, 1982; 홍현주, 1986)이라 볼 수 있다. 제사는 상호 부조를 바탕으로 제사 때 이루어지는 친족 간의 협동과 혈연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한 측면으로서 자자손손 계승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며, 제사를 통하여 당내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혈연강화의 기능을 가진다(이현숙, 1983; 홍현주, 1986).

(4) 종교의 기능

항상 조상이 나와 우리집안을 돌봐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은 복을 받을 것이고 후손들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사고에서 연유된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은진 송씨 우암 송시열 중가에서는 “청결과 정성을 다하면 신이 흠향(歆饗)하여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화(災禍)가 있을 것”이라는 경계의 말도 있다(이연자, 2002 : 165). 즉 나와 우리 집안이 복받고 잘 살려면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몇몇 선행 연구(이현숙, 1982; 홍현주, 1986; 김인옥, 1997)에서 조상숭배의 기능과 종교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4. 제례행례

제례행례는 봉사대상, 봉사대수, 제사형식, 제사날짜, 제사시간, 기제사절차, 제사 지내는 방법, 신위 모시는 방법,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제사그릇, 제사복식, 제사주관자, 제사참례자, 제사음식 준비 방법, 제사음식 종류, 상 차리는 방법, 제사음식 비용 부담 방법 등으로 실제 행례에 나타나는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문헌고찰을 토대로 현행제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가례를 통해본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연구한 이길표(1982)에 의하면, 혼인한 남·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사형식에 있어 유교식으로 대부분(56.6%) 지내고 있었으며, 42.4%는 기제사와 차례만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제를 지내는 시각은 ‘사망 전 날 일몰 후(40.6%),’에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종래의 ‘사망 당일 새벽 자시’에 지내는 가정은 11.9%였다. 또한 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된다(55.6%)’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제례 때 참사자의 범위는

‘대소가는 다 오신다(18.1%)’보다는 ‘사촌이내 (30.4%)’가 더 많아 참사자의 범위가 줄어드는 경향이였다. 지방을 쓰는 방법은 60.9%가 ‘전통의례대로 쓴다’고 응답했다.

도시주부의 제례행례 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박수정(1989)의 연구에서는 제례유형을 ‘전통식으로 지내는 경우’가 43.7%로 가장 높았고, 제사종류는 ‘기제사와 차례를 지내고 있는 가정’이 49.9%로 높게 나타났다. 봉사범위는 28.8%가 ‘3대까지 지낸다’, 27.9%는 ‘2대까지 지낸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사참사자의 범위는 위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4촌 이내가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한 주부가 42.8%이었으며, 제사집행자는 ‘장남’이 단연 높아 82.0%를 나타냈다. 기제사 시각은 33.9%가 ‘사망 전 날 해진 뒤에 지낸다’고 하였으며, 20.6%는 ‘사망 당일 이른 새벽에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제수과실(祭需果實)로는 ‘밤, 대추, 귤, 배 등 계절과실’을 47.0%로 가장 많이 쓰고 있었다.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 문화적 고찰과 현행 제례의 실태를 조사한 김인옥(1997)연구 결과는 제사지내는 형식은 ‘전통적인 유교식으로 지내는 경우’가 67.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사망 전 날 저녁때’ 34.7%정도가 지내고 있으며, 제사주관자는 여러 형제 중 ‘장남이 주관하여 지내는 경우’가 72.3%로 가장 높았으며, 제사 장소는 ‘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5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사 모시는 범위는 33.2%가 ‘조부모까지’ 모셨다. 또한 신위 모시는 방법은 대다수 사람들인 49.5%가 ‘지방’을 쓰고 있었으며, 제사 시 참석범위에 있어서는 ‘형제까지 참석’하는 경우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절차에 있어서 50% 이상이 행하고 있는 절차는 ‘초헌(51.9%)’, ‘유식(53.3%)’, ‘진다(56.0%)’ 절차이며, 제사 시 제수의 종류는 ‘과일류(89.3%)’, ‘숙채(86.0)’, ‘반(84.6%)’을 80% 이상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 및 성묘 실태와 변화방향’에 대한 이삼식 외(2000)연구결과는 조상에 대해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는 통합제사는 87.1%가 ‘통합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제례유형은 78.3%의 대다수가 ‘전통적 유교형식’으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례주관자의 87.7%가 ‘장손이나 장남이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례참례자는 응답가구의 53.0%가 아직은 ‘남자들만 참석하고 있다’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제례범위는 ‘2대까지’가 33.4%로 나타나 31.6%로 나타난 ‘1대까지’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제사시간은 ‘저녁 10시-새벽 01’ 사이에 제사지내는 비율이 전체 응답 가구의 69.6%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사복장은 응답가구 중 52.8%가 제사참례자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있다’고 했으며 제례음식 준비는 81.9%가 ‘고인을 위한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사상 규칙 준수는 54.6%가 ‘제사상 음식준비 규칙을 대체로 지키고 있다’고 했으며, 제수비용은 42.6%가 ‘평균 제수비용으로 10-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여수 지역 주부들의 제례준비 및 제례의식에 관한 정복미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두 지역 모두 제사 지내는 시간은 ‘23:00-01:00시에 지낸다’가 47.16%로 가장 높았으며, 기제사의 범위는 34.47%가 ‘3대까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사는 ‘장남이 지낸다’가 7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늘날에는 돌아가시기 전날 자정 이후에 제사 지내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핵가족화로 직장 출근, 교통 사정을 고려하여 후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기도 한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 130).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거창 강천마을의 초계 정씨 동계 정은 종가의 종부도 “나

까지는 제사시간을 한밤중에 모시지만 나 죽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어렵지.....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조상이 돌아가신 날 해가 진후에 모시도록 하라고 일러두었어.”라고 했다(이연자, 2001 : 284).

이정우·김연화(1999)의 도시주부의 제례의식과 제례수행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주부의 제례의식은 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주부의 제례의식이 전통적일수록 실제 제례수행도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길표(1983)·박수정(1989)·김명나(1989)의 연구에서도 제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제례행동도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제례행례에 대한 연구는 봉사대상, 봉사범위와 제사주관자, 제례형식, 시간, 날짜, 제사 지내는 방법, 제사 시 읽는 복식, 신위모시는 방법, 기제사절차, 제사 상 차리는 방법, 제사음식 종류가 주(主)를 이루고 있다.

5. 제례만족

제례행례 후의 제례만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비슷한 유형의 연구논문으로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년 이내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주부의 가정의례를 3영역(혼례·회갑연·제례)으로 나누어 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논문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제례만족의 평균점수가 3.41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여 비교적 주부가 제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에 따른 제사에 대한 만족도는 대가족이 핵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이 가정의례를 행하고 난 뒤 갖게 되는 만족정도가 시부모와 동거하거나 여러 가족원들이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

과 상의를 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가사부담도 나누는 경향이 핵가족 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학력에 따른 가정의례에 대한 만족도는 대졸이상 집단이 가장 높으며, 고졸이하, 전문대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주부의 높은 학력이 가정의례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삼식 외(2000)의 연구에서는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제례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84.1%)이 제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79.2%)가 남자(8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는데 그 이유는 제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으며, 30대·40대(80.1%·81.9%)인 저연령층이 50대·60대 이상(87.1%·89.1%)인 고연령층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은 현대적 경향으로서 젊은층이 직장 등으로 인한 바쁜 생활 속에서 제례가 부담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종교(불교 86.9%, 무교 83%, 기독교 83%, 천주교 81.8%)간 만족도의 차이는 연령층과 상관이 있으며 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불교신자가 기독교 신자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속성이 강하여 전통적인 행사인 제례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6. 가족주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과 같이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며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규범으로 간주되어 명확한 개념정의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영수(1982)

는 한국의 가족주의 자산의 친족집단 밖의 외부인을 적의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개인개념은 가족개념 속에 소멸되어 버리는 현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효재(1985)는 가족의 인간관계를 가족 외적인 일반사회로 확대시켜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 및 가치체계로 보았다. 또한 임의섭(1986)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의 중심적 특징은 집합주의의 가치지향으로서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등 여러 수준의 집합체 가운데서도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강조되는 가족주의적 집합주의라고 하였다.

옥선화(1989)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 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효의 원리를 지지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 까지 확산되는 것이므로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영속적인 신념으로 가진 행동양식을 말한다고 하였다.

최재석(1994)은 가족주의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이라고 하고 한국의 가족생활에 대한 전통적 가치의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첫째, 가족내부의 엄격한 신분서열 존재가 있다. 둘째, 친자중심의 가족구성이 있다. 셋째, 지배와 복종의 종속적인 관계로 유지되는 친자관계가 있다. 넷째, 상·하의 신분 서열 식으로만 유지되는 가정의 화목이 있다. 다섯째, 초시간적 집단인 집의 유지, 존속을 위한 가족 개개인의 독립, 자유, 발전을 배척한다는 점으로 개인보다는 집 위주가 있다.

유교에서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내세워, 가족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족을 통치의 기본 단위로 삼

았다. 가족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이라 하였다. 가장에게는 가족의 모든 것을 통솔하고 안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부장권을 부여하였다(이광규, 1994).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여전히 현대인의 생활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조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체계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에게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 규범원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 접근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선행연구(최재석, 1966; 홍승직, 1971; 옥선화, 1975; 유영주, 1976; 박인덕, 1979)를 참고하여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부모공경 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제례를 관련지어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가족우선성 의식, 부모공경 의식, 부계가문의 영속성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의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우선성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조사한 연구(김송애·조병은, 1991; 옥선화, 1989)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근대적인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연구를 한 이수연(2000)은 가족우선성에 대한 의식은 부부(남·녀) 모두 근대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부부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려는 직업에 대해서 가족들이 반대할 경우,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을 조사한 김송애·조병은(1991), 옥선화(1989)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 즉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공경의식이 더 근대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연구를 한 이수연(2000)은 부부(남·녀)모두 부모공경의식은 근대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남편이 부인에 비해서 다소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을 조사한 연구(김송애·조병은, 1991; 옥선화, 1989)는 부계가문의 영속화 의식은 생활수준의 향상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근대적인 의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한국의 가족주의적 전통이 직장 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동원·함인희(1992)는 종교에 따른 남편(남성)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계가문 영속성에 대한 의식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부계가문의 영속성에 대한 의식에서 기독교인 집단보다 불교인 집단이 더욱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은주·김태현(1994)의 연구결과 종교가 불교일 때와 며느리의 경우 남편이 독자일 때 부계가문의 영속화 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며느리가 가계계승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이 단순근로직 일 때나 시부모의 종교가 불교일 때 부계가문의 영속화 의식이 가장 전통적이라고 하였다. 이수연(2000)의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연구”에서 부계가문의 영속화에 대한 의식은 역시 부부(남·녀) 모두 근대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부인에 비해 남편이 다소 전통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애·조병은(1991), 옥선화(1989)는 가족관계에 관한 가치관연구에서 생활수준의 향상, 즉 소득이 높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척간의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더 근대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수연(2000)의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연구결과 형제자매 및 친척간의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은 부인(2.85)보다 남편(3.02)이 더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관계

기혼남녀의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각각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변인들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세세히 살펴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각 변인간의 부분적인 관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제례의식과 제례행례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부의 제례의식과 제례행례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제례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제례행례도 근대적으로 나타났다(이길표, 1982; 박수정, 1989; 김명나, 1989). 또한 이정우·김연화(1999)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제례의식이 전통적일수록 제례행동 역시 전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 한지 10년 이내의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관한 연구결과(이정우·김명나, 1993)를 보면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행동도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제례의식과 제례만족과의 관계에서는 가정의례에 대한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 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제사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간에도 부적 상관이 나타나 제사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제례행례와 제례만족과의 관계에서는 가정의례에 대한 연구결과(이정우·김명나, 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행동 및 만족도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의례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간의 관계에서 가정의례에 대한 연구결과(이정우·김명나, 1993)에서는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의례에 대한 행동은 의식보다 근대적이었으나 제사에 대한 행동은 의식보다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명나(1989)의 연구 결과에서는 제사에 대한 행동이 의식보다 근대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길표(1982), 박수정(1989), 김명나(1989), 이정우·김연화(1999)의 연구에서 주부의 제례의식은 제례행례에 영향을 미쳐 제례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일수록 제례행례가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관계에서 가정의례에 대한 연구(이정우·김명나, 1993)결과,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행동이 의식보다 근대적일 때, 가정의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제사에서 의식보다 행동이 근대적일 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은 제례행례에 영향을 미치고(이정우·김명나, 1993; 이정우·김연화, 1999), 제례행례는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며(이정우·김명나, 1993), 제례의식은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므로(이정우·김명나, 1993) 이들간의 부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기혼남녀의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8. 가족주의 ·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고찰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제례의식,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성별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편과 부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이수연, 1999). 즉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강한 가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김재은, 1987; 이동원·함인희, 1992; 최정혜, 1997, 1998; 이수연, 1999; 이은경, 1999). 또한 한남제(1989)의 연구에서도 남녀의 차별의식은 여성 가치관보다 남성 가치관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선화(1989)의 가족주의 가치관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근대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옥선화, 1989).

이삼식 외(2000)의 연구에서는 남·여 공히 제례 지내는 이유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에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는 ‘집안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이므로’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제례에 대해 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례·만족에 대한 남·여 차이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2) 연령

연령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을 볼 때,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김재은, 1987; 옥선화, 1989, 1990; 김송애·조병은, 1991; 이동원·함인희, 1992; 이은경, 1999; 최정혜, 1997, 1998; 한은주·김태현, 1994).

정복미·정해옥·김은실(2004)의 부산과 여수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기능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화목도모’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연령에 따라 유의성이 있었다.

이길표(1982), 김명나(1989), 손유미(1990)의 연구에서는 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임옥재(1981), 이연주(1984), 홍현주(1986), 허성미(1987), 이정우·김명나(1993),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제사에 대한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 왔다.

제례수행에 있어서도 김명나(1989), 김인옥(1997), 안숙자(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에서는 제례만족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본인종교

이동원·함인희(1992)의 한국의 가족주의적 전통이 직장 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종교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계가문 영속성에 대한 의식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계가문의 영속성에 대한 의식에서 불교인 집단이 기독교인 집단보다 더욱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은주·김태현(1994)연구에서도 종교가 불교일 때, 부계가문의 영속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교의 감소 및 기독교의 확산은 가족주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김명자, 1980; 김일명·김명자, 1989; 이연주, 1984; 한남제, 1989)들은 기독교 신자인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이 근대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은주·김태현(1994)의 연구에서도 시부모가 불교일 때 부계가문의 영속화의식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정혜(1998)의 연구에서도 불교 신자인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

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은경(1999)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과 기독교 신자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근대적이라고 하였으나, 김송애·조병은(1991)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정복미·정해옥·김은실(2004)의 부산과 여수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기능의 연구결과 천주교와 기타 종교는 ‘가족의 화목도모’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불교와 기독교는 ‘계승 발전’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종교에 따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종교에 따른 제례의식은 몇몇 선행연구(이길표, 1982; 홍현주, 1986; 박순천, 1986; 박수정, 1989; 김명나, 1989; 손유미, 1990; 이정우·김연화, 1999)에서는 기독교·천주교 및 무종교집단이 불교집단보다 근대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제례의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로 나타났는데, 기독교, 천주교, 무종교, 불교집단 순으로 근대적이었다.

그리고 종교에 따른 제례행동은 김명나(1989)의 연구에서 기독교와 천주교 집단이 불교와 기타 집단보다 근대적이었고, 무종교집단이 타종교집단보다 전통적이었는데, 임옥재(1981), 박순천(1986), 홍현주(1986), 박수정(1989), 손유미(1990), 이정우·김명나(1993), 안숙자·박경란(2001)연구에서도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제례행동에서 더 전통적이라고 보고했다. 이상에서 볼 때 제례의식과 제례수행에서는 종교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정우·김명나(1993)의 종교에 따른 제례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형제(며느리)순위

한은주·김태현(1994)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에서는 며느리의 경우 남편이 독자일 때 부계가문의 영속화 의식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며느리의 가계계승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한은주·김태현(1994)의 연구에서 며느리 순위는 제례의식에 유의미한 변인은 아니었으나 임옥재(1981),허성미(1987), 박수정(1989), 김명나(1989), 이정우·김명나(1993), 이정우·김연화(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큰며느리가 그 외며느리에 비해 전통적 제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며느리의 위치에 따라 제례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큰며느리나 종부는 조상에 대한 봉제사 의식이 높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종부와 맏며느리가 그 외의 며느리보다 제례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제례수행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정우·김명나(1993)의 형제(며느리)순위에 따른 제례만족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교육수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1980; 김송애·조병은, 1991; 김일명·김명자, 1989; 옥선화, 1989; 한은주·김태현, 1994; 최정혜, 1998; 이수연, 1999).

한편 제례의식은 임옥재(1981)의 연구에서는 학력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이길표(1982), 박순천(1988), 김명나(1989),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정우·김연화(1999)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제례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수행에 대해서 이정우·김명나(1993)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유의한 영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학력에 따른 가정의례에 대한 행동은 대체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전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고학력의 남편들이 제례수행에도 더 전통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숙자 외(2001)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제례수행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학력이 높은 주부들이 선도하여 학력이 낮은 주부들에게 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례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주부의 높은 학력이 가정의례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직업

한남제(1989)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일수록 부부에 대한 차별의식이 높았으며, 가계계승의식·혈연의식 및 효도의식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단순노무직일 때 가치관이 더 전통적이라고 하였다. 김태현 외(1994)의 연구에서는 며느리의 직업이 관리직 및 전문직일 때 가족주의 가치관이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주의 가치관 중 부계가문의 영속화는 단순근로직일 때 가장 전통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제례의식에 관해서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김명나,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김인옥, 1997). 그러나 제례수행 면에서는 안숙자·박경란(2001)의 연구에서는 단순직일수록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전통적으로 나타나 제례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 제례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또한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도 직업유무에 따른 제례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월평균소득

주부의 가족관계에 관한 가치관을 연구한 김명자(1980)는 생활수준의 향상,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근대적인 의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송애 외(1991), 옥선화(1989)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의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근대적인 의식을 나타냈다. 특히 김태현 외(1994)의 연구에서는 시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며느리의 소득도 낮을수록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의식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례의식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옥선화, 1975, 1989; 서봉자, 1981; 홍현주, 1986; 김명나, 1989; 손유미, 1990; 이정우·김명나, 1993; 김인옥, 1997)에 의하면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이 제례의식이 더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선화(1989)의 연구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식 제사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 근대성을 나타낸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제례수행에서도 손유미(1990), 김인옥(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전통적이었다. 그리고 서봉자(1981)의 연구에서도 월수입이 적을수록 제사비용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에 따른 제례만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가족형태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애·조병은, 1991; 이은경, 1999; 옥선화, 1989; 최정혜, 1997, 1998). 김태현 외(1994)의 연구에서는 시부모일 경우, 장남 외 자녀부부와 동거할 때 보다 동거가족이 장남부부와 동거할 때가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형태인 직계가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족주의 가치관을 더욱 지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며느리의 경우는, 지금 시부모와 동거중이거나 동거경험이 있을 때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김명나(1993) 연구에서는 핵가족보다 대가족이 가정의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이 가정의례를 행하고 난 뒤 갖게 되는 만족정도가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그들과 상의를 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향이 핵가족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가정의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9) 출신지역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연구한 옥선화(1989), 최정혜(1997, 1998)의 연구에서는 도시 출신자 보다 농어촌 출신자가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제례의식을 조사한 결과(안숙자·박경란, 2001), 전체적으로는 도시와 시골에서 각각 3.54, 3.59로서 5점 척도에서 중위점을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시골에서 거주하는 주부들 모두 제례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한국 주부들의 제사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김인옥, 2003)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친목도모와 회연의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제례의식에 관한 허성미(1987), 김인옥(1997), 정복미 외(2004) 연구

에서는 제사기능 중 ‘친척 도모 및 회연의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월이 지나도 지역에 관계없이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통하여 가족 간의 화목 도모를 중요시 한다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 따른 전통적인 기본 제례행례를 지역별로 조사한 연구결과(안숙자·박경란, 2001)에서 제례행례는 전체적으로 볼 때 5점 척도에서 도시(3.77)와 시골(3.80) 모두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연구자(안숙자·박경란, 2001)가 제례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제례행례가 제례의식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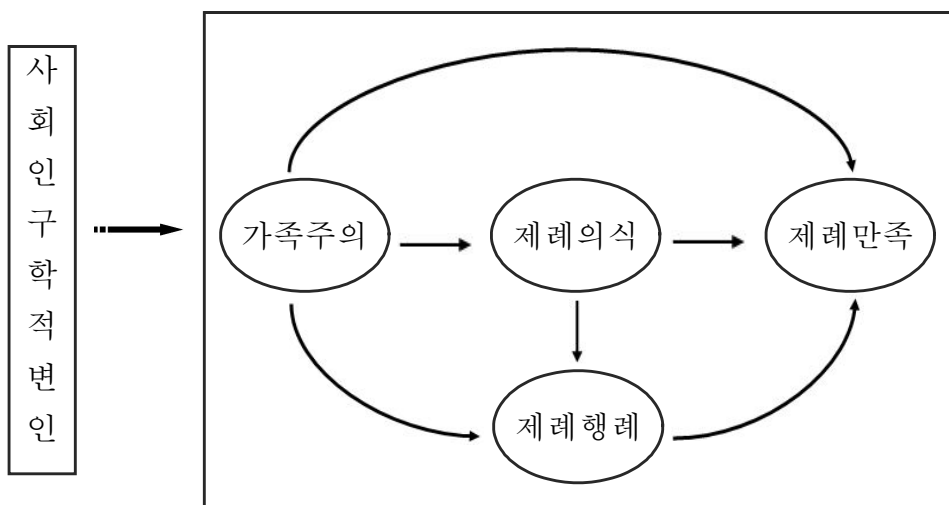
- 1)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제례행례·제례만족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주의·제례의식 및 제례행례와 제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 (1)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는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은 제례행례와 제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제례의식 및 제례행례는 제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제례의식은 2개의 범주(제사인식, 제사기능), 제례행례를 5개의 범주(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로 한정하여 그 각각에 대한 의식과 행례 및 만족간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았다. 즉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기혼남녀의 성별, 연령, 본인종교, 형제(며느리)순위,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가족형태, 출신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가족주의 변인은 가족우선성, 부모공경의식, 부계가문의 영속성,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 경제적 유대의식을 포함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은 제례행례에 영향을 미치고(이정우·김명나, 1993; 이정우·김연화, 1999), 제례행례는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며(이정우·김명나, 1993), 제례의식은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므로(이정우·김명나, 1993) 이들 간의 부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기혼남녀의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인과모형의 구성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 연구모형의 구성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기혼남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미혼을 제외시키고 기혼남녀로 선정한 것은 실제 제례행례 시 모든 절차나 제 수준비에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족 중 미혼자녀보다는 혼인한 아들·딸이나 며느리이며, 미혼인 경우 제례에 대한 행례나 제례만족을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각 조사의 표본은 지역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청의 사회지표(2006) 인구비례에 의하여 서울·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로 묶었고 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는 각 도별로 나누고 각 도는 다시 몇 개의 시·군을 선정하여 표집 하였다. 표집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경기도지역(400부)은 특별히 어떤 지역을 정하지 않고 표집하였으며 강원도(100부)는 원주·강릉지역, 충청도(200부)는 대전·예산·공주·충주지역, 경상도(100부)는 안동·부산지역, 전라도(100부)는 전주·임실지역, 제주도(100부)는 제주·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기제사나 추도식을 주관하거나 이에 참석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가구에서 한 명만 표집 하였다. 서울·경기도 지역을 가장 많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서울과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서울·경기도에 본적을 둔 대상자보다 다른 지역(시·도)에 본적을 둔 대상자가 많아 다른 도와 같은 수로 조사하면 서울·경기도 지역의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조사는 응답자 본인의 특성을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출신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본인의 출신지역이 아닌 본가(시·도)의 출신지역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혼남 75명·기혼녀 75명 등 총 150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기혼남 73부, 기혼녀 72부

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7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1000부(기혼남 : 500부, 기혼녀 : 500부)를 배부하여 964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미혼이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부실기재 등 미흡한 것을 제외한 675부(기혼남 : 306부, 기혼녀 : 36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본 연구자가 예절교육을 받은 예절교육지도자·친인척·지인·선후배인 조사원에게 조사방법을 개별교육 시킨 후, 조사원이 할당 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된 지역의 조사대상자에 맞는 조건을 지닌 응답자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직접 응답자에게 나누어 주고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가족주의 가치 특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영향변인으로 고려된 변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형제(며느리)순위,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가족형태, 본가(시댁)출신지역 등을 선정하였으며, 가족주의 가치변인으로는 가족우선성, 부모공경의식, 부계가문의 영속성,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가치관을 포함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선정 하였다.

매개변인으로는 제례의식과 제례행례를 선정하였다. 제례의식은 제사인식, 제사기능 등의 2개의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제례행례는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등의 5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제례만족을 선정하였으며, 제례행례와 같은 5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정의와 함께 측정도구를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도구의 구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형제(며느리)순위,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가족형태, 본가(시댁)출신지역 등을 선정하였다.

<표 2 > 측정도구의 구성

변인	변수	구분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연령
	종교	본인의 종교 (①유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무교 ⑥기타종교)
	형제(며느리)순위	①장남(만며느리) ②둘째(둘째 며느리) ③셋째(셋째며느리) ④기타
	교육수준	①초졸 이하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 ⑤대학원 이상
	직업	①전업주부·무직 ②단순노무자 ③농·축·수산업 ④판매·서비스 ⑤사무직 ⑥전문관리직 ⑦기타
	월평균가계소득	①149만원 이하 ②150만원-299만원 미만 ③300만원-449만원 미만 ④450만원-599만원 미만 ⑤600만원 이상
	가족형태	①배우자 ②배우자+자녀 ③배우자+자녀+시(부모) ④배우자+자녀+시(부모)+시댁(형제)⑤배우자+자녀+친정(처)부모⑥배우자+자녀+친정(처)부모+친정(처)형제 ⑦혼자 산다 ⑧기
	출신지역	①서울·경기도 ②강원도 ③충청도 ④경상도 ⑤전라도 ⑥제주도 ⑦기타
가족주의	①가족우선성(4문항) ②부모공경의식(5문항) ③부계가문의 영속성(4문항) ④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6문항)	
제례의식	①제사인식(18문항) ②제사기능(7문항)	
제례행례	①제사대상(2문항) ②제사절차(6문항) ③제사용품(2문항) ④제사행위자(1문항) ⑤ 제사음식(4문항)	
제례만족	①제사대상(3문항) ②제사절차(7문항) ③제사용품(2문항) ④제사행위자(5문항) ⑤ 제사음식(6문항)	

2) 가족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부계 가족원리를 지지하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효의 원리를 지지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까지 확산되는 것이므로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우선성, 부모공경의식, 부계가문의 영속성,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영속적인 신념으로 가진 행동양식을 말한다.

가족주의 가치 척도는 한국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선행연구(최재석, 1966; 홍승직, 1971; 옥선화, 1975; 유영주, 1976; 박인덕, 1979)결과를 참고하여 옥선화(1989)가 작성한 가족주의 가치척도 21문항 중에서 예비 조사한 결과, 신뢰도 측정시 신뢰도가 너무 낮은 2문항을 빼고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반대하는 경우 1점부터 매우 찬성하는 경우 5점을 주어, 전체 문항의 총점은 19점부터 95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낮은 것이다.

3) 제례의식 척도

현대에는 제사나 제례는 거의 구별 없이 쓰이나 본 연구에서 제사나 제례를 구별하기 위하여 의미의 차이를 두어 제례는 전통적 개념에서 제사 행위에 예(禮)라는 개념을 결합시켜 그 절차나 신념체계를 정교하게 규정하고 유교적이념에 따라 정교화 되어 일정 정도 제도화된 개념으로 조상숭배를 표출하는 넓은 의미의 모든 의례행위를 의미하고 제사는 죽은 조상을 대상으로 그를 추모하거나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조상숭배 행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례의식을 제사인식, 제사기능 등의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한 기혼남녀의 제사인식과 제사기능이 어느 정도(변화지향적·전통지향적)인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이라는 의미는 변화지향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조선조를 기점으로 한 전통사회 유교적 색채가 강한 형식을 추구하는 제례에 중점을 둔 의식의 의미이며, 변화지향적 의식은 산업화·서구화 등으로 인하여 근대화가 이루어진 후 편의주의와 개인주의 색채가 강화되고 간소화된 제례에 중점을 둔 의식을 의미한다. 즉 제례에 대한 수행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변화지향적 또는 전통지향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사에 대한 인식이 전통지향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지내던 제사규범을 그대로 더 많이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사에 대한 기능이 전통지향적이라는 것은 교육 및 효의 기능과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 혈연강화기능, 종교적 기능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사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기제사(忌祭祀)를 중심으로 예서(禮書)인 『주자가례』 『격몽요결』 『가례집람』 『사례편람』 과 이길표(1982), 박수정(1989), 이정우·김명나(1990), 김인옥(1997,2003), 이정우·김연화(1999), 이삼식 외(2000), 김은실(2001), 안숙자 외(2001), 박경란(2002), 김종균 외(2003), 정복미 외(2004)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현대인들의 제사인식에 적합하게 변형시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사기능은 이현숙(1983), 홍현주(1986), 김인옥(1997, 2003), 김은실(2001)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제례의식에 관한 문항들은 제사인식이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제사인식이 전통지향적임을 나타낸다. 제사기능은 총 7문항 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제사기능이 전통지향적임을 나타낸다.

4) 제례행례 척도

제례행례를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등의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해 기혼남녀가 실제로 수행한 정도(전통지향적·변화지향적)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 제례행례가 전통지향적이라는 의미는 변화지향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규범에 따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사대상에서 봉사대상이 전통지향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으로 본가(시댁)의 조상을 모시는 정도를 의미하며, 봉사대수가 전통지향적이라는 것은 4대 봉사라는 전통사회의 봉사범위를 따르는 정도를 말한다.

제사절차는 제사형태, 날짜, 시간, 기제사절차, 제사 지내는 방법, 신위 모시는 방법,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사절차가 전통지향적이라는 것은 전통적 규범 절차대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사용품은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용품으로 제사용품이 전통지향적이라는 것은 제사용 그릇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제복이나 전통한복을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사행위자는 크게 주관자와 참례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사행위자 중 제사주관자만 조사를 했다. 제사주관자는 일종의 종교적 사제(司祭)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사주관자가 전통지향적임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가 종법에 의한 적장자로 가족구성원 중 장남이 제사 주관자인 것을 말한다.

제사음식은 제사 때 쓰는 음식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사음식을 준비하는 방법, 제사음식 종류, 제사음식을 상에 차리는 방법과 제사음식 준비에 사용되는 비용까지를 포함한 의미이다. 제사음식이 전통지향적임은 제사음식을 집에서 장만하고, 제사음식 종류는 전통 제사음식 중심으로 차리며, 상 차리는 방법은 전통적인 제례규범대로 진설을 하며, 제사비용에 대한 부담은 제사를 주관하는 장남이 거의 다 부담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례행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기제사(忌祭祀)를 중심으로 예서(禮書)인 『주자가례』 『격몽요결』 『가례집람』 『사례편람』 과 이길표(1982), 박수정(1989), 이정우·김명나(1990), 김인옥(1997·2003), 이정우·김연화(1999), 이삼식 외(2000), 박경란(2002), 김종균·김정미·장성현(2003), 정복미 외(2004)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제사대상(2문항), 제사절차(6문항), 제사용품(2문항), 제사행위자(1문항), 제사음식(4문항)으로 총 15문항을 질문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제례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함을 나타낸다.

제례행례의 측정에는 제례를 수행할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제례에 대한 수행정도가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평균 \pm 표준편차에 의하여 측정정도를 상(전통지향)·중(중도지향)·하(변화지향)로 연구자 임의로 구분하였다. 제례행례를 연구자 임의로 전통지향, 중도지향과 변화지향으로 분류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례행례를 수행할 때 『주자가례』 『격몽요결』 『가례집람』 『사례편람』 에서 제시한 제례행례대로 근접하게 수행하거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법도대로 수행하는 하는 경우 전통지향으로 3점, 전통지향에서 약간 변화되어 제례행례를 수행하는 경우 중도지향으로 2점, 전통지향에서 많이 변화된 경우 변화지향으로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제례행례를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응답자들이 기타 란에 응답한 것을 유목하여 분류하였다. 제례행례 척도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례행례 점수화

변인	문항번호	제례행례			비고
		변화지향 (1점)	중도지향 (2점)	전통지향 (3점)	
제사대상	봉사대상	· 처가(친정) 조상만	· 본가(시댁)·처가(친정) (양가조상)	· 본가(시댁) 조상만	
	봉사대수	· 1대조(부모님)	· 2대조(조부모님) · 3대조(증조부모님)	· 4대조(고조부모님) · 6대조 · 7대조	
제사절차	제사형식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성공회식(카톨릭식)	· 유교식 · 유교식 + 불교식 · 유교식 + 천주교식	
	제사날짜	· 공휴일 · 절에서 잡아 주는 날	· 사망 당일	· 사망 전 날	
	제사시간	· 주야 편리한 시간 · 오전 10시 또는 오후2시	· 저녁 6시-9시 · 밤 9시-11시	· 밤 11시-01시 · 새벽 1시-3시	
	제사방법	· 부모님은 제각기 기일에 지내고 그 외 조상님들은 부부단위로 한 날에 지냄 · 부모님은 제각기 기일에 지내고 그 외 조상님들은 하루 날을 잡아 합쳐 지냄 · 부모님 제사 모두 합쳐서 · 부모님을 같은 날 지냄 · 부모님 제사만 제삿날 지냄 · 부모님과 조부모님 제사(추도예배)는 부부단위, 그 외 조상들은 합쳐서 한 날에	· 조부모님까지는 제각기 지내고 그 외 조상은 부부단위로 지냄 · 조부모님까지는 제각기 기일에 지내고 그 외 조상들은 합쳐서 한 날에 지냄 · 조부모님까지만 정해진 날짜 추모예배 그 외는 지내지 않음	· 모시는 조상 모두 제각기 기일에 지냄	
	신위 모시는 방법	· 신위모시지 않음 · 추도 예배 · 사진 없으면 그냥 지냄	· 사진 · 사진 있는 조상은 사진, 없는 조상은 지방	· 신주 · 지방 · 신주·지방 함께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 지방·축문을 쓰지 않고 지냄 · 천주교식 · 예배, 성경말씀 · 스님이 절에서 하는 방식대로	· 전통의례대로 한글 · 고하고 싶거나 추모하는 경을 담은 글	· 전통의례대로 한문 · 지방만 한문으로		

변인	문항번호	제례행례			비고
		변화지향(1점)	중도지향(2점)	전통지향(3점)	
제사용품	제기종류	· 평상시 쓰는 그릇 사용 · 제사(추도예배)상 차리지 않고 지냄 · 절 그릇	· 제사(추도예배)용그릇·평상시 그릇 섞어 사용	· 제사(추도예배)용그릇 따로 사용	
	제사복식	· 평상복 · 집에서 입던 옷 · 양복 + 평상복 · 이두운 계열, 단정한 옷	· 양복정장 · 유건+양복 · 한복 +양복 · 양복+천담복 · 양복+유건, 천담복 · 한복+양복+유건·도포, 천담복	· 한복 · 유건·도포, 천담복 · 흰옷 · 유건 + 한복	
제사행위자	제사주관자	· 아들·딸들이 돌아가면서 ·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 종교기관 대행 · 딸이 주관 · 가족 중 형편에 맞게	· 차남이하 아들 · 아들끼리 돌아가면서	· 장자(손)	
제사음식	제사음식 준비 방법	· 모든 음식을 시장·음식 맞춤 전문점 이용 · 제사(추도예배)상 차리지 않고 지냄 · 절에서 준비	· 형제가 나누어 준비 · 만들기 어려운 것만 시장·음식 맞춤 전문점 이용 · 차남 집에서 함께 준비	· 제사(추도예배) 지내는 집에서 마련 · 장자(손)집에서	
	제사음식 종류	· 가족을 위한 음식 · 제사(추도예배)상을 차리지 않고 지냄 · 고인이 즐긴 음식+가족 위한 음식 · 절 방식대로 · 떡+과일만	· 전통제례음식·고인이 즐기던 음식 · 고인이 즐기던 음식 · 전통제례음식+가족위한음식 · 전통음식+고인 즐긴 음식+가족 위한 음식	· 전통 제례 음식	
	상 차리는 방법	· 편한대로 차림 · 제사(추도예배)상을 차리지 않고 지냄 · 절에서 준비 · 선원에서 하는 대로	· 가문의 전통+ 책·매스컴에서 배운 대로 · 책·매스컴에서 배운대로	· 가문의 전통 대로	
	제사음식 비용 부담 방법	· 마련된 기금 이용	· 현금 상호부조 · 음식 상호부조 · 현금+음식 상호 부조 · 돌아가면서 부담	· 모두 제주 가정에서 부담	

5) 제례만족 척도

제례만족은 제례행례(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등)의 각 5개의 범주를 실제로 수행한 후 기혼남녀가 느끼는 만족정도 즉, 제례행례 후에 느끼는 기혼남녀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제례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이삼식 외(2000)의 연구와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제례만족은 제례행례의 각 5개의 범주, 즉 제사대상(3문항), 제사절차(6문항), 제사용품(2문항), 제사행위자(5문항), 제사음식(6문항) 등의 행례를 수행한 후에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제례만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각 하위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사대상은 봉사하는 대상·봉사대수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제사절차는 제사형식 및 제사날짜와 시간·기제사 절차·제사 지내는 방법·신위 모시는 방법·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제사용품은 제사지낼 때의 복장과 제사 시 쓰는 제사그릇을 포함하였고, 제사행위자는 제사지낼 때의 주관자와 제사절차에서 의례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준비과정까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의례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포함하였고, 제사음식은 제사음식의 준비 방법과 제사음식 종류·상 차리는 방법·제사음식 비용 부담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6)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위에서 살펴 본 조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후 본 조사에 사용되었고 본 조사 후 다음의 절차대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시 확인 후 최종 결과분석에 이용되었다.

1) 전공교수 4인, 박사과정 전공자 6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2)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계수

변 인		문 항 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가족 주의	가족주의	19	.88
제례 의식	제사인식	18	.89
	제사기능	7	.78
	전체	25	.92
제 례 만 족	제사대상	3	.79
	제사절차	7	.90
	제사용품	2	.85
	제사행위자	5	.65
	제사음식	6	.90
	전체	23	.96

5. 자료분석 방법

자료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

다.

3)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4) 연구문제 2부터 3의 분석을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 분석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VIF지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5)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 했을 때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가 제례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V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에 제시되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5.3%는 남자, 54.7%는 여자,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많은 편이다.

연령은 평균 혼인연령이 늦어져 2005년 인구 총 조사에 의하면 남자 31.2세, 여자 28.6세로 30세 전에 혼인한 기혼남녀가 20대(5.1%)와 30대(19.6%)를 합쳐서 24.7%였고, 40대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20·30대와 비슷한 26.1%, 60대 이상이 1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인의 종교는 불교가 34.1%로 가장 많은 편이었고, 무교 및 기타 종교(1.4%)를 함께 묶어서 27.9%, 기독교가 18.8%, 천주교가 12.9%, 유교는 6.4%⁷⁹⁾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⁸⁰⁾

형제(며느리)순위는 장남(큰며느리)이 314명으로 46.5%를 나타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둘째아들(둘째며느리)이 179명으로 26.5%였고, 셋째아들(셋째며느리)은 107명으로 15.9%, 기타는 75명으로 11.1%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졸이 28.0%, 대학원 이상은 15.7% , 초·중졸은 8.7%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가 고르게 분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학력으로 대졸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수준 상승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79) 조사대상자 중 유교비율이 통계청 종교별 유교 인구비율보다 높은 것은 성균관 유도회에 서 예절지도자 과정을 공부하는 대상을 설문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0) 2005(1999)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토대로 만든 ‘도표로 본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구 비율은 53.6%에 이르렀다. 비종교인 비율은 46.4%였다. 종교별 인구비율을 보면 불교가 26.3%로 가장 신도가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기독교가 18.6%였고 천주교가 7.0%였으며 유교가 0.7%, 기타 1.1% 등의 순 이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75)

변 인	구 분	빈도(%)
성별	남	306(45.3)
	여	369(54.7)
연령	20·30대	167(24.7)
	40대	235(34.8)
	50대	176(26.1)
	60대 이상	97(14.4)
종교	유교	43(6.4)
	기독교	127(18.8)
	카톨릭	87(12.9)
	불교	230(34.1)
	무교 및 기타 종교	188(27.9)
형제(며느리)순위	장남(큰며느리)	314(46.5)
	둘째아들(둘째며느리)	179(26.5)
	셋째아들(셋째며느리)	107(15.9)
	기타	75(11.1)
교육수준	초·중졸	59(8.7)
	고졸	189(28.0)
	대졸	321(47.6)
	대학원이상	106(15.7)
직업	전업주부·무직	163(24.1)
	단순노무직	35(5.2)
	농업·축산·수산업	31(4.6)
	판매·서비스직	81(12.0)
	사무직	134(19.9)
	전문관리직	231(34.2)
월평균 가계소득	149만원 미만	94(13.9)
	150만원-299만 미만	227(33.6)
	300만원-449만원 미만	201(29.8)
	450만원-599만원 미만	76(11.3)
	600만원 이상	77(11.4)
가족형태	핵가족	534(79.1)
	확대가족	95(14.1)
	그 외 가족	46(6.8)
출신지역	서울·경기	122(18.1)
	강원도	65(9.6)
	충청도	175(25.9)
	경상도	128(19.0)
	전라도	126(18.7)
	제주도	59(8.7)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34.2%로 가장 많으며 전업주부, 무직이 24.1%, 사무직이 19.9%, 판매·서비스직이 12.0%, 단순노무직이 5.2%, 농업·축산·수산업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란에 직접 기입한 응답자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에 해당되므로 전문관리직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직업 중 전문관리직이 많은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63.3%가 대졸이상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전업주부와 무직이 많은 이유는 조사대상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으며, 그 중 30대 여성은 육아문제로, 육아문제가 해결된 40대 이후에는 취업이 어려워 전업주부가 많았던 것 같다. 또한 남자의 경우 무직은 조기퇴직이 이유였던 것 같다.

월평균가계소득을 살펴보면 149만원 미만인 13.9%, 150만원 이상~299만원 미만이 33.6%, 300만원 이상~449만원 미만이 29.8%, 450만원이상~599만원 미만이 11.3%, 600만원 이상이 11.4%로 나타나, 평균 150만원 이상~ 299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⁸¹⁾

가족형태는 79.1%가 핵가족이었으며 확대가족의 경우는 14.1%였으며 그 외 가족[싱글가족, 1·3세대가족(할머니+손주)]은 6.8%이었다.

출신지역 분포는 서울·경기도 지역은 18.1%, 강원도는 9.6%, 충청도가 25.9%로 가장 많았다. 경상도는 19.0%·전라도는 18.7%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제주도는 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2.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의 일반적 특성

1) 가족주의

81) 2006년 연간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6만9천원(한국의 사회지표, 2006)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5점 만점에 평균 2.57점으로 가족주의를 지지하는 정도가 중간점수 이하로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옥선화, 1989; 양옥경, 2002) 보다는 약간 낮은 지지 정도를 보였지만, 10년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기혼남녀를 조사한 연구결과(옥선화, 1998; 이수연, 1999)는 가족주의에 대한 비슷

<표6>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의 일반적 특성

(N = 675)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가족주의	가족주의	2.57	.53
제례의식	제사인식	3.00	.53
	제사기능	3.28	.58
	전 체	3.08	.52
제례행례	제사대상	2.01	.28
	제사절차	2.53	.34
	제사용품	2.09	.57
	제사행위자	2.82	.45
	제사음식	2.48	.42
	전체	2.31	.27
제례만족	제사대상	3.60	.62
	제사절차	3.57	.59
	제사용품	3.56	.62
	제사행위자	3.65	.63
	제사음식	3.43	.67
	전 체	3.55	.56

- ※ · 가족주의 : 5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음)
- 제례의식 : 5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지향적)
- 제례행례 : 3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지향적)
- 제례만족 : 5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한 지지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여 가족에 대한 지지 정도가 점점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2) 제례의식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기혼남녀의 전체 제례의식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8점인 중간점으로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의식과 변화지향적 의식 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지향적인 제례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제사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00점으로 중간점을 나타내 중도지향적 제사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제례의식(김인옥, 2003)과 주부들의 제례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난 박수정(1989), 김인옥(1997)의 연구결과와 주부들의 제례의식이 근대적으로 나타난 박인덕(1979), 김명나(1989), 이정우·김명나(1993), 이정우·김연화(1999)의 연구결과의 중간정도인 중도지향적인 의식을 보이고 있다. 제사기능은 평균 3.28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여 다소 전통지향적인 의식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인옥(1997)의 제사기능 연구에서는 3.40점으로 전통지향적 기능의식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제사인식은 전통지향적인 인식에서 변화지향적인 인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중도지향적인 제사인식을 나타내었고, 제사기능은 전통적인 제례규범에 대한 기능의식이 일부 반영되고 있어 전통지향적인 제사기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례행례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기혼남녀의 경우 전체 제례행례의 평균은 3점 만점에 2.31로 전통지향적인 제례행례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례수행이 전통적으로 나타난 박수정(1989), 김인옥(1997), 이정우·김연화(1999)의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와는 일치 되었으나 주부의 제례에 대한 행례를 근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낸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제사대상의 평균은 2.01점, 제사절차의 평균은 2.53, 제사용품의 평균은 2.09점, 제사행위자의 평균은 2.82점, 제사음식의 평균은 2.48점으로 전 영역에서 모두 중간점 이상으로 전통지향적인 제례행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사에 대한 의식이 제사에 대한 행동보다 전통적이라는 김명나(1989)의 연구와는 상반되었으나 제사에 대한 의식이 행동보다 근대적이라는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게 나타났다. 이는 제례의식은 아직까지 중도지향적인 제례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제례행례에서는 편의 위주보다 전통지향적으로 행례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제례만족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기혼남녀의 전체 제례만족이 평균은 5점 만점에 3.55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위하여 제례에 대해 다소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삼식 외(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주부의 제사만족이 중간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제사대상에 대한 만족의 평균은 3.60점,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의 평균은 3.57점, 제사용품에 대한 만족의 평균은 3.56점,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의 평균은 3.65점,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의 평균은 3.43점으로 전 영역에서 모두 중감점 이상으로 나타나 제례에 대하여 약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지지 정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례에 대한 의식은 중도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례행례는 약간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례만족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1)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주의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7>과 같다.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0.2%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 남자($\beta=.19$)가, 연령($\beta=.24$)이 높을수록, 무교·기타종교인보다 유교인($\beta=.09$)과 불교인($\beta=.14$)인 경우, 서울·경기도보다는 충청도($\beta=.12$)·경상도($\beta=.11$) 및 (전라도 $\beta=.10$)가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beta=-.11$)은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보다 남자가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이은경,

1999; 최정혜, 1997, 1998)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여자보다 남자가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은 이유는 가계계승이라는 뿌리개념과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가족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교·기타 중

<표 7>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주의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성별(기준:여자)		3.83	.19***
연령		.22	.24***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3.50	.09*
	기독교	-	-
	천주교	-	-
	불교	2.88	.14**
형제(며느리)순위 (기준:차남이하)	첫째	-	-
교육수준(고졸이하)	대졸	- 2.21	-.11*
직업 (기준:전업주부·무직)	단순노무직	-	-
	농·축산·수산업 판매·서비스직	-	-
	사무직	-	-
	전문관리직	-	-
월평균 가계소득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가족	-	-
출신지역 (기준:서울·경기)	강원도	-	-
	충청	2.83	.12*
	경상도	2.88	.11*
	전라도	2.47	.10*
제주도		-	-
상 수		37.00	
R ²		.202	
F ratio		8.81***	

교인 보다 유교인과 불교인이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유교나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전통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에 포함된 부계가문의 영속화에 대한 의식에서 불교인과 유교인 집단이 기독교인 집단보다 더욱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옥선화, 1989; 김송애·조병은, 1991; 이동원·함인희, 1992; 한은주·김태현, 1994)와 일치한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보수적이면서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았을 때 대체로 가족주의에 대한 의식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불교인과 유교인인 경우,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이하가, 서울·경기도 보다 충청도·경상도·전라도가 지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보다 남자가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더 높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남성들의 배워온 교육과 생활방식, 사회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향후 점점 더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2)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8>과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에서 전체 제례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종교,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8.4%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제례의식은 연령($\beta=.17$)이 높을수록,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유교인($\beta=.13$)과 불교인($\beta=.24$)인 경우,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 전라도($\beta=.11$)인 경우 제례의식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beta=-.14$)인 경우는 제례의식이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교가 타종교 집단에

<표 8>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의식					
				제사인식		제사기능		전체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	-	-	-	-	-
연령				.01	.17***	.01	.15***	.01	.17***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31	.14***	-	-	.27	.13**
	기독교			-.18	-.13**	-.16	-.11*	-.18	-.14**
	천주교			-	-	-	-	-	-
	불교			.26	.23***	.26	.21***	.27	.24***
형제(며느리 순위(기준:차 남이하))	첫째			-	-	-	-	-	-
				-	-	-	-	-	-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	-	-	-	-	-
	농·축산·수산업			-	-	-	-	-	-
	판매·서비스직			-	-	-	-	-	-
	사무직 전문관리직			-	-	-	-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			-	-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 경기)	강원도			-	-	-	-	-	-
	충청도			-	-	-	-	-	-
	경상도			-	-	.16	.10*	-	-
	전라도			-	-	.26	.17***	.14	.11*
	제주도			-	-	-	-	-	-
상수				2.49		2.63		2.53	
R ²				.184		.137		.184	
F ratio				7.79***		5.66***		7.69***	

비해 제례의식이 전통적이라는 김명나(1989), 손유미(1990),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제례에 대한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종교로 나타나 종교가 기독교 일 때 제례의식이 근대적이라는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의 하위변인인 제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연령, 종교 변인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18.4%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연령($\beta=.17$)이 높을수록,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유교인($\beta=.14$)과 불교인($\beta=.23$)인 경우 제사인식에 대한 의식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가 무교·기타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13$)인 경우는 제사인식에 대한 의식이 더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사인식에 종교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종교 교리에 따른 의례에 대한 의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의 하위변인인 제사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는 연령, 종교, 출신지역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3.7%이다. 즉 조사대상자의 연령($\beta=.15$)이 높을수록,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불교인($\beta=.21$)인 경우, 출신지역에서는 서울·경기도보다는 경상도($\beta=.10$)나 전라도($\beta=.17$)가 제사기능에 대한 의식이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가 무교·기타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11$)인 경우는 제사기능에 대한 의식이 근대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불교인이나 경상도·전라도가 제사기능에 대한 의식이 보다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규범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김인옥, 2003)에서 제사기능을 보면 대학생의 학년, 본인과 가족의 종교,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 출생순위, 가족형태는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기혼남녀가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이라는 것은 불교나 천주교, 무교·기타 종교인 경우 어느 정도 유교식 전통의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제례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연령, 종교, 출신지역으로 나타나 직업 유무관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9>와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에서 전체 제례행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종교, 직업,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9.4%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유교인 ($\beta=.10$)인 경우, 직업 중에는 전업주부·무직보다 전문관리직($\beta=.10$)인 경우, 출신지역에서는 서울·경기도 보다는 충청도($\beta=.10$)·경상도($\beta=.15$)인 경우가 제례행례에 대한 수행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보다는 남자($\beta=-.09$)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기독교인($\beta=-.45$)·천주교($\beta=-.09$)인 경우는 제례행례에 대한 수행을 변화지향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교인·유교인 주부가 기독교인 주부보다 제례에서 더욱 전통적인 행동을 보인 선행연구(박수정, 1989; 김명나, 1989; 김연화,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제사에 대한 행동은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종교, 출신지역 변인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6.9%이다. 즉

<표 9>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종속변인		제례행례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전체	
독립변인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	-	-	-	-	-	-	-	-.07	-.08*	-.58	-.09*
연령		-	-	-	-	-	-	-	-	-	-	-	-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	-	.80	.08*	.27	.11**	-	-	-	-	1.27	.10**
	기독교	.07	.10*	-2.63	-.43**	-.45	-.31**	-.17	-.15**	-.45	-.41**	-3.57	-.45**
	천주교	-	-	-	-	-	-	-	-	-	-	-.81	-.09*
	불교	-	-	-	-	.11	.09*	-	-	-	-	-	-
형제(며느리) 순위(기준: 차남이하)	첫째		-	-	-	-	.12	.13***	.08	.10**	-	-	
교육수준(고졸이하)		-	-	-	-	-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	-	-	-	-	-	-	-	-	-	-	
	농·축·수산 판매서비스	-	-	-	-	-	-	-	-	-	-	-	
	사무직 전문관리직	-	-	-	-	-	-	-	-	.09	.10*	.63	.10*
월평균 가계소득		-	-	-	-	-	-	-	-	-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가족		-	-	-	-	-.14	-.10**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 경기)	강원도	-	-	-	-	-	-	-	-	.15	.10*	-	-
	충청도	-	-	.57	.11*	-	-	-	-	.10	.10*	.72	.10*
	경상도	-	-	.80	.13**	.19	.13**	-	-	.16	.15***	1.15	.15***
	전라도	-	-	-	-	-	-	-	-	-	-	-	-
	제주도	.20	.20**	-	-	-	-	-.29	-.18**	.24	.16***	-	-
상 수		2.01		13.65		1.93		2.76		2.31		22.46	
R ²		.069		.237		.200		.095		.231		.294	
F ratio		2.67***		12.09***		9.11***		3.79***		10.94***		14.27***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 ($\beta=.10$)인 경우,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는 제주도($\beta=.20$)가 제사대상에 대한 수행이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종교, 출신지역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23.7%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 중에서 무교·기타 종교인 보다는 유교인($\beta=.08$)인 경우, 출신지역에서 서울·경기도보다는 충청도($\beta=.11$)와 경상도($\beta=.13$)의 경우가 제사절차에 대한 행례를 더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beta=-.43$)인 경우는 제사절차에 대한 행례를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용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종교,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0.0%이다. 즉 조사대상자 중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1$)과 불교인($\beta=.09$)인 경우, 출신지역에서 서울·경기도보다 경상도($\beta=.13$)인 경우는 제사용품 이용에 대한 행례가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가 무교·기타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31$)인 경우는 제사용품에 대한 행례를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행위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종교, 형제(며느리)순위, 가족형태,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8.0%이다. 즉 조사대상자 중 형제(며느리)순위가 차남이하보다 첫째($\beta=.13$)인 경우는 제사행위자에 대한 수행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기독교($\beta=-.15$)인 경우, 가족형태가 비확대 가족보다는 확대가족($\beta=-.10$)인 경우,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는 제주도($\beta=-.18$)인 경우는 제사행위자에 대한 수행이 더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형제(며느리)순위, 직업,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3.1%이다. 즉 조사대상자 중 차남이하 보다는 첫째 ($\beta=.10$)인 경우, 직업 중에는 전업주부·무직보다 전문관리직($\beta=.10$)인 경우, 출신지역에서 서울·경기도 보다는 강원도($\beta=.10$)·충청도($\beta=.10$)·경상도($\beta=.15$) 및 제주도($\beta=.16$)인 경우는 제사음식에 대한 수행이 전통지향적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보다 남자($\beta=-.08$)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기독교($\beta=-.41$)인 경우는 제사음식에 대한 수행이 더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제례행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형제(며느리)순위와 출신지역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유의도는 제례행례의 차이점 때문이며, 서울·경기도지역 외의 지역은 아직까지 지방색이 남아 있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출생순위에서 첫째인 경우는 조상에 대한 봉제사에 대한 전통지향적인 의식이 여전히 높아(임옥재, 1981; 박수정, 1989; 김인옥, 1997; 이정우·김연화, 1999) 제례행례도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10>과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서 전체 제례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2%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는 남자($\beta=.10$)가, 연령($\beta=.12$)이 높을수록

<표 10>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만족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12	.10*	-	-	.13	.12*	-	-	-	-	.11	.10*		
연령		.01	.11*	.01	.13**	.01	.12**	.01	.10*	.01	.10*	.01	.12**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	-	-	-	-.28	-.11**	-	-	-	-	-	-		
	기독교	-	-	-	-	-	-	-	-	-	-	-	-		
	천주교	-	-	-	-	-	-	-	-	-	-	-	-		
	불교	.13	.10*	-	-	-	-	-	-	-	-	-	-		
형제(며느리) 순위(기준: 차남이하)	첫째		-	-	-	-	-	-	-	-	-	-			
교육수준(고졸이하)		-	-	-	-	-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22	-.10*	-	-	-.22	-.10*	-.22	-.10*	-	-	-	-		
	농·축·수산	-	-	-	-	-	-	-	-	-	-	-	-		
	판매서비스	-	-	-	-	-	-	-	-	-	-	-	-		
	사무직 전문관리직	-	-	-	-	-	-	-	-	-	-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	.05	.09*	-	-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가족		-	-	-	-	-	-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경 기)	강원도	-	-	-	-	-	-	-.20	-.10*	-	-	-	-		
	충청도	-	-	-	-	-	-	-	-	-	-	-	-		
	경상도	-	-	-	-	-	-	-	-	-	-	-	-		
	전라도	-	-	-	-	-	-	-	-	-	-	-	-		
	제주도	-	-	-.21	-.10*	-	-	-.26	-.11*	-	-	-	-		
상 수		3.15		3.23		3.13		3.31		3.15		3.20			
R ²		.057		.064		.066		.065		.014		.062			
F ratio		2.21**		2.48***		2.57***		2.54***		1.52		2.41***			

제례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가족형태가 제례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만 제례만족에 가장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즉 핵가족보다 대가족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학력에 따른 가정의례에 대한 만족도는 대졸이상 집단이 가장 높으며, 고졸이하, 전문대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주부의 높은 학력이 가정의례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종교, 직업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7%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 남자($\beta=.10$)인 경우, 연령($\beta=.11$)이 높을수록,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불교인($\beta=.10$)인 경우 제사대상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0$)의 경우는 제사대상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출신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4%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연령($\beta=.13$)이 높을수록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경기도보다는 제주도($\beta=-.10$)가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용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

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종교, 직업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6%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는 남자($\beta=.12$)가, 연령($\beta=.12$)이 높을수록 제사용품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유교($\beta=-.11$)인 경우,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0$)종사자인 경우는 제사용품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행위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5%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연령($\beta=.10$)이 높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beta=.9$)이 높을수록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0$)종사자인 경우, 서울·경기도보다 강원도($\beta=-.10$)와 제주도($\beta=-.11$)인 경우는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변인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4%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연령($\beta=.10$)이 높을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종교 중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불교신자가 기독교 신자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속성이 강하여 전통적인 행사인 제례에 대한 만족이 높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제례 만족이 높은 이유는 제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며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전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한 제례 부담이 저연령층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전업주부·무직 종사자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 종사자가 제례만족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단순노무직·농·

축·수산업 종사자가 직업 속성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제례에 대한 부담이 전업주부·무직종사자 보다 많기 때문에 사료된다. 이상의 분석결과 기혼남녀의 제례에 대한 만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1)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11>과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에서 전체 제례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 월평균가계소득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6.3%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종교인보다는 유교인($\beta=.06$)과 불교인($\beta=.15$)인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beta=.07$)이 높을수록, 또한 가족주의($\beta=.70$)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의식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보다는 남자($\beta=-.06$)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기독교($\beta=-.11$)인 경우 제례의식이 더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의 하위변인인 제사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와 가족주의변인으로 나타나, 이들의 설명력은 57.8%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유

<표 11>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의식					
				제사인식		제사기능		전체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07	-.07*	-	-	-.07	-.06*		
연령		-	-	-	-	-	-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17	.08*	-	-	.13	.06*		
	기독교	-.15	-.11***	-	-	-.14	-.11***		
	천주교	-	-	-	-	-	-		
	불교	.15	.14***	.18	.14***	.16	.15***		
형제(며느리 순위(기준:차 남이하))	첫째	-	-	-	-	-	-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	-	-	-	-	-		
	농·축산·수산업	-	-	-	-	-	-		
	판매·서비스직	-	-	-	-	-	-		
	사무직 전문관리직	-	-	-	-	-	-		
월평균 가계소득		-	-	.05	.10**	.03	.07*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	-	-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 경기)	강원도	-	-	-	-	-	-		
	충청도	-	-	-	-	-	-		
	경상도	-	-	-	-	-	-		
	전라도	-	-	.20	.13**	-	-		
	제주도	-	-	-	-	-	-		
가족주의		.04	.71***	.03	.51***	.04	.70***		
상수		1.11		1.51		1.20			
R ²		.578		.344		.563			
F ratio		43.03***		16.92***		39.94***			

교인($\beta=.08$)과 불교인($\beta=.14$)인 경우, 또한 가족주의($\beta=.71$)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인식에 대한 의식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11$)인 경우, 여자보다 남자($\beta=-.07$)는 제사인식에 대한 의식이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의 하위변인인 제사기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월평균가계소득, 출신지역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4.4%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불교인($\beta=.14$)인 경우, 월평균가계소득($\beta=.10$)이 높을수록,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 전라도($\beta=.13$)가, 가족주의($\beta=.51$)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기능에 대한 의식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례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종교, 월평균가계소득, 가족주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주의 가치와 제례의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지지 정도에 따라 제례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강조로 기존의 도덕관이나 사고방식의 변화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태도나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근원인 조상을 섬기는 제례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작용하므로,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기혼남녀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2)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12>와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에서 전체 제례행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 출신지역과 가족주의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0.8%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 보다는 유교인($\beta=.08$)인 경우, 출신지역에서는 서울·경기도보다 경상도($\beta=.14$)인 경우, 또한 가족주의($\beta=.11$)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행례에 대한 수행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보다는 남자($\beta=-.11$)가, 종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beta=-.45$)·천주교인($\beta=-.08$)인 경우, 또한 가족주의($\beta=.11$)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행례에 대한 수행이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7.3%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11$)인 경우, 서울·경기도보다는 제주도($\beta=.19$)가 제사대상에 대한 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 출신지역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6.7%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출신지역에서 서울·경기도 보다는 경상도($\beta=.13$)가, 또한 가족주의($\beta=.09$)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절차에 대한 행례를 더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보다는 남자($\beta=-.09$)가,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43$)인 경우 제사절차에 대한 행례를 더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용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 출신지역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7%이다. 즉 조사대상자 중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유교인($\beta=.09$)인 경우, 출신지역에서는 서울·경기도보다 경상도

<표 12>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종속변인		제례행례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전체	
독립변인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	-	-.45	-.09*	-.11	-.10*	-	-	-.09	-.10*	-.69	-.11**
연령		-	-	-	-	-	-	-	-	-	-	-	-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	-	-	-	.21	.09*	-	-	-	-	1.08	.08*
	기독교	.08	.11*	-2.64	-.43***	-.45	-.30***	-.19	-.16***	-.45	-.41***	-3.59	-.45***
	천주교	-	-	-	-	-	-	-	-	-	-	-.78	-.08*
	불교	-	-	-	-	-	-	-	-	-	-	-	-
형제(며느리) 순위(기준:차 남이하)	첫째	-	-	-	-	-	-	.12	.13***	.10	.11**	-	-
교육수준(고졸이하)		-	-	-	-	-	-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	-	-	-	-	-	-	-	-	-	-	-
	농·축·수산 판매서비스	-	-	-	-	-	-	-	-	-	-	-	-
	사무직	-	-	-	-	-	-	-	-	-	-	-	-
	전문관리직	-	-	-	-	-	-	-	-	.09	.10*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	-	-	-	-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가족	-	-	-	-	-	-	-.14	-.11**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 경기)	강원도	-	-	-	-	-	-	-	-	.13	.09*	-	-
	충청도	-	-	-	-	-	-	-	-	-	-	-	-
	경상도	-	-	.77	.13**	.17	.12*	-	-	.15	.13**	1.09	.14**
	전라도	-	-	-	-	-	-	-	-	-	-	-	-
	제주도	.19	.19***	-	-	-	-	-.29	-.18***	.22	.15***	-	-
가족주의		-	-	.02	.09*	.01	.16***	-	-	-	-	.03	.11**
상수		2.05		12.69		1.53		2.70		2.20		20.97	
R ²		.073		.267		.227		.101		.238		.308	
F ratio		2.57***		11.53***		9.63***		3.68***		10.30***		1.83***	

($\beta=.12$)인 경우, 또한 가족주의($\beta=.16$)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용품에 대한 행태를 더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보다는 남자($\beta=-.10$)가,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30$)인 경우는 제사용품에 대한 행태가 더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태의 하위변인인 제사행위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형제(며느리)순위, 가족형태,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0.1%이다. 즉 조사대상자가 차남이하보다 첫째($\beta=.13$)인 경우에 제사행위자에 대한 행태가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beta=-.16$)인 경우, 비확대가족보다 확대가족($\beta=-.11$)인 경우,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 제주도($\beta=-.18$)인 경우는 제사행위자에 대한 행태를 더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태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 형제(며느리)순위, 직업,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3.8%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차남이하보다는 첫째($\beta=.11$)가, 직업 중 전업주부·무직보다 전문 관리직($\beta=.10$)인 경우, 출신지역에서 서울·경기도보다는 강원도($\beta=.09$)·경상도($\beta=.13$) 및 제주도($\beta=.15$)인 경우 제사음식에 대한 행태를 더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보다는 남자($\beta=-.10$)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41$)인 경우는 제사음식에 대한 행태를 더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례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 출신지역, 성별, 가족주의 변인으로, 이는 가족주의가 제사절차·제사용품 및 전체 제례행태와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을 의미하며 제사라는 것이 자손이 있어 효를 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공경의식·가족우선성 및 가문의 지속 같은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에 대한 모든 절차와 제사용품인 제사복식이나 제사그릇을 우리 고유의 복식인 제례복이나 한복을 입고 별도로 마련된 제기를 쓰는 등 제례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13>과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서 전체 제례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직업, 월평균가계소득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3.1%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월평균가계소득($\beta=.10$)이 높을수록, 가족주의($\beta=.28$)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1$)인 경우,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1$)인 경우는 제례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직업, 월평균가계소득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2.6%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월평균가계소득($\beta=.10$)이 높을수록, 가족주의($\beta=.28$)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대상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업주부·무직 종사자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2$)종사자의 경우는 제사대상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

<표 1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만족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	-	-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	-	-.23	-.09*	-.36	-.14***	-	-	-.28	-.10*	-.25	-.11**	-	-
	기독교	-	-	-	-	-	-	-	-	-	-	-	-	-	-
	천주교	-	-	-	-	-	-	-	-	-	-	-	-	-	-
	불교	-	-	-	-	-	-	-	-	-	-	-	-	-	-
형제(며느리) 순위 (기준:첫째)	첫째	-	-	-	-	-	-	-	-	-	-	-	-	-	-
교육수준(고졸이하)		-	-	-	-	-	-	-	-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27	-.12**	-	-	-.26	-.12**	-.25	-.11*	-	-	-.22	-.11*	-	-
	농·축·수산 판매서비스	-	-	-	-	-	-	-	-	-	-	-	-	-	-
	사무직	-	-	-	-	-	-	-	-	-	-	-	-	-	-
	전문관리직	-	-	-	-	-	-	-	-	-	-	-	-	-	-
월평균 가계소득		.06	.10*	.04	.08*	.06	.11**	.06	.11*	-	-	.05	.10*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가족	-	-	-	-	-	-	-	-	-.16	-.08*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 경기)	강원도	-	-	-	-	-	-	-.20	-.09*	-	-	-	-	-	-
	충청도	-	-	-	-	-	-	-	-	-	-	-	-	-	-
	경상도	-	-	-	-	-	-	-	-	-	-	-	-	-	-
	전라도	-	-	-	-	-	-	-	-	-	-	-	-	-	-
	제주도	-	-	-.19	-.09*	-	-	-.24	-.11*	-	-	-	-	-	-
가족주의		.02	.28***	.02	.27***	.02	.27***	.01	.13**	.02	.24***	.02	.28***	-	-
상 수		2.49		2.61		2.46		3.00		2.53		2.59			
R ²		.126		.126		.134		.082		.088		.131			
F ratio		4.76***		4.75***		5.09***		2.94***		3.16***		4.96***			

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월평균가계소득, 출신지역과 가족주의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2.6%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월평균가계소득($\beta=.08$)이 높을수록, 가족주의($\beta=.27$)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09$)인 경우, 서울·경기도보다는 제주도($\beta=-.09$)의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용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직업, 월평균가계소득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3.4%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월평균가계소득($\beta=.11$) 높을수록, 또한 가족주의($\beta=.27$)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용품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는 무교·기타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4$)인 경우,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2$) 종사자의 경우는 제사용품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행위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출신지역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8.2%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월평균가계소득($\beta=.11$)이 높을수록, 가족주의($\beta=.13$)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이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1$)종사자의 경우와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 강원도($\beta=-.09$)와 제주도($\beta=-.11$)인 경우는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가족형태와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8.8%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가족주의($\beta=.24$)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0$)인 경우, 비확대가족보다 확대가족($\beta=-.08$)인 경우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례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가족주의 변인으로 특히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라 제사대상·제사절차·제사용품·제사행위자·제사음식 및 전체 제례만족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 경제적 유대의식과 가족을 우선시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의식과 부계로 가문이 영속되기를 바라는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 사람은 오늘날 제사가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해지고 소박한 잔치를 통해 친지의 정을 나누며, 결속을 다지는 등 친목도모 하는 기능이 높기 때문에 제례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수인 가족주의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영향력의 크기 또한 다른 통제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컸다. 더불어 가족주의가 독립변수로 첨가 되었을 때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과 유의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제례의식에서는 연령과 출신지역은 제례의식에 유의한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나 성별과 월평균가계소득은 제례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제례행례에서 직업과 출신지역은 유의한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나 추가된 변인은 없었다. 그리고 제례만족에서 성별과 연령은 유의한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나 종교, 직업, 월평균가계소득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가 되었다.

5.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행례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1)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행례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14>와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에서 전체 제례행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 출신지역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0.9%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 보다는 유교인($\beta=.09$)인 경우, 출신지역에서 서울·경기도 보다는 경상도($\beta=.14$)가, 또한 가족주의($\beta=.14$)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행례에 대한 수행이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보다는 남자($\beta=-.11$)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기독교($\beta=-.45$)·천주교($\beta=-.08$)인 경우 제례행례에 대한 수행이 더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7.6%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10$)인 경우, 서울·경기도보다는 제주도($\beta=.19$)가 제사대상에 대한 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의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 출신지역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7.2%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서울·경기도 보다는

<표 14>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행태에 미치는 영향력 (N=675)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행태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	-	-	-.48	-.10*	-.11	-.09*	-	-	-.09	-.10*	-.71	-.11**	
연령		-	-	-	-	-	-	-	-	-	-	-	-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	-	-	-	-	-	-	-	-	-	-	1.13	.09*	
	기독교	.07	.10*	-2.64	-.43***	-.41	-.28***	-.18	-.15**	-.45	-.42***	-3.55	-.45***		
	천주교	-	-	-	-	-	-	-	-	-	-	-	-.79	-.08*	
	불교	-	-	-	-	-	-	-	-	-	-	-	-	-	
형제(며느리) 순위(기준: 차남이하)	첫째	-	-	-	-	-	-	.11	.12**	.09	.11**	-	-		
교육수준(고졸이하)		-	-	-	-	-	-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	-	-	-	-	-	.17	.10*	-	-	-	-		
	농·축·수산	-	-	-	-	-	-	-	-	-	-	-	-		
	판매서비스	-	-	-	-	-	-	-	-	-	-	-	-		
	사무직 전문관리직	-	-	-	-	-	-	-	-	-	-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	-	-	-	-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가족	-	-	-	-	-	-	-.14	-.11*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 경기)	강원도	-	-	-	-	-	-	-	-	.12	.09*	-	-		
	충청도	-	-	-	-	-	-	-	-	-	-	-	-		
	경상도	-	-	.80	.13**	-	-	-	-	.14	.13**	1.07	.14**		
	전라도	-	-	-	-	-	-	-	-	-	-	-	-		
	제주도	.19	.19***	-	-	-	-	-.25	-.16**	.23	.15***	-	-		
가족주의		-	-	.03	.11*	.01	.15**	-	-	.01	.14*	.04	.14*		
제례의식		-	-	-	-	-	-	-	-	-.09	-.11*	-	-		
상수		2.08		12.62		1.48		2.62		2.32		20.93			
R ²		.076		.272		.222		.094		.244		.309			
F ratio		2.38***		10.51***		8.37***		3.03***		9.49***		12.38***			

경상도($\beta=.13$)인 경우, 또한 가족주의($\beta=.11$)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절차에 대한 행태가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보다 남자($\beta=-.10$)가,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43$)인 경우는 제사절차에 대한 행태를 더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태의 하위변인인 제사용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와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2%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가족주의($\beta=.15$)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용품에 대한 행태가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보다는 남자($\beta=-.09$)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28$)인 경우는 제사용품에 대한 행태를 더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태의 하위변인인 제사행위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형제(며느리)순위, 직업, 가족형태, 출신지역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9.4%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형제(며느리)순위가 차남이하 보다 첫째($\beta=.12$)인 경우, 직업이 전업주부·무직보다는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0$) 종사자인 경우 제사행위자에 대한 행태가 더 전통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beta=-.15$)인 경우, 가족형태가 비확대가족보다 확대가족($\beta=-.11$)인 경우,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는 제주도($\beta=-.16$)인 경우는 제사행위자에 대한 행태가 더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행태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종교, 형제(며느리)순위, 출신지역과 가족주의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4.4%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차남이하 보다는 첫째($\beta=.11$)가,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는 강원도

($\beta=.09$)·경상도($\beta=.13$)와 제주도($\beta=.15$)인 경우, 또한 가족주의($\beta=.14$)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행태가 더 전통지향적으로 나타났다으나, 여자보다는 남자($\beta=-.10$)가,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beta=-.42$)인 경우, 제례의식($\beta=-.11$)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행태를 더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제례행태와 제례행태 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 출신지역, 성별, 형제순위, 직업, 가족형태, 가족주의, 제례의식이었다. 특히 가족주의, 제례의식과 같이 관념적인 요인들이 실제 제례행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점은 제례행태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이라도 제사음식에 대한 행태를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즉 의식은 전통지향적이어도 제사음식은 변화지향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조상의 사후에도 효를 행하는 제례에 대한 의식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우나, 번거롭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신세대 속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한 시간부족, 제례의 간소화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제사음식에 대한 행태는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제례행동도 근대적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이길표, 1983; 박수정, 1989; 김명나,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이정우·김연화; 1999)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2)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15>와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서 전체 제례만족에 유의하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직업과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6%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47$)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4$)인 경우, 직업이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09$)종사자는 제례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직업과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3.2%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50$)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대상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08$)인 경우, 직업이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0$)종사자의 경우는 제사대상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3.0%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49$)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3$)·천주교인($\beta=-.09$)인 경우는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용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직업과 제례의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0.2%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41$)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용품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8$)인 경우, 직업 중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0$)종사자인 경우는 제사용품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 및 제례의식이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종속변인		제례만족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전체	
독립변인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20	-.08*	-.31	-.13**	-.45	-.18***	-.23	-.09*	-.36	-.13**	-.33	-.14***
	기독교	-	-	-	-	-	-	-	-	-	-	-	-
	천주교	-	-	-.16	-.09*	-	-	-	-	-	-	-	-
	불교	-	-	-	-	-	-	-	-	-	-	-	-
형제(며느리) 순위(기준: 차남이하)	첫째	-	-	-	-	-	-	-	-	-	-	-	-
교육수준(고졸이하)		-	-	-	-	-	-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23	-.10*	-	-	-.23	-.10*	-.24	-.10*	-	-	-.18	-.09*
	농·축·수산	-	-	-	-	-	-	-	-	-	-	-	-
	판매서비스	-	-	-	-	-	-	-	-	-	-	-	-
	사무직 전문관리직	-	-	-	-	-	-	-	-	-	-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	-	-	-	-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가족	-	-	-	-	-	-	-	-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 경기도)	강원도	-	-	-	-	-	-	-.21	-.10*	-	-	-	-
	충청도	-	-	-	-	-	-	-	-	-	-	-	-
	경상도	-	-	-	-	-	-	-	-	-	-	-	-
	전라도	-	-	-	-	-	-	-	-	-	-	-	-
	제주도	-	-	-	-	-	-	-.23	-.10*	-	-	-	-
가족주의		-	-	-	-	-	-	-	-	-	-	-	-
제례의식		.59	.50***	.56	.49***	.49	.41***	.35	.29***	.50	.38***	.51	.47***
상수		1.80		1.94		1.90		2.60		1.93		1.99	
R ²		.232		.230		.202		.119		.149		.226	
F ratio		8.85***		8.77***		7.43***		3.95***		5.12***		8.57***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행위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직업, 출신지역과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1.9%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29$)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유교($\beta=-.09$)인 경우, 직업 중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0$)종사자인 경우,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 강원도($\beta=-.10$)와 제주도($\beta=-.10$)인 경우는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4.9%이다. 즉 조사대상자가 제례의식($\beta=.38$)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3$)인 경우는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례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 직업, 제례의식 변인으로 제례에 대한 의식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례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녀가 제례의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제례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제례만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정우·김명나, 1993)와 일치된 결과이다.

종합적으로 제례행태와 제례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로 가족주의에 제례의식이 추가 되었을 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례행태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축소나 추가 없이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제례만족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 월평균가계소득의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종교, 직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제례의식의 추가가 가족주의 변인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주의가 제

례만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6.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제례의식 및 제례행태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1)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제례의식 및 제례행태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제례의식 및 제례행태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16>과 같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서 전체 제례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4.2%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52$)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례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가 무교·기타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4$)과 천주교($\beta=-.11$)인 경우는 제례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5.5%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50$)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대상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4.7%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53$)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

<표 16>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주의·제례의식 및 제례행례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N = 675)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만족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기준:여자)		-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유교	-	-	-.32	-.13**	-.41	-.16***	-.27	-.10*	-.34	-.12**	-.32	-.14***		
	기독교	-	-	-	-	-	-	-	-	-	-	-	-		
	천주교	-	-	-.22	-.13**	-	-	-.22	-.12*	-.19	-.09*	-.18	-.11*		
	불교	-	-	-	-	-	-	-	-	-	-	-	-		
형제(며느리) 순위 (기준:첫째)	첫째		-	-	-	-	-	-	-	-	-	-			
교육수준(고졸이하)		-	-	-	-	-	-	-	-	-	-	-	-		
직업 (기준:전업 주부·무직)	단순노무직	-	-	-	-	-.25	-.11*	-.23	-.10*	-	-	-	-		
	농·축·수산 판매서비스	-	-	-	-	-	-	-	-	-	-	-	-		
	사무직	-	-	-	-	-	-	-	-	-	-	-	-		
	전문관리직	-	-	-	-	-	-	-	-	-	-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	.05	.10*	-	-	-	-		
가족형태 (기준:비확대)	확대가족		-	-	-	-	-	-	-	-	-	-			
출신지역 (기준:서울· 경기)	강원도	-	-	-	-	-	-	-	-	-	-	-	-		
	충청도	-	-	-	-	.16	.11*	-	-	-	-	-	-		
	경상도	-	-	-	-	-	-	-	-	-	-	-	-		
	전라도	-	-	-	-	-	-	-	-	-	-	-	-		
	제주도	-	-	-	-	-	-	-.23	-.10*	-	-	-	-		
가족주의		-	-	-	-	-	-	-	-	-	-	-	-		
제례의식		.65	.55***	.61	.53***	.53	.45***	.39	.32***	.54	.41***	.56	.52***		
제례행례		-	-	-	-	-	-	-	-	-.02	-.11*	-	-		
상수		1.99		2.14		2.10		2.50		2.36		2.20			
R ²		.255		.247		.213		.129		.163		.242			
F ratio		8.98***		8.63***		7.10***		3.89***		5.12***		8.38***			

보다 유교인($\beta=-.13$)과 천주교인($\beta=-.13$)인 경우는 제사절차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용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직업, 출신지역과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1.3%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출신지역에서 서울·경기도보다 충청도($\beta=.11$)인 경우, 또한 제례의식($\beta=.45$)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용품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beta=-.16$)인 경우, 직업 중 전업주부·무직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1$) 종사자는 제사용품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행위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출신지역과 제례의식 변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2.9%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월평균가계소득($\beta=.10$)이 높을수록, 또한 제례의식($\beta=.32$)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beta=-.10$)와 천주교($\beta=-.12$)인 경우, 직업이 전업주부·무직 종사자보다 단순노무직·농·축·수산업($\beta=-.10$) 종사자인 경우, 출신지역이 서울·경기도보다 제주도($\beta=-.10$)인 경우는 제사행위자에 대한 만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의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변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6.3%이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beta=.41$)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beta=-.12$)와 천주교인($\beta=-.09$)인 경우, 또한 제례행례($\beta=-.11$)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 할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제례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 제례의식, 제례행례 변인으로 제례에 대한 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할 때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삼식 외(2000) 연구결과에서 「제사 지낼 때 힘든점」으로 ‘제사음식 마련’으로 나타난 것처럼, 제사에 대한 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할 때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사음식에 대한 행례를 간소화하고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여 제례만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제사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일수록 제례만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정우·김명나, 1993)와 일치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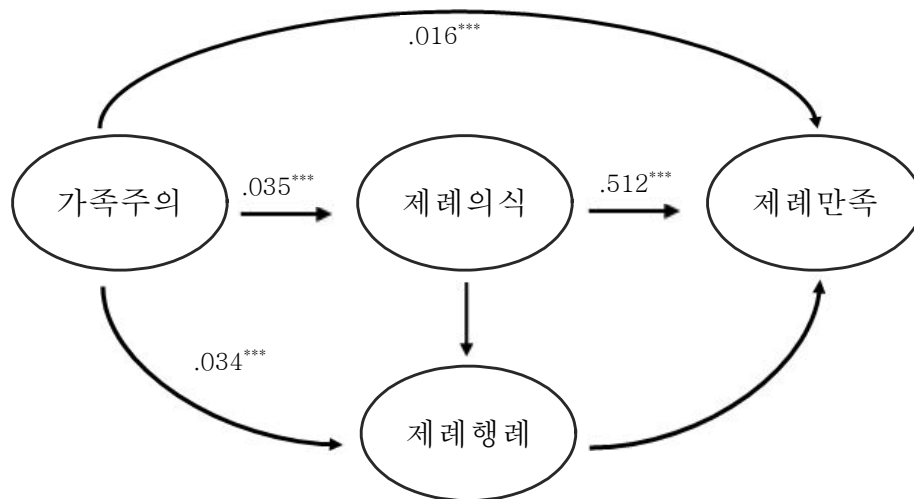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가족주의, 제례의식에 제례행례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제례행례가 추가되었지만 제례의식의 제례만족에 대한 영향력과 유의도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 직업은 유의한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나, 종교는 유의한 영향력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경로모형

사회인구학적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간의 직·간접인 영향력을 경로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가족주의는 제례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례만족에 대한 직접효과는 물론이고 제례의식을 매개로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을 매개로 제례만족에 미치는 간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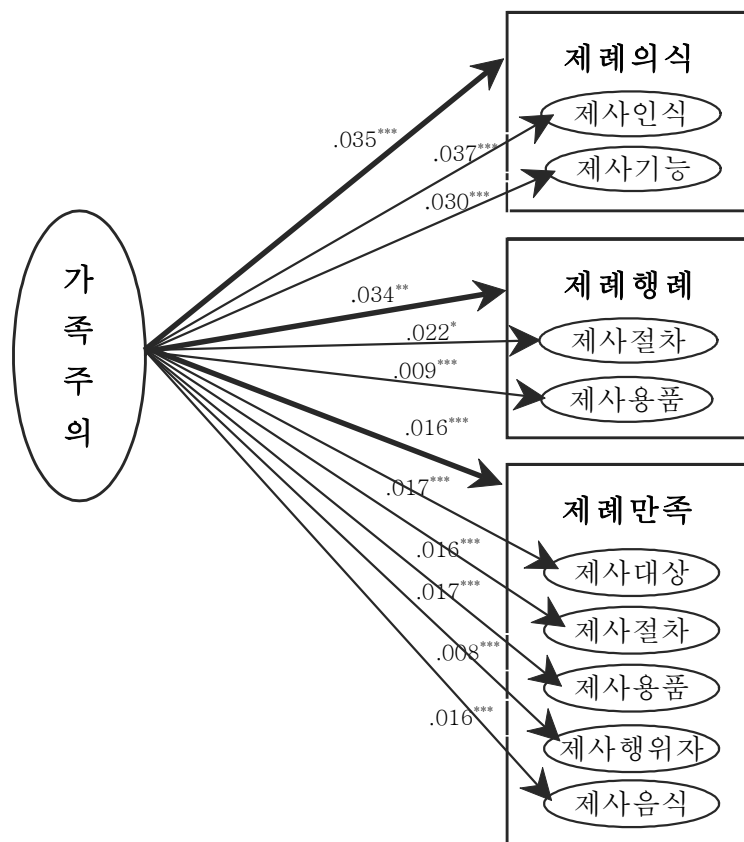
영향력은 $\beta = .018$ ($.035 \times .512$)로서, 가족주의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beta = .016$)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주의는 제례행례에 정적인 영향($\beta = .03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례행례는 제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례의식($\beta = .512$)은 제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주의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변인 중 가족주의는 제례의식을 매개로 하여 제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예측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모형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주의에 대한 의식과 제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고양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2> 가족주의 · 제례의식 ·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의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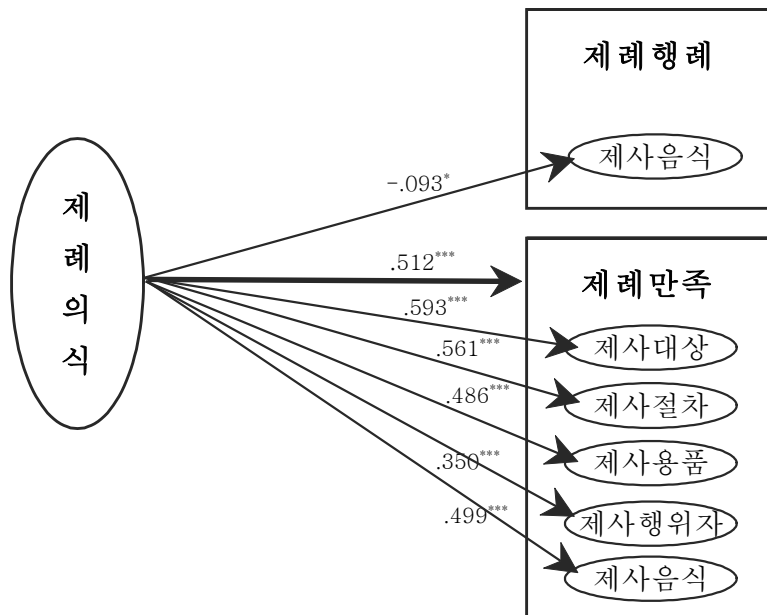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주의는 전체 제례의식($\beta = .035$)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하위영역인 제사인식($\beta = .037$)과 제사기능($\beta = .030$)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주의는 전체 제례행례

($\beta=.034$)와 그 하위영역인 제사절차($\beta=.022$)와 제사용품($\beta=.009$)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주의와 제례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제례만족($\beta=.016$)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5개의 하위 영역 즉 제사대상($\beta=.017$)·제사절차($\beta=.016$)·제사용품($\beta=.017$)·제사행위자($\beta=.008$)·제사음식($\beta=.016$)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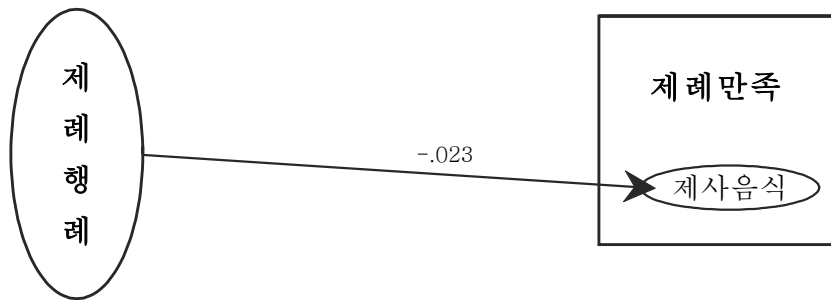
<그림 3> 가족주의가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례의식은 제례행례의 하위영역인 제사음식($\beta=-.09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의식과 제례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제례만족($\beta=.512$)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5개의 하위 영역 즉 제사대상($\beta=.593$)·제사절차($\beta=.561$)·제사용품($\beta=.486$)·제사행위자($\beta=.350$)·제사음식($\beta=.499$)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제례의식이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레행례와 제레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면, 제레행례는 제레만족의 하위영역인 제사음식($\beta = -.023$)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제레행례가 제레만족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여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을 높이고 제례행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제례만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기제사를 중심으로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및 제사음식 등의 5개의 범주로 나누고 제한하여 그 각각에 대한 이들의 의식과 행례 및 만족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형제(며느리)순위,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가족형태, 출신지역을 선정하였고, 가족주의 변인은 가족우선성, 부모공경의식, 부계가문의 영속성,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에 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개념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선정하여 가족주의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경기도지역(400부)은 특정지역을 정하지 않고 표집 하였으며 강원도(100부)는 원주·강릉지역, 충청도(200부)는 대전·예산·공주·충주지역, 경상도(100부)는 안동·부산지역, 전라도(100부)는 전주·임실지역, 제주도(100부)는 제주·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1000부를 배부하였으나 수거되지 않은 것과 부실기재, 기혼남녀를 제외한 67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Cronbach's α 의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자가 54.7%, 여자가 45.3%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40대가 34.8%, 종교 중 남자는 무교·기타종교인이 17.2%, 여자는 불교가 21.95%로 가장 높았으며, 형제(며느리)순위는 장남(큰며느리)이 46.5%로 가장 높았다. 학력은 대졸이 47.6%, 직업은 전문관리직이 34.2%로 가장 많았는데, 남자는 전문관리직이 19.6%, 여자는 전업주부·무직이 23.0%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가계소득은 남자는 17.9%가 150만원-300만원 미만, 여자는 17.0%가 300만원-4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9.1%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지역은 충청도가 2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57로 중간점 이하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은 하위영역에서 제사인식(3.00), 제사기능(3.28)이 5점 만점에 평균 3.08로 모두 중간점으로 나타났으며 제례행례는 전 하위영역에서 제사대상(2.01), 제사절차(2.53), 제사용품(2.09), 제사행위자(2.82), 제사음식(2.48)이 3점 만점에 평균 2.31로 전통지향적인 제례행례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례만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5이며 하위영역에서도 제사대상(3.60), 제사절차(3.57), 제사용품(3.56), 제사행위자(3.65), 제사음식(3.43)이 모두 중간점을 상회하여 다소 높은 제례만족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기혼남녀의 가족주의는 중간점보다 약간 낮은 지지 정도를 보이고, 제례의식은 중도지향적이나 제례행례는 비교적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례만족은 비교적 높은 점을 볼 때, 아직도 많은 수가 제례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고, 제례행례 또한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소 높은 제례만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례 기피현상은 일부 젊은 세대층과 특정 종교의 영향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층은 가까운 장래의 제례봉사자이며, 특정 종교의 영향은 과급효과가 크므로 사회지도자층이나 기성세대가 제례의 참 의미에 대한 자각과 함께 간소하고 정성이 담겨 있는 제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여러 단체(성균관 유도회, 한국전례연구원, 청소년 여성문화원)나 연구논문(두경자, 2001)에서 학자들이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지향적인 제례행례모델안을 제시하고 있어, 각 시민단체의 지도·계몽과 더불어 매스컴에서 건전제례행례모델을 지속적으로 홍보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제례문화가 정착되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 기혼남녀의 가족주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출신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유교인과 불교인인 경우, 출신지역은 서울·경기도보다는 경상도·전라도 및 충청도가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인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때 향후 점점 더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가 변화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종교, 출신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불교인과 유교인인 경우, 출신지역 중 서울·경기도보다는 전라도가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으로 나타났지만,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은 제례의식이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기혼남녀가 제례의식이 더 전통지향적이라는 것은 종교 교리에 따른 의례의식의 차이로 불교나 천주교, 무교인 경우 그들

이 행하는 의례가 어느 정도 유교식 전통의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들의 제사기능에 대한 의식이 보다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규범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기혼남녀의 제례행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종교, 직업, 출신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종교 중 무교·기타 종교인 보다는 유교인인 경우, 직업 중 전업주부·무직보다는 전문관리직인 경우, 출신지역 중 서울·경기도보다는 경상도·충청도인 경우 제례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무교·기타 종교인보다는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 제례행례를 변화지향적인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교, 직업, 출신지역에 따라 제례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종교에 따른 제례행례의 차이점과 서울·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은 아직까지도 지방색이 남아 보수적이고 전통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제례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제례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자보다 남자가 제례만족이 높은 이유는 제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추론되며 저연령층 보다 고연령층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고연령층이 저연령보다 전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한 제례 부담이 저연령층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3. 기혼남녀의 가족주의는 제례의식 변인에서 전체 제례의식과 그 하위변인인 제사인식·제사기능, 제례행례 변인에서는 전체 제례행례와 그 하위변인인 제사절차·제사용품, 또한 제례만족 변인에서는 전체 제례만족과 그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제사절차·제사용품·제사행위자 및 제사음식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의식은 전통지향적이며, 제례행례 중 제사절차·제사용품에 대한 행례는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며, 또한 제례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사라는 것이 자손이 있어 효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공경의식·가족우선성과 가문의 지속 같은 가족주의의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사에 대한 모든 절차와 제사용품인 제사복식·제사그릇을 우리 고유의 복식인 제복이나 한복을 입고, 별도로 마련된 제기를 쓰는 등 제례행례를 전통지향적으로 수행하고 제례만족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기혼남녀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4. 기혼남녀의 제례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제례행례에서는 그 하위변인인 제사음식, 제례만족에서는 전체 제례만족과 그 하위변인인 제사대상·제사절차·제사용품·제사행위자 및 제사음식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사음식에 대한 행례를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일 때 제례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례의식은 전통지향적이어도 제사음식 준비는 변화지향적으로 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조상의 사후에도 효를 다하는 제사에 대한 의식은 제사에 대한 의식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우나, 번거롭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신세대 속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한 시간부족, 제례의 간소화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제사음식에 대한 행례는 변화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가정생활에서 먼저 우리의 전통적 제례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긍정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우리의 전통성이 퇴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례의식에 대한 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5. 기혼남녀의 제례행례는 제례만족 변인에서 그 하위변인인 제사음식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는 제례행례를 전통 지향적으로 수행할 때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례행례를 간소화하고 변화지향적인 수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사음식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례행례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기혼남녀의 제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주의와 제례의식이었다. 즉 조사대상자는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제례의식이 전통지향적일수록 제례만족이 높았다. 또한 가족주의는 제례의식을 매개로 하여 제례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례만족을 높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을 찾고, 그분들이 남겨 놓은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가꾸며, 우리의 전통생활문화인 제례를 지속시키고 계승시켜 나아가려면 제례만족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가족주의 가치관과 제례에 대한 올바른 의식고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급의 시급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제사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지고, 제례의식이 변화지향적일 때 그에 따라 제례만족은 낮아지는 것을 볼 때 향후 점점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제례의식도 변화지향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추론되어 향후 제사의 변화 방향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제례만족을 높여 우리의 전통생활문화인 제례를 후손들에 의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일이 가족 간의 친목도모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통제례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리고 그 뜻을 살리되 전통 제례의 절차를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개선해 가면서,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제례의식(祭禮儀式)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면 예

절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쉬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알기 쉽고 실천하기 좋은 제례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정의례에 대한 기혼남녀 각자의 합리적인 가치관 확립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활발한 의식변화 운동이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보며, 우리의 전통의례의 참뜻을 바로 알고 그 의미를 새겨 미풍양속은 계승하되 허례허식과 폐습 등은 일소하여 개선시키고, 특히 주부들이 가정의례를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이며 가정생활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내용으로는 제례 중에서도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제사(忌祭祀)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제례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천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제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둘째, 제례행례의 양상은 지역과 가문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제례문화에 관한 연구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 볼 수 없었다는 한계성이 있다. 이에 실제로 제례를 행한 여러 사례들을 조사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례의식과 제례행례 및 제례만족 척도의 구성내용을 제례의식은 제사인식, 제사기능으로 2개의 범주 하위영역, 제례행례와 제례만족은 제사대상, 제사절차, 제사용품, 제사행위자, 제사음식 등의 5개의 범주 하위영역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제례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제례척도의 정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 나타났던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가족주의 가치관 외의 다른 가치관과 제례를 연관 지은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 및 제례만족을 각 도별로 비교하였는데, 후속연구는 도시와 농촌 비교·남·여 비교·세대별 비교 및 해외 교포와의 비교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부록에 제시된 본 연구의 제례행례 실태조사는 그 결과만을 토대로 제례행례모델을 제안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본문에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좀 더 다방면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제례행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적 기본 정신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어느 정도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종파와 계층을 초월하고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발전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례행례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척도개발과 표집에 의한 제례가 연구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건전제례행례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종교간·신구세대간·다양한 가족형태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족 간의 제례에 대한 갈등 속에 전통제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살려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을 하는데 기초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가례(家禮)

가례집람(家例輯覽)

경국대전(經國大典)

계녀서(戒女書)

고려사(高麗史)

내훈(內訓)

논어(論語)

사례편람(四禮便覽)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상례비요(喪禮備要)

소학(小學)

예기(禮記)

의례문해(疑禮問解)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사소절(士小節)

2. 단행본

강인희 · 이경복(1984). 韓國 食生活風俗. 서울: 삼영사.

- 강재철(2004). 기러기 아범의 두루마기.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고영진(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新한국사상사 2. 서울: 한길사.
- 국립민속박물관(2003). 한국의 제사.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금장태(1994).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출판부.
- 김능하 옴김(2000). 사계전서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김두헌(1986). 한국가족제도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득중(2005).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 김미영(2005). 제사와 제례문화-조상제사의 실질적 주체.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167-192.
- 김용덕(1994). 한국의 풍속사 I. 서울: 밀알.
- 김종권(1985). 신완 역 사소절. 서울: 명문당.
- 김종권(1986). 내훈·계녀서. 서울: 명문당.
-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 김혜선·박혜인·홍형옥(2006). 한국가정생활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南晩星 역(1971). 화영편 <상>. 서울: 을유문화사.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1998). 통일범요집. 서울: 조계종출판사.
- 박근원(1984). 기독교와 관혼상제. 서울: 展望社
- 박원재(2005). 제사와 제례문화-제례문화를 읽는 몇 가지 시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9-32.
- 박종천(2005). 제사와 제례문화-우상숭배와 반인륜 사이에서.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95-120.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Ⅲ. 대한가정학회편. 서울: 교문사.

- 배영동(2005). 제사와 제례문화-혈연공동체를 결속하는 조상제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67-94.
- 배용광(1984).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설석규(2005). 제사와 제례문화-조상의 제사를 끊기게 하지 마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143-166.
- 순남숙(2005). 제사와 제례문화-정성보다 귀한 제찬은 없다.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25-252.
- 유권중(2005). 제사와 제례문화-제사의 종류와 그 의례적 특징.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33-66.
- 유동환(2005). 제사와 제례문화-죽음과 삶을 이어주는 영겁의 기념관.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53-276.
- 이연자(2000). 문화와 나-추석차례의 의미와 상차림. 서울 : 삼성문화재단 9·10, 36-39.
- (2000). 문화와 나-종가집 제례의식. 서울: 삼성문화재단 9·10, 26-29.
- (2000). 문화와 나-민속마을 종가집의 제례의식. 서울: 삼성문화재단 9·10, 30-35.
- (2001). 천년의 삶으로 이어온 종가 이야기. 서울: 컬처라인.
- (2002). 명문 종가를 찾아서. 서울: 컬처라인.
- (2004). 명문 종가 이야기. 서울: 컬처라인.
- (2005). 명문종가 사람들. 서울: 랜덤하우스중앙(주).
- (2006). 쿠켄-나주나씨 송도공파 나천정 종가. 서울: 베스트홈 10, 157-161.
- (2007). 차인-제상에 오른 한잔의 푸른 잔. 서울: 한국차인연합회 3·4, 58-64.

- (2007). 차인-2000년 전 수로왕 차례 상에 오른 차. 서울: 한국차인연합회 5·6, 58-64.
- 이종호(2005). 제사와 제례문화 - 망자를 위한 진혼문.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193-224.
- 임재해(1986). 민속문화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장철수(1995).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 집문당.
- 전호태(2004). 고대 한국의 신앙과 제사의례. 울산: UUP.
- 정순우(2005). 제사와 제례문화 - 죽음의 단애를 뛰어넘는 영원한 스승.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121-142.
- 정창권(2003).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서울: 사계절.
- 조준하(2000). 문화와 나-제례의 연원과 의의. 서울: 삼성문화재단 9·10, 17-24.
- 조후종·윤숙자(2002). 통과례와 우리 음식. 서울: 한림출판사.
- 최길성(1991). 한국의 조상숭배. 서울: 예진사.
- 최봉영(1997). 조선시대 유교문화. 서울: 사계절.
- 최유환(1995). 목회와 가정의례. 서울: 소망사.
- 崔在錫(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한국고문서학회(1996). 조선시대 생활사1.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고문서학회(2000). 조선시대 생활사2. 서울: 역사비평사.
- 국립민속박물관(2007). 한국인의 일생.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한남제(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황원구(1981). 주자가례의 형성과 과정, 연세대 인문과학 총서 1. 현대사회와 예. 서울: 탐구당.

Heller, P. L(1970). Familism Scale ; A Measurement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73-80.

3. 연구논문(研究論文)

1) 학위논문

구선옥(1992). 기혼여교사의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 논문.

金璟媛(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나(1989). 都市主婦의 婚·祭禮에 對한 意識과 行動에 關한 研究.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仁玉(1990). 祭祀 時 祭需에 關한 一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 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
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자(2006). 조선시대 제례 진설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원·윤혜진 (2006). 한국인의 가족주의와 자녀교육열이 축제결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0(3), 79-95.

南炫熟(2002). 家族主義 價値觀과 老父母 扶養 態度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란(2002). 한국제례문화의 지역적 특성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박수정(1989). 도시주부의 제례행례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천(1986).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사행례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유미(1991). 서울시 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安惠淑(1993). 石器時代 信仰 및 祭儀와 家庭生活文化.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玉先花(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육영수(1982). 가족주의가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옥선화(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3집, 서울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길표(1982). 家禮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李善熙(1992). 제복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연(1999).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은(1981). 영남지방 제례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1987). 제례의 의의와 행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 (1989). 朝鮮朝 女性의 家庭教育에 대한 現代的 再照明.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을호(1967). 茶山經學思想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정수(2005). 예비 가정과 교사의 가족개념 및 가족 가치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행옥(2002). 노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 - 사랑과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숙(1983). 제사를 통한 당내친 협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범(1991).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의 예학사상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순(1986). 혼·상·제례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성미(1987). 제례에 대한 도시주부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洪敬愛(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洪달아기(1993). 율곡의 가정교육사상.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자료논문

- 권중달(2004). 한국 가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미래방향. 유교사상연구 20집, 15-43.
- 금장태(1978). 韓國古代의 信仰과 祭儀, 그 構造의 宗教史學的 考察. 同大論叢

8, 5-19.

김경재(1997). 그리스도교 祭禮 儀式의 한국문화 土着化 과제에 관한 연구.

한신논문집 특별 호, 5-53.

김덕균(2005). 유교적 가족주의, 해체인가 복원인가. 유교사상연구 23집, 109-134.

김명자(1980).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변용에 대한 연구-강원도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학 논문집 제8집, 453-470.

김석재(2002). 陽村의 祭禮儀式에 관한 一考. 유교사상연구 16집, 27-47.

김종수(2002). 상·제례 예식의 한국화 모색. 이성과 신앙 제23집, 203-374.

도민재(2002). 社會變化에 따른 祭禮의 諸問題. 유교사상연구 16집, 49-77.

문옥표(1998). 한국인의 가정의례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제례(祭禮)를 중심으로-. 人文科學 79, 147-174.

박통희(2004). 정, 가족주의 그리고 대인간 신뢰-한국중앙정부의 사례-. 한국 행정학보 38(6), 23-45.

배용광(1982). 동서양 규범문화 의 변화. 정신문화 13, 155-160.

성병희(1983). 제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대구 가톨릭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2(0), 99-108.

안숙자(2001). 한국주부의 제례행례에 관한 조사연구. 생활과학논집 14집, 69-103.

안숙자·박경란(2001). 한국주부의 제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생활과학논집 14집, 49-68.

양옥경(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51호, 229-256.

유가효(1985). 都市中流家族의 親族關係에 關한 研究 II-大邱市 를 中心으로-. 科學論集 11, 15-26.

유송옥·강선정(2002). 16세기 이후 한국의 민간 제례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제5호, 1-16.

이기태(1999). 現代社會의 祭禮. 민속연구 9집, 143-165.

3) 학회지논문

김송애·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김은실·함승서(2001). 춘천 지역 주부들의 제례음식 준비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1(4), 235-246.

김인옥(2003). 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5), 113-129.

김일명·김명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8.

김종균·김정미·장성현(2003). 제례의식의 인지도 조사연구. 東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3(3), 145-154.

두경자(2000). 우리나라 제례의 검토와 제례 재구성모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47-170.

두경자(2001). 제례 재구성 모델의 실증적 검증을 통한 제례 모델 재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41-263.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 복지학 6(1), 31-54.

손승영(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담론9(2), 245-274.

옥선화(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61-170.

- 옥선화 · 김주희 · 박혜인 · 신화용 · 한경혜 · 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이광자(1999). 광복이후 우리나라 혼·제례의 변화에 관한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4(0), 153-187.
- 이순형(1990). 서울의 친족생활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49(1), 99-141.
- (1996). 가족주의,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가치관의 관계-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학회 30(3), 545-573.
- 이연주(1984).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 연구-태도조사를 통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12(2), 101-112.
- 이은경(1999). 대학생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이정우 · 김명나(1990). 도시 부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 이정우 · 김연화(1999).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제례의식·제례수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3(2), 33-50.
- 유홍렬(1982). 조선 사묘발생에 대한 일고찰. 차유대중보 9(3), 107-111.
- 정복미 · 정해옥 · 김은실(2004). 부산지역과 전남 여수지역 주부들의 제례준비 및 제례의식 조사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0(3), 135-154.
- 정혜은 · 박찬옥(2002). 제례절차와 서식의 현대화 모색.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0, 55-70.
-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55-69.

4. 신문 및 인터넷

이영미(2006). 현대사회에서 제사와 그 의미. 장례스스로모임(cafe. naver.com)
동아일보. 2008. 1. 2.

5. 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성남: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ABSTRACT

**The Influence of Familism, Ancestor Worship Ceremonial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on the Ceremonial Satisfaction**
(Focused on Death Anniversary Ceremonies by the Married People)

Kim, Gye Suk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big changes in the entire Korean society have a dramatic effect on our culture of ancestor worship ceremonies. The formalities and size of the religious ceremonies have been greatly changed and its arrangement has imposed a mental, physical, economic burden on women while the entry of women in the public affairs has increased. This new trend of ancestor worship ceremonies causes va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desirable attitude, rational accomplishment and ceremonial satisfaction, this thesis analyses the death anniversary ceremonies which is the basic form of the religious ceremonies. The target is married people who regularly perform the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nd comparatively analyses consciousnes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for the object, formalities, equipment,

participants and food of ceremonie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solving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nd to lessen the burden of family budget and to build desirable culture of ancestor worship ceremonies by studying the relation. The key subjects are familism, religious ceremonial consciousness, and the general tendency of religious ceremon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In addition, it applies the socio-demography variables to the relations among the consciousnes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and also controls these variable in order to assure the causal relationship.

The self-respond survey was conducted by married people in the whole area of South Korea. Sampling area includes Seoul-Gyeonggi province (400 units), Gangwon province (100 units): Wonju and Gangneung, Chungcheong province (200 units): Daejeon, Yesan, Gongju, Chungju, Gyeongsang province (100 units): Andong, Busan, Jeolla province (100 units): Jeonju, Imshil, Jeju province (100 units): Jeju, Seogwipo. Total 675 out of 1000 survey papers were finally selected as datum sources. The data statistical analyses of frequency, percentage, arithmetic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the Pearson and Path analysis and the Cronbach's α by the SPSS PC+.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amilism of the married people exceeds medium and shows medium-rated level. Most of married people are aware of the necessity of the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nd perform them in a traditional way. Besides, they have somewhat high ceremonial satisfaction.

Second,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affect familism of the married people are gender, age, religion, education standard and the

native place. In other words, more women than men, the older age, more Confucian and Buddhist than none or other religious people, and more people from Chuncheong, Gyeongsang, and Jeolla provinces than Seoul–Gyeonggi province are supportive toward familism. On the other hand, university graduates than under high school graduates have less support for familism.

Third,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affect religious ceremonial consciousness of the married people are gender, religion and the native place. The older age, more Confucian and Buddhist than none or other religious people and more people from Jeolla province than Seoul–Gyeonggi province follow traditional formalities. However, Christians have changing status of ceremonial consciousness than none or other religious people.

Forth,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affect ancestor worship ceremonial performance of the married people are gender, religion, occupation and the native place. More Confucian than none or other religious people, more professions than housewives and the unemployed, more people from Chuncheong, Gyeongsang province than Seoul–Gyeonggi province follow traditional performances. However, more men than women and more Christians and Catholic believers than none or other religious people have changing status of ceremonial performances.

Fifth,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affect ceremonial satisfaction of the married people are gender and age. More men than women, the older age show high satisfaction of ancestor worship ceremonies.

Sixth, familism of married people effects the whole ceremonial consciousness and its subordinated variables such as ceremonial

understanding and function; on the whole ceremonial performances and its subordinated variables such as ceremonial formalities and equipment, and on the ceremonial satisfaction and its subordinated variables such as object, formalities, equipment, participants and food of ceremonies. That is, the respondents who have higher support for familism agree with more traditional consciousness and follow traditional formalities and equipments with high satisfaction.

Seventh, the ceremonial consciousness of married people have an effect on the ceremonial food which is a subordinated variable of ceremonial performance and on the ceremonial satisfaction and its subordinated variables such as object, formalities, equipment, participants and food of ceremonies. In other words, the respondents who have more traditional consciousness of ancestor worship ceremonies show the changing attitude and higher satisfaction.

Eighth, the ceremonial performance of married people affects ceremonial food which is a subordinated variable of ceremonial satisfaction. When people have traditional performance of ancestor worship ceremonies, they are less content with the ceremonial food.

Finally, the direct variables which affect the ceremonial satisfaction of married people are familism and ancestor worship ceremonial consciousness. Those who are more supportive to familism and more traditional consciousness have higher satisfaction. Moreover, familism through the medium of the ceremonial consciousness has indirect influence on ceremonial satisfaction.

In conclusion, the value of familism is likely to be changed and the ancestor worship ceremonial consciousness is also in changing status from now on. In order to enhance the ceremonial satisfaction and to hand down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s our traditional culture to descendants, death anniversary should be familial festival for warm relationships and provide the real meaning of traditional ceremonies along with big movement of changing values in the entire society. Especially, the family rite needs to be improved and be efficiently performed for the high living satisfaction and development of home life.

Since consciousness, performance and the satisfaction of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re found to have the meaningful relations, more sophisticated standards and sampling of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re needed for future study. Moreover,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thesis can apply to the basic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desirable ancestor worship ceremonial model. In the continuous rise of various family forms with different religions and generations, and multi-cultural family, there are conflicts over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mong family members. I expect that this thesis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instruction through mass communication in order to provide the real meaning of traditional ancestor worship ceremonies.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번거로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 기혼남녀의 가족주의 및 제례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제사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서 지내시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를 중심으로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응답한 답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무기명으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컴퓨터를 통하여 통계처리 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본 연구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연구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 전공 박사과정

김계숙 올림

I. 사회인구학적 배경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답이 없으면 이유를 기타에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_ 남 ② _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_ 유교 ② _ 기독교 ③ _ 천주교
④ _ 불교 ⑤ _ 무교 ⑥ _ 기타종교()

4. 귀하의 형제(남자) 또는 며느리 순위(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 ① _ 장남(맏며느리) ② _ 둘째(둘째며느리)
③ _ 셋째(셋째며느리) ④ _ 기타()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_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_ 중학교 졸업
③ _ 고등학교 졸업 ④ _ 대학교 졸업
⑤ _ 대학원졸업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어떤 계통입니까?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은 퇴직 전 직업에 표해주십시오)

- ① _ 전업주부, 무직
② _ 단순노무자, 생산직(청소원, 공장노동자, 파출부 등)
③ _ 농업, 축산, 수산업 종사
④ _ 판매·서비스직(음식/숙박업, 자영자, 운전기사, 점원, 외판원 등)
⑤ _ 사무직(회사나 관청의 사무원, 기타 사무직 관련자 등)

- ⑥ _ 관리직, 전문직(회사중역, 고급공무원, 중소기업주, 교사, 교수,
의사, 약사, 간호사, 언론인, 예술가, 사회교육강사 등)
- ⑦ _ 기타 ()

7. 귀하의 한 달 평균소득(현재 함께 사는 가족)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 : 수입이 250만원이면 ②번에 V표 하시면 됩니다.)

149만원 이하	150~299만원	300~449만원	450~599만원	600만원 이상
① ()	② ()	③ ()	④ ()	⑤ ()

8.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_ 배우자(남편, 아내)
- ② _ 배우자 + 자녀
- ③ _ 배우자 + 자녀 + 시(부모)
- ④ _ 배우자 + 자녀 + 시(부모) + 시댁(형제)
- ⑤ _ 배우자 + 자녀 + 친정(처)부모
- ⑥ _ 배우자 + 자녀 + 친정(처)부모 + 친정(처)형제
- ⑦ _ 혼자 산다
- ⑧ _ 기타 ()

9. 귀하의 본가(시댁)의 고향(본적)은 어디 입니까?

- ① _ 서울 · 경기도 ② _ 강원도 ③ _ 충청도 ④ _ 경상도
- ⑤ _ 전라도 ⑥ _ 제주도 ⑦ _ 기타 ()

II. 가족주의

* 다음의 상황들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당신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들이 반대할 경우,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한다.					
2. 자녀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					
3. 자손은 조상이 욕되지 않도록 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4. 자식을 낳고 키우는 문제는 나와 내 가족만의 일이 아니고 가문 전체의 일이다.					
5. 장남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6. 자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부모와 의논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7. 만약 형제자매 중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갚아 주어야 한다.					
8. 분가해서 살 경우 시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					
9. 미혼 형제자매의 생활비는 장남이 부담해야 한다.					
10. 결혼할 배우자는 부모가 정해준 대로 따라야 한다.					
11.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불행이다.					
12. 부모가 시키는 일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13.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곤란한 이웃이나 친구보다 곤란한 친척을 먼저 도와야 한다.					
14.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5. 조상의 제사를 4대조까지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다.					
16.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17.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큰 의지가 된다.					
18. 시가(본가)쪽과 친정(처가)쪽 모두에 살기가 어려운 친척이 있다면 시가(본가)쪽 친척을 먼저 도와야 한다.					
19.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친정(처가)쪽보다는 시가(본가)쪽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Ⅲ. 제례의식

다음은 제사의식과 제사기능(연미사, 추도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기제사(추도예배)지내는 일은 후손된 자로서 가장 정성을 다할 일이다.					
2. 기제사(추도예배)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지내야 한다.					
3. 기제사(추도예배)는 가정경제와 상관없이 잘 지내야 한다.					
4. 돌아가신 조상이지만 살아계신 조상님께 봉양하듯 기제사(추도예배)에 임해야 한다.					
5. 기제사(추도예배)지내는 사람이 만일 병이 있거나 우환(나쁜일)이 있더라도 제사를 지낼 만하면 마땅히 예법에 따라야 한다.					
6. 여자는 기제사(추도예배)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					
7. 기제사(추도예배) 준비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8. 기제사 지내기 3일전부터 기제사(추도예배)지낼 마음의 준비를 한다.					
9. 기제사(추도예배) 지내기에 앞서 자손들은 제사지내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0. 기제사(추도예배)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11. 기제사(추도예배)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12.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13. 기제사(추도예배)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14. 죽은 후에 자손이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줄 것을 원한다.					
15. 친정부모(장인·장모)의 기제사(추도예배)는 모시면 안 된다.					
16. 기제사(추도예배)지낼 때 여자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17. 조상을 숭배하는 생활을 갖도록 하여 자녀들에게 효를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18. 현재의 기제사(추도예배) 풍속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19. 기제사(추도예배)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20.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21. 위급한 상황에서 조상이 나를 돌봐 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					
22. 기제사(추도예배)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23. 기제사(추도예배)날에 돌아가신 조상의 넋을 위로하며 선조의 훌륭한 업적을 자손에게 들려준다.					
24. 조상에 대한 정성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는 기제사(추도예배)는 미신이 될 수 있다.					
25. 한국의 친척은 기제사(추도예배)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IV. 제례행례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답이 없으면 이유를 기타에 적어 주십시오)

1. 귀하 집안의 기제사(추도예배)는 어떤 종교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유교식(전통식)
- ③ 기독교식
- ④ 천주교식
- ⑤ 불교식
- ⑥ 기타()

2.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는 기제사(추도예배)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 ①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사망 전 날
- ③ 사망 당일
- ④ 공휴일
- ⑤ 기타 ()

3. 귀하의 집안에서는 기제사(추도예배)를 보통 몇 시에 지내십니까?

- ①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저녁 6-9시
- ③ 저녁 9-11시
- ④ 밤 11- 01시

- ⑤ _ 새벽 01- 3시
- ⑥ _ 주야 편리한 시간
- ⑦ _ 기타 ()

4. 귀하의 집안에서 기제사(추도예배)를 맡아서 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장자 (장남)
- ③ _ 차남이하 아들
- ④ _ 아들끼리 돌아가면서
- ⑤ _ 아들 · 딸들이 돌아가면서
- ⑥ _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 ⑦ _ 종교기관 대행
- ⑧ _ 기타 ()

5. 귀하가 현재 참여하는 집안 기제사(추도예배)는 몇 대조까지 지내십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1대조(부모님)
- ③ _ 2대조(조부모님)
- ④ _ 3대조(증조부모님)
- ⑤ _ 4대조(고조부모님)
- ⑥ _ 기타 ()

6. 귀하의 집안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의 기제사(추도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지내십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모시는 조상의 기제사(추도예배)는 해당 제사(추도예배)날에 제각기 지낸다.
- ③ _ 조부모 제사(추도예배)까지는 제각기 제삿날에 지내고 그 외 조상들의 제사(추도예배)는 부부단위로 지낸다.
- ④ _ 부모님 제사(추도예배)는 제각기 제삿날 지내고 그 외 조상들의 제사(추도예배)는 부부단위로 지낸다.
- ⑤ _ 조부모님까지는 제각기 제삿날에 지내고 그 외 조상들의 제사(추도예배)는 합쳐서 한날 지낸다.
- ⑥ _ 부모님은 제각기 제삿날에 지내고 그 외 조상들의 제사(추도예배)는 하루날을 잡아 합쳐서 지낸다.
- ⑦ _ 기타 ()

7. 귀하 집안의 기제사(추도예배) 대상은 누구십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본가(시댁) 조상만
- ③ _ 본가(시댁) · 처가(친정) 양가 조상
- ④ _ 처가(친정) 조상만
- ⑤ _ 기타 ()

8. 귀하 집안의 기제사(추도예배) 지낼 때 신위 모시는 방법은 어떠하십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② _ 신주
- ③ _ 지방만 ④ _ 사진이 있는 조상은 사진, 없는 조상은 지방
- ⑤ _ 지방· 사진 함께 ⑥ _ 사진만 ⑦ _ 신주· 지방 함께
- ⑧ _ 신위를 모시지 않고 지낸다 ⑨ _ 기타 ()

9. 귀하의 집안은 기제사(추도예배) 지낼 때 지방과 축문 또는 추도문을 어떻게 쓰십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전통의례대로 한문으로 쓴다.
- ③ _ 전통의례대로 하되 한글로 쓴다.
- ④ _ 제주가 조상께 고하고 싶거나 추모하는 정을 담아 쓰고 싶은 말을 쓴다.
- ⑤ _ 지방과 축문을 쓰지 않고 지낸다
- ⑥ _ 기타 ()

10. 귀하 집안의 기제사(추도예배) 지낼 때 쓰는 그릇은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제기(추도예배)용 그릇을 따로 사용
- ③ _ 제기(추도예배)용 그릇과 평상시 그릇을 섞어서 사용
- ④ _ 평상시 쓰는 그릇 사용
- ⑤ _ 제사상(추도예배)상을 차리지 않고 지낸다
- ⑥ _ 기타 ()

11. 귀하의 집안은 기제사(추도예배) 지낼 때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한복
- ③ _ 양복정장
- ④ _ 평상복
- ⑤ _ 집에서 입던 옷
- ⑥ _ 유건·도포, 천담복(옥색치마·저고리)
- ⑦ _ 기타 ()

12.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는 기제사(추도예배) 과정(절차)에 포함되는 내용에 모두 V 표시 해주십시오.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참신 (참석자가 조상을 뵈는 절차로 모두 절한다)
- ③ _ 강신 (제주가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라고 잔을 올린다)
- ④ _ 진찬 (식어서는 안 되는 주요 음식을 따로 내어 상에 올린다)
- ⑤ _ 초헌 (제주(주관자)가 첫잔을 올린다)
- ⑥ _ 독축 (축문을 읽는다)
- ⑦ _ 아헌 (주부(며느리)가 잔을 올린다)
- ⑧ _ 종헌 (제주(주관자) 다른 참석자가 잔을 올린다)
- ⑨ _ 유식 (술잔에 잔을 채우고 수저를 고쳐 놓는다)
- ⑩ _ 합문 (무릎을 꿇고 묵념 또는 문밖을 나가거나 병풍을 친다)
- ⑪ _ 계문 (그 자리에서 묵념을 하거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 ⑫ _ 진다 (국을 물리고 물을 놓는다)
- ⑬ _ 사신 (주관자 이하 모든 참석자들이 절한다)

- ⑭ _ 납주분축 (신주와 사진을 원 자리로 모시고 지방을 태운다)
- ⑮ _ 철찬 (상위에 있는 제수를 거둔다)
- ⑯ _ 기도
- ⑰ _ 성서봉독
- ⑱ _ 찬송
- ⑲ _ 기타 ()

13. 귀하의 집안은 기제사(추도예배)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제사(추도예배) 지내는 집에서 마련
- ③ _ 형제가 나누어 준비
- ④ _ 만들기 어려운 것만 시장이나 음식 맞춤 전문점 이용
- ⑤ _ 모든 음식을 시장이나 음식 맞춤 전문점 이용
- ⑥ _ 제사(추도예배)상을 차리지 않는다.
- ⑦ _ 기타 ()

14. 귀하의 집안은 기제사(추도예배) 상 위에 올리는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 ② _ 전통 제례 음식으로 올린다.
- ③ _ 전통 제례 음식과 고인이 즐기던 음식을 함께 올린다.
- ④ _ 고인이 즐기던 음식만 올린다.
- ⑤ _ 가족들을 위한 식사형식으로 올린다.
- ⑥ _ 전통 제례 음식과 가족을 위한 음식을 함께 올린다.

⑦ _ 제사(추도예배)상을 차리지 않는다.

⑧ _ 기타 ()

15. 귀하의 집안은 기제사(추도예배)음식 상 차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② _ 가문의 전통대로 차린다.

③ _ 가문의 전통과 책이나 매스컴에서 배운 것을 참고하여 차린다.

④ _ 책이나 매스컴에서 배운 대로 차린다.

⑤ _ 편한대로 차린다.

⑥ _ 제사(추도예배)상을 차리지 않는다.

⑦ _ 기타 ()

16. 귀하의 집안은 기제사(추도예배)의 음식비용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① _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지 않는다

② _ 전적으로 제주가정에서 부담

③ _ 현금으로 상호부조

④ _ 음식 등으로 상호부조

⑤ _ 마련된 기금 이용

⑥ _ 기타 ()

V. 제례(추도예배)만족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는 기제사(추도예배) 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는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					
2.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형식(방법)에 대하여 만족한다.					
3.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절차(순서)에 대하여 만족한다.					
4.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의 음식상 차리는 방법(진설법)에 대하여 만족한다.					
5.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기제사(추도예배)를 맡아서 지내는 사람에 대하여 만족한다.					
6.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횟수에 대하여 만족한다.					
7.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시간에 대하여 만족한다.					
8.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기제사(추도예배)로 모시는 조상님에 대하여 만족한다.					
9.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는 조상님의 봉사대수 범위에 대하여 만족한다.					
10.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때 신위(사진·지방)모시는 방법에 대하여 만족한다.					
11.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때 쓰는 제기(그릇)에 대하여 만족한다.					
12.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기제사(추도예배) 지낼 때 직접 참여하는 사람(성별, 세대)에 대하여 만족한다.					
13.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장소에 대하여 만족한다.					
14.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에 참석하는 친척범위에 대하여 만족한다.					
15.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때 입는 옷(복장)에 대하여 만족한다.					

16.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때 들어가는 <u>비용분담</u> 에 대하여 만족한다.					
17.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때 들어가는 <u>제사음식비용</u> 에 대하여 만족한다.					
18.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때 준비하는 <u>음식종류</u> 에 대하여 만족한다.					
19.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때 <u>음식준비 방법</u> 에 대하여 만족한다.					
20.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고 난 <u>음식 처리 방법</u> 에 대하여 만족한다.					
21.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때 <u>가사노동 분담</u> 에 대하여 만족한다.					
22.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때 나의 <u>역할과 지위(위치)</u> 에 대하여 만족 한다.					
23.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제사(추도예배) 때 <u>가족 간 친목 정도</u> 에 대하여 만족한다.					

바쁘신 가운데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부 록

- <부록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부록 2> 종교별 제례형식
- <부록 3 > 예서의 제례절차 비교
- <부록 4> 현행 제례행례 변화양상 실태조사 결과 요점정리
- <부록 5> 표준 기제사 모델 (선행연구)
- <부록 6> 가정의례준칙의 변천
- <부록 7> 건전가정의례준칙
- <부록 8> 본 연구의 제례행례 실태조사 결과

<부록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록 2> 종교별 제례형식(宗敎別 祭禮形式)

종교	기독교식(추모식)*	천주교식**	불교식***
주관자	구역장, 교구장, 가족 中	가장(家長)	법사(法師)
장소	가정(家庭)	가정(家庭)	사찰(寺刹)
절차	<p><1부 예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식사 2. 신앙고백 3. 찬송 4. 기도 5. 성경봉독 6. 설교 : 간단히 성경 본문을 설명한다. 7. 기도 8. 찬송 9. 축도 <p><2부/추모의 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인의 약력과 미담 소개 2. 추모사 3. 묵상기도 4. 마무리기도 <p><3부/천교의 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호 2. 성가 3. 독서 : 성서구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봉독 4. 가장의 말씀 5. 큰절 : 서열 순으로 영전에 큰절을 드린다. 6. 사도신경, 부모·자녀·부부 가정을 위한 기도 7. 참석자는 모두 신자들의 기도를 바친다. 8. 성가 9. 주의기도 : 다함께 바친다. 10. 식사 11. 성호 : 성호 긋는 것으로 예식이 모두 끝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식(開式) : 법사의 개식 선언 2. 삼귀의례(三歸儀禮) 3. 독경(讀經) : 반야심경 4. 묵시(默詩) : 참석자 일동이 입정 5. 추도문낭독(追悼文朗讀) 6. 약력보고(略歷報告) 7. 추도사(追悼辭) : 法主가 추도와 위안 8. 감상(感想) : 내빈 중 대표자 위로 9. 분향(燒香) : 유족과 참사자 10. 답사(答辭) : 내빈의 감상에 대한 답례로 祭主가 함 11. 사홍서원(四弘誓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고자 맹세하는 일. 12. 폐식(閉式)

(최유환, 1995)

<부록 3> 예서의 제례절차비교

예서 절차	주자가례 (朱子家禮)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격몽요결 (擊蒙要訣)	가례집람 (家禮輯覽)	사례편람 (四禮便覽)	성균관 (현재)
절 차 순 서	① 參神	① 參神	① 參神	① 參神	① 參神	① 齋戒
	② 降神	② 降神	② 降神	② 降神	② 降神	② 灑掃正寢
	③ 進饌	③ 進饌	③ 進饌	③ 進饌	③ 進饌	③ 題主修祝
	④ 初獻	④ 初獻	④ 初獻	④ 初獻	④ 初獻	④ 設位陳器
	⑤ 讀祝	⑤ 讀祝	⑤ 讀祝	⑤ 讀祝	⑤ 讀祝	⑤ 滌器具饌
	⑥ 亞獻	⑥ 亞獻	⑥ 亞獻	⑥ 亞獻	⑥ 亞獻	⑥ 變服序立
	⑦ 終獻	⑦ 終獻	⑦ 終獻	⑦ 終獻	⑦ 終獻	⑦ 點燭
	⑧ 侑食	⑧ 侑食	⑧ 侑食	⑧ 侑食	⑧ 侑食	⑧ 設蔬果 酒饌
	⑨ 闔門	⑨ 辭神	⑨ 闔門	⑨ 闔門	⑨ 闔門	⑨ 奉主就位
	⑩ 啓門	⑩ 納主	⑩ 啓門	⑩ 啓門	⑩ 啓門	⑩ 焚香降神
	⑪ 進茶	⑪ 徹	⑪ 進茶	⑪ 辭神	⑪ 辭神	⑪ 降神酌酒
	⑫ 辭神		⑫ 辭神	⑫ 納主	⑫ 納主	⑫ 參神
	⑬ 納主		⑬ 納主	⑬ 徹饌	⑬ 徹饌	⑬ 進饌
	⑭ 徹		⑭ 徹饌	(喪禮備要 참조)		⑭ 初獻
					⑮ 亞獻	
					⑯ 終獻	
					⑰ 侑食	
					⑱ 闔門	
					⑲ 啓門	
					⑳ 進熟水	
					㉑ 落匙箸	
					㉒ 闔飯蓋	
					㉓ 辭神	
					㉔ 納主	
					㉕ 焚祝	
					㉖ 徹饌	
					㉗ 飲福	
					㉘ 撤器具	

<부록 4> 제례행례 변화양상 실태조사 결과 요점정리

구분		전통에서 행례	김인옥 (1997)	건전가정 의례준칙 (1999)	이삼식 외 (2000)	정복미 (2004)	김계숙 (본 연구 실태조사) (2007)
제사 대상	봉사대상	부계직계 조상	부계직계조상	부계직계조상			본가(시댁) : 85.7%
	봉사대수	4대 봉사	2-3대 봉사	2대 봉사	1-2대 봉사	3대(34.47%) 2대(29.79%) 1대(22.13%)	1대(85.1%)
제사 절차	제사형식	대체적으로 유교식	전통식	기타 종교형식 인정	유교식(78.3%)이 가장 많고 종교에 따라 다양		유교식(72.4%)이 가장 많고 종교에 따라 다양
	제사 지내는 날짜	기일(忌日)	사망 전 날	사망일,	기일(忌日)		사망 전 날(59.6%)
	제사시간	자시(子時)	저녁	시간은 언급 없음	오후 9시- 새벽 1시	오후11-새벽 01시 (47.16%)	오후 9시-11시(42.9%)
	기제사절차		강신 초헌 유식 계문 진다 사신 납주분축	신위 모시기(제배), 헌주, 축문읽기, 물립절	· 유교식(절,지방, 축문, 삼헌작) · 기독교(기도, 성서 봉독, 관송)		참신 강신 초헌 종헌 사신 철찬
	제사 지내는 방법	개별제사		개별제사	개별제사 (87.1%)		개별제사 (70.0%)
	신위 모시는 방법	신주, 지방	지방				지방(49.0%)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전통서식 환문					전통서식환문(58.5%) 지방과 축문을 안 쓰고 지냄(24.3%)
제사 용품	제사그릇	별도 제기 (유기, 자기)				평상시 사용하는 제기사용 (38.26%) 목기사용(75.41%)	제기용 그릇사용 (62.8%)
	제사복식	제복(유건·도포), 찬담복			경장(52.8%) 평상복(31.5%)		양복경장(49.7) 평상복(34.1%)
제사 행위자	제사주관자	장남, 장손	장남(72.3%)	언급 없음	장남	장남(78.28%)	장남(84.8%)
	제사참례자	남자와 종부	형제(39.0%) 사촌(34.0%)	언급 없음	모든 가족이 참석 (41.2%)		
제사 음식	제사음식 준비 방법	제주가정에서 마련		제주의 가정			제사지내는 집에서 마련(76.9%)
	제사음식 종류	전통제례음식	전통제례음식	반상음식	고인을 위한 상차림		전통제례음식(39.7%) 전통제례음식+고인이 즐거던 음식(35.7%)
	상 차리는 방법	가문의 전통대로 (철저한규칙준수)		평상시의 간소한 상차림	전통대로 지킴 (87.3%)		가문의 전통대로 차린다. (65.6%)
	제사음식 비용 부담방법	전적으로 제주가 정에서 부담		언급 없음	현금 혹은 음식으로 상호부조 현금·음식 부조		현금으로 상호부조 (45.5%) 전적으로 제주가정에서 부담 (43.4%)

* 빈칸은 실태조사가 안 된 부분임

<부록 5> 표준 기제사 모델 (선행연구)

구 분		두경자(2000)			청소년 여성문화원(2006)	
		희망제례모델	모델제시 I	모델제시 II	표준제례	표준 제례식 (추도식)
제사 대상	봉사대상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가족의 협의에 따라 1대조 봉 사나 합사(合祀)도 가능함)	2대 이하
	봉사대수	2대(36.1%)	1.5대(조부모제사: 첫 자녀 연령이 만 20세까지만)	1대만(시·친정부모)		
제사 절차	제사형식					
	제사 지내는 날짜	종전대로(57.1%) 현대적개변 (24.25%)	사망일 또는 사망일 전 공휴일	사망 전 후 공휴일	돌아가시기 전 날 또는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날
	제사시간	오후 8-9시경	오후 8-9시경	주야불문 편리한 시간	자정 전후 오후7-9시	
	기제사절차	현대적 개변 절두번·목념1분 대표자만 절2번. 명복기원(큰소리로) 생전모습회상·담소.	절두번 또는 목념 1분 (고인명복기원)	생전모습회상·담소	신위봉안,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삼시, 헌작, 사신/수저내리기, 철상/상물리기, 음복· 음식나누기. 절: 고두배	개식→추도→목도→ 폐식→음식나누기 순 으로 진행. 목념
	제사 지내는 방법					
	신위 모시는 방법				지방, 사진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지방 : 한글	
제사 용품	제사그릇					
	제사복식				정장, 정장에 준하는 복식	
제사 행위 자	제사주관자	윤회(54.3%): 형제자매 모두윤회	형제자매 모두 윤회	종교단체위탁 또는 선행(불우이웃 돕 기)으로 대신	가능한 자손부부(가족의 협의로 선정가능)	가족협의에 의해 누 구나 될 수 있으며 종교적 의례형식에 따라 주관자를 초빙 함
	제사참례자	4촌 이내(41.1%) 자녀(34.3%)	4촌 이내	자녀만(3촌이 원할경우 참례 가능)	고인을 기리고자 하는 사람	
제사 음식	제사음식 준비 방 법					
	제사음식 종류				메, 갱, 전, 적, 나물, 탕, 김치, 과일, 조과	기본적인 상차림 참여자들의 의식 후 먹을 음식중심으로 마련
	상 차리는 방법		밥·물·고인의 기호품	사진만		
	제사음식 비용 부담방법				음식 함께 준비· 각자 준비, 비용 공동 부담	

<부록 6> 가정의례준칙의 변천

구분	1996 가정의례준칙	1999 가정의례준칙	비고
제례 구분	기제, 절사, 연시제	기제, 명절차례	절사, 연시제를 명절차례로 통합
기제대상 기제 시간/장소 기제 참사자 범위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 사망일 / 제주가정 사망자의 직계자손	제주로부터 2대조 까지 사망일 / 제주가정	참사자 범위 항목 삭제
절사 대상 절사시간/장소 절사 참사자 범위	직계조상 추석절 아침 / 종손가정 직계자손		절사, 연시제 내용 이 차례로 통합 대상이 직계조상→ 2대로 명시 종손→ 주손 참사자 범위 항목 삭제
연시제	매년 1월 1일 아침, 대상, 장소, 참사자 범위는 기제에 준함		
차례 대상 차례 시간/장소		기제의 대상과 같음 매년 명절(설날 및 추석) 아침 / 주손 가정	
제수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 * 절사의 경우 떡으로, 연시제의 경우 떡국으로 밥에 대신할 수 있음.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	절사의 연시제 음식에 대한 불필 요한 설명이 삭제
성묘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재배 또는 묵념	각자의 편의대로 함.	배례방법 설명이 삭제
성묘 제수	마련하지 않음.	마련하지 않음.	동일

<부록 7>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제정 1999. 8. 31 대통령령 제16544호)

제 5장 제례

제19조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이하 “차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 20조 (기제) ① 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 (차례)① 차례의 대상은 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설날 및 추석)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제22조 (제수)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 (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 (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별표 5]

1. 일반절차

가. 신위모시기 :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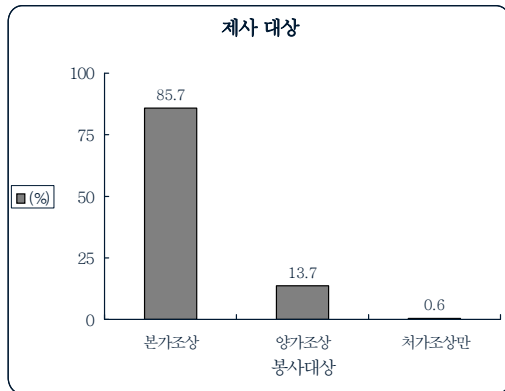
나. 헌주 : 술은 한 번 올린다.

다. 축문읽기 :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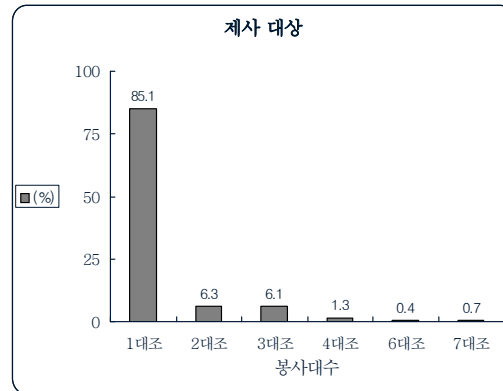
라. 물림절 : 참사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부록 8> 본 연구의 제례행례 실태조사 결과

1. 제사대상



<그림 1> 봉사대상



<그림 2 > 봉사대수

1) 봉사대상

「봉사대상」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각 가정에서 기제사 「봉사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본가(시댁)조상만 지내는 경우는 85.7%, 본가(시댁)와 처가(친정) 양가 조상을 재 지내는 경우는 13.7%, 처가조상만 지내는 경우는 0.6%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가조상만 제사대상으로 지내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강력한 혈족의식에 기인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인 유교적 관념이 유지되는 한 처가(친청)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오늘날 계획출산과 저출산으로 자식이 없거나 외동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봉사대상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요구된다. 앞으로 외동딸인 경우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제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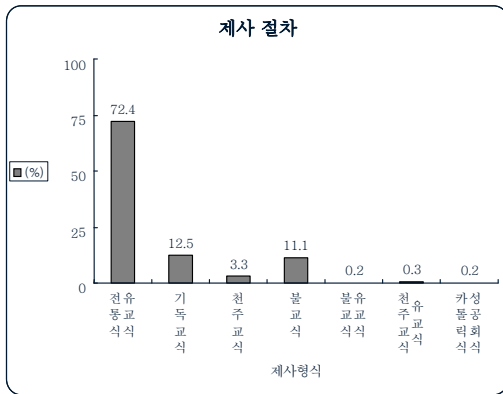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봉사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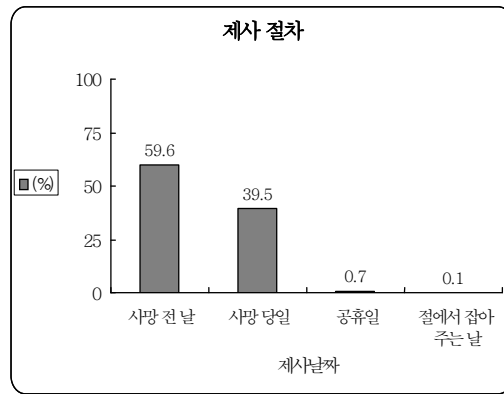
「봉사대수」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각 가정에서 지내는 기혼남녀 기제사의 「봉사대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는 1대인 부모가 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대인 조부모 6.3%, 3대인 증조부모 6.1%, 4대인 고조부모 1.3%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란에 기입한 응답자에 의하면 아직까지 6·7대조까지 모시는 가정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오는 세대는 종손이거나 전통적인 성향을 가진 종교인은 2대까지 봉사를 하겠지만, 지손이거나 윤회봉사를 하는 가정 또는 기독교인인 경우는 1대 봉사(부모님)를 많이 선호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사절차



<그림 3 > 제사형식



<그림 4 > 제사날짜

1) 제사형식

「제사형식」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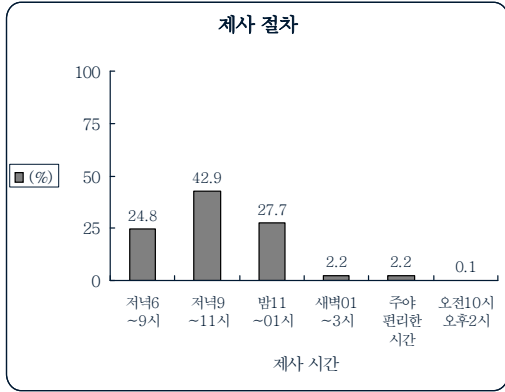
각 가정에서 지내는 기혼남녀 기제사의 「제사형식」은 ‘유교식(전통식)’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식’ 12.5%, ‘불교식’ 11.1%, ‘천주교식’ 3.3%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란에 응답한 것에는 ‘유교식과 불교식’을 합한 형식이 0.2%, ‘유교식과 천주교식’이 합한 형식이 0.3%이었으며, ‘성공회(카톨릭식)형식’으로도 0.2%정도가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는 ‘유교식’ 제사형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독교식’, ‘불교식’, ‘천주교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사형식의 선택이 시대 변화에 좌우되기 보다는 종교별 인구 분포, 종교별 타 종교식에 대한 배타성, 종교식별 절차의 곤란성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2) 제사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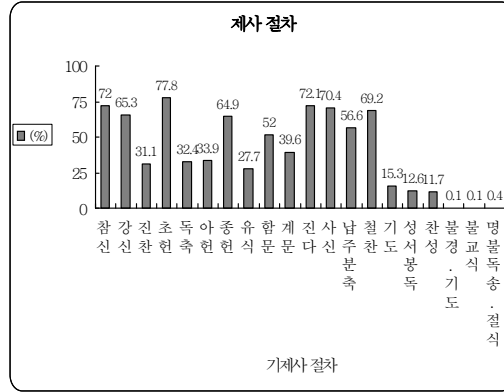
「제사날짜」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각 가정에서 지내는 기혼남녀 기제사의 「기제사 지내는 날짜」는 ‘돌아가시기 전 날’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9.5%는 ‘사망 당일’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휴일’에 지내는 경우도 0.8%로 나타났으며, ‘절에서 잡아주는 날’에 지낸다는 사람은 1%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절에서 합동제사를 지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도 기일은 전통적으로 ‘사망 전 날’이나 ‘사망 당일’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가 변화해도 단순히 자손들의 편리에 따라 날을 잡는 것보다는 아직 조상숭배 정신이 강하게 남아있어 모시는 조상의 해당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향후에도 당분간은 기일을 임의로 공휴일에 잡는 것보다는 해당 기일에 지내는 제사형식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제사시간



<그림 6> 기제사 절차

3) 제사시간

「제사시간」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기혼남녀의 각 가정의 「제사(추도예배) 지내는 시간」 대한 조사 결과는 ‘저녁 9시에서 11시 이전에 제사를 지낸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녁 11시 이후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기제사(추도예배) 지낸다’의 비율 27.7%와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지낸다’ 비율은 24.8%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새벽1시-새벽3시까지 지낸다’와 ‘주야 편리한 시간에 지낸다’가 똑같이 2.2%로 나왔다. 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지낸다’는 응답자도 있었는데 이는 공휴일에 지내거나 추도미사인 경우에는 굳이 밤늦은 시간에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같이 ‘저녁 11시 이후부터 새벽 1시’에 기제사(추도예배)를 지내는 관습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는 시간 제약이 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자손들이 전통적인 제사시간과 무관하게 가정의례준칙에서 기제사는 ‘해진뒤(저녁)에 지낸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참

례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제사시간 변화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기제사절차

「기제사절차」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유교식 제사」 유형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기제사절차는 ‘참신’⁸²⁾ 72.0%, ‘강신’⁸³⁾ 65.3%, ‘초헌’⁸⁴⁾ 77.8%, ‘중헌’⁸⁵⁾ 77.8%, ‘진다’⁸⁶⁾ 72.1%, ‘철찬’⁸⁷⁾ 69.2%로 행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유교식 절차 중 ‘합문’⁸⁸⁾ 52.0%, 납주분축⁸⁹⁾ 56.6%로 행하는 비율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진찬’⁹⁰⁾ 31.1%, ‘아헌’⁹¹⁾ 33.9%, ‘유식’⁹²⁾ 27.7% 로 행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중 ‘기독교식(또는 천주교식)’ 추도예배 절차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기도’(15.3%), ‘성서봉독’(12.6%), ‘찬송’(11.7%) 등의 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기타 란에 ‘불경·기도’, ‘불교식’, ‘염불독송’, ‘절의 스님이 시키는 대로’로 응답한 경우는 거의 무시할 정도(1% 미만)이다. 이와 같이 유교식 절차를 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전통적인 절차를 다 행하는 것이 아니고 ‘참신’, ‘초헌’, ‘중헌’, ‘진다’, ‘철찬’ 등의 절차는 선호하여 행하고 있지만 ‘아헌’이나 ‘합문’ 같

82) 참석자가 조상을 뵈는 절차로 모두 절 한다

83) 제주가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라고 잔을 올린다.

84) 제주가 첫잔을 올린다.

85) 제주가 아닌 다른 참석자가 잔을 올린다.

86) 국을 물리고 물을 놓는다.

87) 상위에 있는 제수를 거둔다.

88) 무릎을 꿇고 목념 또는 문밖을 나가거나 병풍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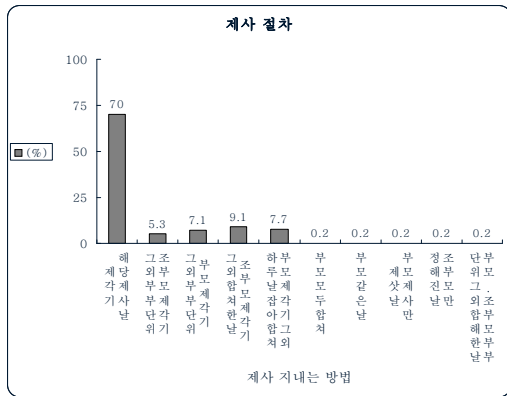
89) 신주와 사진을 원 자리로 모시고 지방을 태운다.

90) 식어서는 안 되는 주요 음식을 따로 내어 상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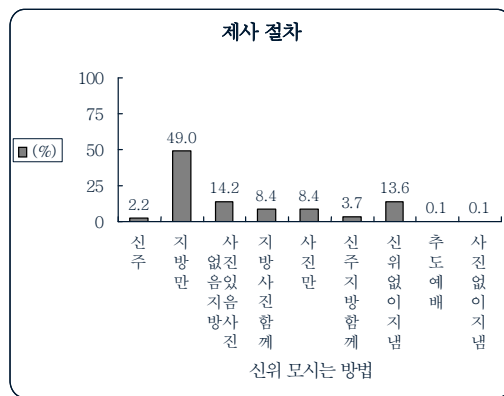
91) 주부가 잔을 올린다.

92) 술잔에 잔을 채우고 수저를 고쳐 놓는다.

은 절차는 많이 행하지 않았다. 또한 본인 종교를 「불교」라고 대답한 응답자(34.1%) 중에는 불교제사 절차인 ‘불경기도’, ‘염불득송’ 같은 절차는 거의 행하지 않고(1%미만) 유교식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인(18.8%)·천주교인(12.9%)은 유교식 절차보다는 ‘기도’ (15.3%), ‘성서봉독’ (12.6%), ‘찬송’ (11.7%) 같은 기독교식 절차를 선호하여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천주교인은 기독교인과 다르게 천주교식 절차(기도, 성서봉독, 찬송) 외 유교식 제사절차도 비교적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잡한 유교식 제사의 모든 절차를 다 행하기가 어려워 전통 제사절차에서 기본적인 절차만 행하고 있으며, 또한 불교인과 천주교인은 전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유교식 제사에 거부감이 없으며 특히 천주교에서는 유교식 전통제례에 대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유교식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 제사 지내는 방법



<그림 8> 신위 모시는 방법

5) 제사 지내는 방법

「제사 지내는 방법」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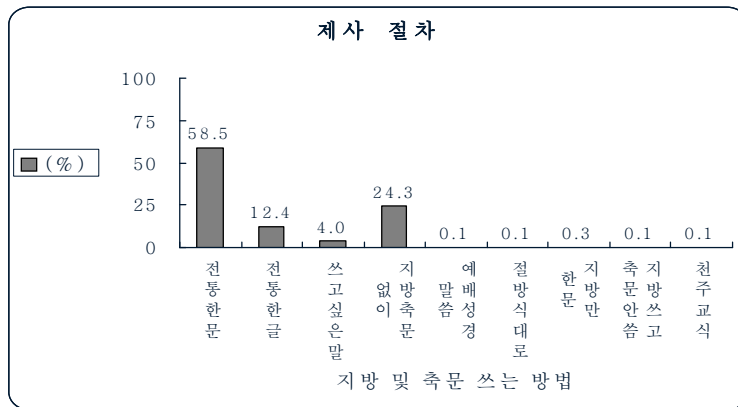
기혼남녀의 「제사(추도예배) 지내는 방법」에 대한 결과는 ‘모시는 조상의 기제사(추도예배)는 해당 제삿날에 제각기 지낸다’라는 경우는 70.0%로 나타났다. ‘조부모까지는 제각기 제삿날에 지내고 그 외 조상들의 제사(추도예배)는 합쳐서 지낸다’는 9.1%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은 제각기 제삿날에 지내고 그 외 조상들의 제사(추도예배)는 하루 날을 잡아 합쳐 지낸다’는 7.7%로 나타났다. ‘부모님제사(추도예배)나 조부모님까지만 기일에 제각기 지내고 나머지 조상은 합사 한다’는 응답은 각각 5%-7%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도 대다수가 돌아가신 조상의 제사를 해당 기일에 개별 제사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상에 대한 높은 숭배정신이 편리성의 추구로 인하여 향후에는 개별제사 보다는 통합제사 형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추론된다.

6) 신위 모시는 방법

「신위 모시는 방법」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우리나라의 기혼남녀의 「신위 모시는 방법」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방’을 49.0% 정도 쓰고 있으며 ‘신위를 모시지 않고 지낸다’가 13.6%, 그 외 ‘사진 있는 조상은 사진·사진 없는 조상은 지방(14.2%)’을 놓는 경우, ‘사진(8.4%)’만 놓거나 ‘지방·사진을 함께(8.4%)’ 놓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신주’를 놓고 하는 가정은 2.2%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 ‘아무것도 놓지 않고 지낸다’고 응답한 13.7%는 종교의식에 의거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에는 신주를 모시는 집은 드물고 보통 지방을 쓰고 있으나, 집안에 따라서 신위 유무 및 인식 여하에 따라 사진을 놓고 지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놓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늘고 있다. 향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추론 된다.



<그림 9 >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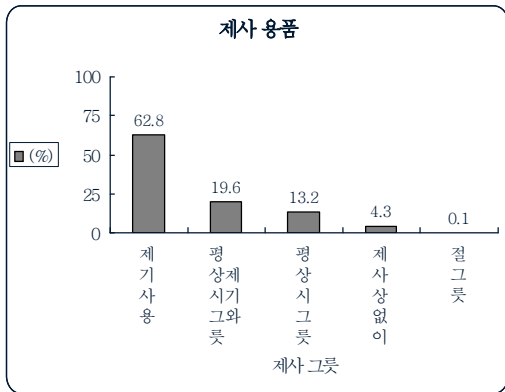
7)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지방 및 축문 쓰는 방법」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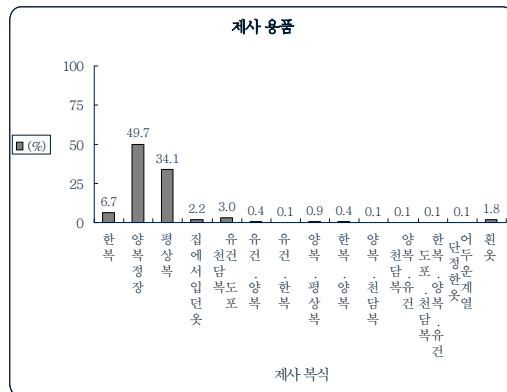
기혼남녀의 「지방과 축문 쓰는 방법」에서 ‘전통의례대로 한문으로 쓴다’의 비율은 58.5%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과 축문을 쓰지 않는다’가 24.3%로 나타났다. ‘전통의례대로 하되 한글로 쓴다.’도 12.4%로 나타났으며, ‘제주가 조상께 고하고 싶거나 추모하는 정을 담아 쓰고 싶은 말을 쓴다’가 4.0%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란에 1% 미만으로 응답한 것을 보면 ‘지방만 한문으로 쓴다.’거나 ‘예배·성경말씀으로 대신 한다’, ‘지방만 쓰고 축문을 안 쓴다’, ‘천주교식으로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많은 가정이 전통적인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 지방과 축문서식을 한문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나 최근에는 지방을 쓰지 않고 사진이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풍속도 바뀌듯이, 한글세대에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한자 축문과 지방을 그대로 쓰라고 고집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어린 후손들에게 제사의 의의와

제사 참례의 참뜻을 전승시키려면, 보고 해득(解得) 할 수 있도록 지방이나 축문을 한글로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제사용품



<그림 10> 제사그릇



<그림 11> 제사복식

1) 제사그릇

「제사그릇」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기혼남녀의 제사(추도예배)에 사용되는 「제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제사(추도예배)용 그릇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사(추도예배)용 그릇과 평상시 그릇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가 19.6%, ‘평상시 쓰는 그릇사용’이 13.2%로 나타났다.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지낸다’도 4.3%로 나타났으며, 또한 ‘절 그릇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례에 준하는 비록 가난해도 제기를 팔지 아니하고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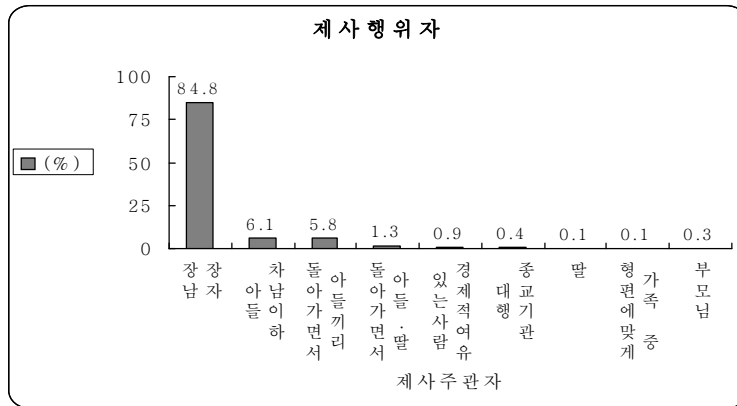
가 낡으면 물어버릴 정도로 제기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는데, 오늘날에도 ‘제사(추도예배)그릇을 따로 사용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도 각 가정에서는 제사(추도예배)그릇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성시하여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사복식

「제사복식」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제사 지낼 때 입는 복식」에 대하여 전체 응답한 기혼남녀의 49.7%가 ‘제사 때 참례자 대부분이 정장을 입으며’, 34.1%는 ‘대부분 평상복을 입는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한복을 입고 지내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7%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으로부터 내려온 제복인 유건·도포와 천담복을 입고 지내는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의생활의 변화로 간편한 기성복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1년에 한두 번만 입는 제복과 한복을 마련하여 입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번거로워 점점 제복이나 한복 착용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장 입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점차 평상복 입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평상복을 입고 제사지내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4. 제사행위자



<그림 12> 제사 주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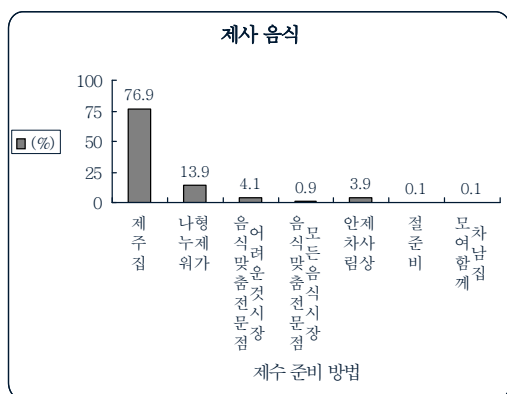
1) 제사주관자

「제사주관자」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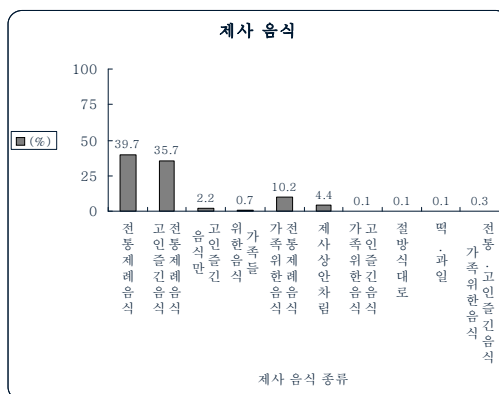
제사 주관자인 제주가 장자이어야만 했던 전통적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그 집안의 「제사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여러 형제 중 ‘장남이 주관’하는 경우가 84.8%, ‘차남이하 아들’은 6.1%, ‘아들끼리 돌아가면서’ 5.8%, ‘아들·딸들이 돌아가면서’ 1.3%,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0.9%, ‘종교기관 대행 주관’은 1% 미만인 0.4%로,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사고가 남아있어 아들·딸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희제사나 남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화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이외에도 ‘가족 중에 형편에 맞게’·‘부모님께서 지낸다’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관행으로 ‘장자’가 주관자가 되어 지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점점 형제나 가족이 윤희하면서 지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제사 주관자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장남 위주의 제사주관’ 관행이 ‘형

제나 가족 유희'로 변화 되어 제사가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고르게 돌아가며 거례함으로서 자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하고 나아가 친족간의 화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자손들이 항렬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5. 제사음식



<그림 13> 제사음식 준비 방법



<그림 14> 제사음식 종류

1) 제사음식 준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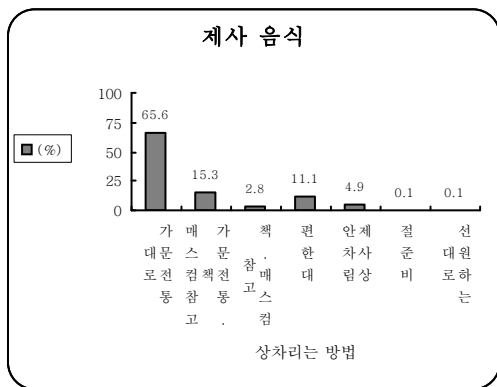
「제사음식 준비 방법」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기혼남녀의 「제사(추도예배)음식 준비 방법」에 대한 결과는 ‘제사(추도예배) 지내는 집에서 마련’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제가 나누어 준비’는 13.9%, ‘만들기 어려운 것만 시장이나 음식 맞춤 전문점 이용’이 4.1%, ‘제사(추도예배)상을 차리지 않는다.’가 3.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음식을 시장이나 음식 맞춤 전문점 이용’은 0.9%로 나타났다. 이는 혼례와 폐백음식을 대행하는 것은 일반화 되어서 거부감이 적으나, 제사음식 장만은 가

정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성의 없이 차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사음식 종류

「제사음식 종류」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4>와 같다.

기혼남녀의 「제사(추도예배)음식 종류」에 대한 결과는 ‘전통 제사음식으로 올린다’는 39.7%, ‘전통 제사음식과 고인이 즐기던 음식을 함께 올린다’는 35.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통 제사음식과 가족을 위한 음식을 함께 올린다’와 ‘가족들을 위한 식사형식으로 올린다’는 각각 10.2%, 7.0%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상을 차리지 않고 지낸다’는 4.4%가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제사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격식에 의존하여 전통 제사음식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5> 상 차리는 방법



<그림 16> 제사음식 비용 부담 방법

3) 상 차리는 방법

「상 차리는 방법」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5>와 같다.

기혼남녀의 「기제사(추도예배)음식 상 차리는 방법」에 대한 결과는 ‘가문의 전통대로 차린다’가 65.6%로 나타났으며, ‘가문의 전통과 매스컴에서 배운 것을 참고하여 차린다’와 ‘편한대로 차린다’는 각각 15.3%와 11.1%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절에서 준비하는 대로’ ‘선원에서 하는 대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제사 상차림에 대한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금방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4) 제사음식 비용 부담 방법

「제사음식 비용 부담 방법」 유형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6>과 같다.

기혼남녀의 「기제사(추도예배) 비용 부담 방법」에 대한 결과는 ‘현금으로 상호부조 한다’ 45.5%와 ‘전적으로 제주가정에서 부담’이 43.4%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음식으로 상호부조 한다’는 8.7%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마련된 기금 사용’은 2.1%로 나타났고 ‘돌아가면서 차린다’거나 ‘현금·음식 두 가지 다 부조 한다’는 0.1%로 낮게 나타났다. 즉 53.2% 정도가 현금이나 음식으로 상호부조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장남 위주로 분배하던 것을 현재에는 다른 형제와 같은 비율로 분배되기 때문에, 제주에게 전적으로 제사음식 비용을 맡기던 관행에서 형제들이 음식이나 현금으로 골고루 나누어 분담하는 관행으로 옮겨 가고 있다고 사료된다.

<부록 1> 기혼남·녀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성별	1.000															
2. 연령	.096*	1.000														
3. 종교(유교)	.104**	.198**	1.000													
4. 종교(기독교)	-.042	-.079*	-.126**	1.000												
5. 종교(천주교)	-.102**	.057	-.100**	-.185**	1.000											
6. 종교(불교)	-.140**	.117**	-.188**	-.346**	-.277**	1.000										
7. 형제순위(둘째)	-.055	-.066	-.019	-.032	.049	-.050	1.000									
8. 형제순위(셋째)	.004	.036	.103**	-.022	.015	-.047	-.261**	1.000								
9. 형제순위(넷째)	-.057	-.077*	-.073	-.025	-.023	-.006	-.212**	-.153**	1.000							
10. 교육수준	.176**	-.212**	-.056	-.024	.070	-.067	-.008	-.043	-.006	1.000						
11. 직업(주부)	-.458**	.069	-.034	.012	.031	.106**	.045	.030	-.001	-.257**	1.000					
12. 직업(단순노무직)	.015	.088*	-.034	.058	-.010	-.027	-.019	.008	.066	-.225**	-.132**	1.000				
13. 직업(농업)	.141**	.121**	.088*	.003	-.063	.021	-.068	-.037	-.055	-.200**	-.124**	-.051	1.000			
14. 직업(판매직)	.039	-.073	-.022	-.061	.035	-.006	.005	-.060	.015	-.142**	-.208**	-.086*	-.081*	1.000		
15. 직업(전문관리직)	.171**	.060	-.009	-.036	.049	-.064	-.030	-.057	-.046	.511**	-.407**	-.169**	-.158**	-.266**	1.000	
16. 월평균가계소득	-.094*	-.109**	-.104**	-.026	.097*	.043	.026	-.040	-.066	.386**	.031	-.201**	-.159**	-.003	.239**	1.000
17. 가족형태(핵가족)	-.059	.049	-.045	.024	.078*	-.015	.045	.053	-.027	.007	.086*	-.028	-.131**	-.001	-.013	.063
18. 가족형태(혼자)	.014	-.077*	-.022	-.010	-.069	.004	-.056	-.005	.185**	.085*	-.098*	.096*	-.031	-.046	.040	-.087*
19. 출신지역(서울·경기)	-.041	.049	-.028	.050	.072	-.013	-.012	-.014	-.044	.039	.023	.029	-.085*	.004	.059	.054
20. 출신지역(강원)	.005	.115**	.079*	-.029	-.051	.020	-.037	.051	-.004	-.084*	.062	-.054	.000	.003	.029	-.022
21. 출신지역(경상도)	-.053	-.019	-.049	-.117**	.040	.107**	.035	-.034	-.039	.115**	.027	-.028	-.088*	.019	.041	.109**
22. 출신지역(전라도)	.037	.011	.046	.022	.043	-.168**	.014	.073	.024	-.004	-.013	.059	-.032	.080*	-.009	-.002
23. 출신지역(제주도)	-.050	-.042	-.016	-.109**	-.088*	.198**	.004	-.019	.074	-.067	-.015	-.001	.057	.015	-.035	-.102**
24. 가족주의	.206**	.318**	.143**	-.109**	-.068	.134**	-.079*	.011	.010	-.161**	-.083*	.107**	.097*	-.006	-.051	-.145**
25. 제사인식	.096*	.261**	.162**	-.240**	-.042	.242**	-.060	-.007	.044	-.071	-.061	.061	.045	.001	-.004	-.034
26. 제사기능	.033	.208**	.062	-.209**	.026	.210**	-.050	-.002	.047	-.018	.028	-.015	-.003	.017	.014	.063
27. 제례의식	.082*	.258**	.142**	-.248**	-.028	.251**	-.058	-.011	.047	-.054	-.040	.044	.033	.004	.007	.000
28. 제사대상	.021	-.055	.020	.052	-.026	.010	-.047	.038	.068	-.037	.029	-.035	-.023	.015	-.057	.015
29. 제사절차	.002	.075	.144**	-.521**	.007	.247**	.036	.007	-.077	.059	-.042	-.135**	.060	-.029	.083*	.061
30. 제사용품	-.045	.098*	.135**	-.364**	-.028	.236**	.018	-.039	-.034	.020	.012	-.066	.015	-.010	.087*	.042
31. 제사행위자	.004	.068	.061	-.105**	.004	.022	-.022	-.081*	-.084*	.016	-.009	.019	.040	-.025	.050	.031
32. 제사음식	-.024	.071	.106**	-.413**	-.002	.193**	-.012	-.035	-.055	-.013	-.023	-.155**	.086*	.074	.073	.047
33. 제례행례	-.017	.082*	.161**	-.524**	-.013	.261**	.010	-.023	-.073	.042	-.037	-.158**	.065	.005	.090*	.080*
34. 제사대상	.076*	.097*	-.011	-.086*	-.018	.110**	-.061	.040	.053	.070	-.013	-.054	-.060	.011	.026	.081*
35. 제사절차	.086*	.120**	-.038	-.065	-.070	.103**	-.089*	.042	.087*	.036	-.050	-.036	-.050	.013	.048	.051
36. 제사용품	.090*	.093*	-.084*	-.068	-.034	.099**	-.078*	.014	.079*	.046	-.025	-.072	-.046	.043	.030	.075
37. 제사참여자	.064	.059	-.038	-.047	-.058	.078*	-.049	.002	.011	.050	-.018	-.088*	-.058	.030	.013	.095*
38. 제사음식	.075	.061	-.057	-.010	-.055	.041	-.045	.030	.106**	.016	-.034	.003	-.054	.014	-.004	.032
39. 제례만족	.088*	.099**	-.056	-.059	-.058	.097*	-.077*	.031	.088*	.038	-.032	-.045	-.059	.022	.026	.061

